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3월 29일(음력 3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571 호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속셈

문화연대 "공원 입장료와 합동징수 부당" 주장 헌법소원 제출

불교계 "입장료 폐지이후 검토하겠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정헌 등, 이하 문화연대)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강제합동징수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해 문화재 관람료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문화연대는 3월 20일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는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법률유보, 포괄위임 금지 등 헌법의 일반 원리에도 벗어나 있다"며 "통합징수 행위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소 심판청구 배경

문화연대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제기한 문제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배경은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부당성과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고 폐지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실상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인 셈이다.

문화연대는 헌법소원 제출 직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재보수비용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가 해묵은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합동징수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선택한 것으로 비쳐진다.

#적법하지만 불교계엔 부담

조계종은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합동징수가 국립공원 조성 당시 연고권에 근거하고 있으나 여론이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부추기는 분위기 탓이다.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200억원이 넘는 문화재 관리비를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점도 문화재 관람료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조계종은 '선(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고수했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범여 스님은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확정된 다음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종단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대응 필요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관람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본지가 불교계 여론주도층과 관람료 사찰 관계자 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이를 방증한다.

설문결과, 폐지 찬성(29명)보다는 반대(38명) 의견이 높았지만 폐지에 반대한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의 80%가 '장기적인 폐지'를 꼽았다.

이는 문화재관람료가 자칫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주장에 대한 조계종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다. 문화재관람료로 인한 부작용을 안으면서까지 원칙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향적인 대응을 통해 불교의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로부터 문화재 유지 · 보수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람료 징수사찰인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은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종단은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고 정부로부터 문화재 유지 · 보수비용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 미소로 살아보자

조계사가 3월 22일 경내 백송아래 새로 봉안한 천진불(높이 150㎝)이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비둘기 한 마리도 천진불심으로 천진불의 손을 간지럽히고 있다. 조계사=박재완 기자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 역사 · 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큰 가르침 바로 배울 기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17일 시작 … 매주 접수받아

월정사(주지 정념)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로 총 6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17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시작됐다.

입제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림 프로그램이 한암 스님의 수행법인 '승가5칙'(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짜여졌으므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날 프로그램인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정념 스님은 '한암대종사의 입멸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넘나든 한암 스님의 모습에서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라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8일 이어진 '화엄산림'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깨닫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으며,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요,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이니, 이것이 그대로 화엄광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고 법문했다.

이번 수행학림에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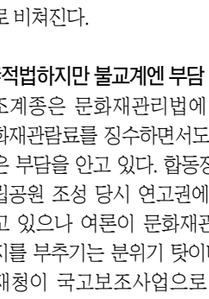
특히 30여명의 수행학림 수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두 차례의 강의(법문)를 듣고 오대 참배, 철야정진,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등을 하면서 한암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겼다.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은 4월 24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3일간 모두 6주에 걸쳐 진행되며, 동참접수는 매주 받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붓다뉴스(buddhapianews.com) 또는 월정사 홈페이지(woljeongsa.org)를 참고하면 된다. (033)332-6661~5

관련기사 9 · 18 · 19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부산불교련, 4월 3일 '국제신문 후원의 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 범어사 주지)는 언론불사에 진력하는 국제신문을 후원하기 위해 '국제신문 후원의 밤' 행사를 4월 3일 오후 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1천여명이 동참해 격려하게될 이 자리에서 김광삼 국제신문사장은 국제신문의 향후 비전과 계획을 밝힌다.(051)867-0501 김주일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대원사 조실 벽봉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부산보현회장 전진호씨

대구에 공부바람 6면
불교기업 왜 없나 10면
전국이 꽃축제 28면

봉행 경산대종사 조사전 기공식 및 대웅전 장엄불사 회향법회



학월 경산대종사 진영

귀의 삼보하옵고
역대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법향이 그윽하고 특히 근대 불교정화불사의 핵심 법주셨던 학월 경산대종사님의 숨결이 생생한 적조사!
그 법향, 그 법맥 오늘에 되살려 이어가고자, 유서깊은 전통사찰 적조사는 여러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대웅전을 새롭게 장엄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월당 경산대종사님의 영정과 유품을 모시고자 조사전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기공식을 갖고저 하오니 수희 참석하시어 증명하고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웅전 삼존불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

- 일 시 : 2006년 4월 10일 10시
- 법 주 : 지일, 우담
- 장 소 : 적조사 대웅전

⊙ 경산대종사 조사전 건립 기공식

- 기공식 : 2006년 4월 10일 11시
- 증 명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가산 지관
- 사 회 : 성효

⊙ 경산대종사 조사전 건립발원 천일기도

- 일시 및 장소 : 매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

입재	2006년 4월 10일 ~ 2006년 7월 18일
2재	2006년 7월 19일 ~ 2006년 10월 26일
3재	2006년 10월 27일 ~ 2007년 2월 3일
4재	2007년 2월 4일 ~ 2007년 5월 14일
5재	2007년 5월 15일 ~ 2007년 8월 22일
6재	2007년 8월 23일 ~ 2007년 11월 30일
7재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9일
8재	2008년 3월 10일 ~ 2008년 6월 17일
9재	2008년 6월 18일 ~ 2008년 9월 25일
10재	2008년 9월 26일 ~ 2009년 1월 3일
회향법회	2009년 1월 3일 오전 10:30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자제 합장

서울시 성북구 돈암 2동 593 전화 : 02)924-5362 팩스 : 02)924-5363

어린이포교 '교두보' 지키자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폐쇄위기' 간신히 모면

해마다 신입생 감소, "불교계 유일 시설…관심과 지원을"

불교계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이 신입생 미달로 허가 취소 상황에 처했다가 위기를 모면했다.

1991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사 위탁교육시설 제3호로 지정 위탁받은 보육교사 교육원은 15년 동안 3천여 명의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배출했다. 그러나 2001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관계당국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으며, 2005년에도 80명의 신입생을 받아 2차 경고를 받았다.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울 경우 다음해 정원에서 50명을 감축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에는 150명의 신입생만 받으면 됐지만, 접수 마감일인 3월 20일까지 54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150명 중 절반인 75명 이상의 신입생을 받지 못해 3차 경고로 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불교계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청에서 허가 취소를 보류했다.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할 경우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실무경력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 대학 유아교육과 및 사회복지학과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재학 중에도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등의 특전이 있지만 불자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육교사 교육원장 자용 스님은 "87개 보육교사 양성 기관 중 50개 이상이 기독교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경우 교인들을 의무적으로 보육교사 교육원 등에 입학시키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승가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단과 불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용 스님은 또 "조계종 교육원측과 3급 승가고시 때 국가자격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기 위해선 신입생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교육원 모집대상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자(검정고시포함), 대학에서 타 과목 전공자 등이다. 수업시간은 주간반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까지, 야간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전형은 서류 및 면접으로 이뤄지며 입학원서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반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를 첨부해 교학과(02-929-5004)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리는 문화재 아니다"

문화재청, 현등사 소송서 사실조회 회신

삼성측 "사리·사리구는 공예" 주장 힘 잃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조계종 현등사(주지 초격)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층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리만 단독으로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 3월 17일 이 같은 의견을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13부에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사실조회 회보를 통해 "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대의 문화활동의 소산인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리장엄구와 별도로 사리 단독으로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입장은 사리가 죽은 자의 신체 일부이며 불교의 종교적인 신앙대상이므로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현등사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삼성문화재단측은 "사리나 사리구는 공예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술품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문화, 종교 및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등사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빠른 시일내에 변론기일을 정해 심리를 계속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등사측 사건 진행을 맞고 있는 봉선사 혜문 스님은 "사리함, 사리구, 사리호는 사리와 한몸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삼성문화재단이 지금이라도 현등사 3층 석탑 사리함 일체를 부처님과 이천만 불자에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모든 법 개정' 다음 회기로…

조계종 임시종회, 2005년도 결산 승인

선거법 등 각종 종헌·종법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제17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모든 개정법안을 차기로 이월한 채 3월 22일 끝났다.

3월 20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임시중앙종회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165억여 원으로 보고받고, 세입 174억여 원, 세출 143억여 원의 결산내역을 승인했다. 이밖에 시설특별, 중앙승가대 이전, 신도교무금, 승려노후복지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중앙종무기관 직영·특별 분담금 사찰에 대한 종정감사 보고 건 등도 집행부가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제13대 중앙종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종헌종법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채, 각 종책모임 대표들이 "7월 중 임시종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기존의 종헌종법특위를 해체하고 '종헌종법재개정기초위원회(향적 장적정안 이암 덕문 효림 광조 도각 운달 스님)'를 꾸려 7월 임시종회에서 반드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회에서 상정된 개정법안은 종헌 9조 3항(사설사암 및 법인의 종단등록 의무규정), 총무원장 선거법, 종무원법, 사설사암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등 모두 11건이었다.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은 초우 스님의 사의로 폐기 됐으며, 지관 스님의 원로의원 사임에 따라 새로 도문, 대일, 현해, 명선, 월주, 정무 스님 등 6명이 추천됐다. 호법부장 서리였던 도진 스님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또 종립학교관리위원을 사임한 광조 정안 의연 정념 도진 스님의 후임에 자제 도완 법안 효림 법보 스님이 추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승가학원의 이사후보추천 동의의 건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방송위원회에는 경인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종교적 형평성을 기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7월경 종회열어 종법 개정

종회의장 법등 스님 밝혀

한편, 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폐회 다음날인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헌종법 개정안이 차기로 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7월 임시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등 관련법안 등을 개정해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11월 임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13대 중앙종회의 모습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사찰운영모델 찾기 주력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림)는 3월 24일 서울 수국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연구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연구는 신도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재정확충 방안 등도 포함해 진행된다.

실천불교승가회는 또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엠립에 준공한 보육·교육시설 BWC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원 가족모임도 결성키로 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고불총림 유나 지선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부의장에 조계종 교육부장 퇴휴 스님, 중앙종회의원 장적·법안 스님,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을 선출했다. 또 집행위원장 토진, 종책위원장 일문, 평화통일위원장 법경, 국제불교위원장 부경, NGO환경위원장 정휴 스님을 선임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이사에 정념 스님 범여 스님은 보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이 선임됐다. 그러나 범여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은 교육경력 문제로 보류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3월 2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17차 이사회를 열고 현 이사장 현해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정념·도완 스님 중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 차기 이사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가 지관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범여·보원 스님 중 범여 스님의 교육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이사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후임으로 교육경력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이다.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3명 이사 중 11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관음불상 가짜주장 단호히 대처

태고종 총무원·선암사 "검찰조사결과 존중"

선암사 관음불상 사건과 관련해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승려들이 '가짜 관음불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과 태고총림 선암사는 3월 22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종단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과 선암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모조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단과 선암사를 악의적으로 위해(危害)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암사 목조관음상은 2004년 가짜 의혹이 제기되어 진정과 고소가 잇달아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등에 근거 불상이 모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두식 기자

조계종 새 스님 368명 탄생

제26회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조계종은 불기2550년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3월 21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했다.

비구 205명, 비구니 163명이 새로 탄생한 이번 수계산림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을 수료한 예비스님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됐다.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은 "참불자 되기를 항상 서원하고 살아가 달라"고 법어를 내렸으며, 법계위원장 혜정스님은 "위계를 지켜 화합하는 승가를 구현하라"고 법문했다.

이번 제26회 구족계 수계산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 봉은사가 가사불사를 통해 제작한 삼보륜 문양이 들어간 종단공식 가사를 정식스님이 된 368명 전원에게 처음으로 전수했다.

조용수 기자

"경인민방 사업자선정 종교편향 우려"

학담 스님 방송위에 중앙종회 성명 전달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학담 스님이 3월 24일 오전 9시 방송위원회에 중앙종회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학담 스님은 이날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종교적 편향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방송사 선정을 반대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을 표철수 사무총장에게 전했다. 표 사무총장은 "불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도 현격히 벌어져 있는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한 투명한 방법과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우려를 가슴깊이 되새겨 임기 말에 졸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차기 방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독교방송(CBS)측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굿TV컨소시엄이 지난 1차 사업자공모에 탈락하자 영안모자, 경남기업 등을 영입해 2차 경인방송사업자 공모에서 나서고 있다. 방송위는 오는 27일 2차 공모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현 방송위원의 임기인 5월9일 안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발대식

*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요일,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조계사

-. 법회 당일 청정운동 신행수첩과 홍보 스티커를 나누어 드립니다.

'청정운동'은 불자다운 삶을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가자는 신행개혁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청정운동 실천지침'이 기록된 신행수첩을 배포하여 동참 불자 개개인이 매일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재)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회

선 언 문

오늘날 이 땅의 겨레는 인간 본연의 청정함을 깨닫지 못하여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부와 권력의 끝없는 추구에서 기인한 물질만능의 사고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만연하게 하였고, 이로부터 오는 불신과 대립, 빈부의 심각한 양극화는 이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선도하여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뭇 생명과 더불어 참되라 일러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여실히 구현함이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 본래의 가르치심이었고, 우리 겨레가 수천 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모두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실천지침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였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였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었는가.
- 오늘 내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였는가.
- 오늘 남이 한 일을 함께 기뻐하였는가.
- 오늘 경전을 한 줄이라도 읽었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거스르지 않았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회향(廻向)하였는가.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
청정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송 석 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 02-719-2606 Fax 02-719-5052 www.kbpf.org

경허 · 만공 · 금오 · 월산 스님

부도탑 한자리에

21일 청계사서 제막식

근세 한국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 · 금오 · 월산 스님의 부도탑이 경허 스님 출가본사인 청계사에 나란히 모셔졌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3월 21일 절 입구에 조성한 부도밭에서 경허 · 만공 · 금오 · 월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락(前 용주사 주지), 성타(불국사 회주), 종상(불국사 주지 · 청계사 회주), 지명(前 법주사 주지), 법정(수덕사 주지), 도공(법주사 주지), 정오(용주사 주지), 장주(포항 오어사 주지), 종광(경주 기림사 주지), 자승(조계종 총무부장), 도진(조계종 호법부장), 법달(포항 보경사 주지), 덕민(불국사 승가대학장) 스님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수 · 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 큰스님들의 유훈을 기렸다.

1부 법요식은 월성 스님(복천암 주지)의 축원으로 시작돼 성행 스님의 사업경과보고, 정오 스님의 경모사 순으로 이어졌다.

또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부도 조성에 공이 큰 금속공예가 최광웅씨, 서예가 이규찬씨 등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행장소개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부도탑 제막을 계기로 청계사가 한국 선불교의 정맥을 면면히 잇는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네 분 스님들의 오도송을 각각 염송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추모사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마음의 때를 씻듯 큰스님들의 부도 앞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기를 바란다"며 "청계사가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법요식을 통해 부처님께 부도탑 건립을 알린 사부대중은 부도밭에서 네 분 스님들의 부도탑과 비, 청계사 사적비의 천을 벗기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비문에 적힌 네 분 스님의 행장은 열반하신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前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이 직접 짓고 쓰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사는 2003년 7월 '한국 선중흥 본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키 위해 부도전 재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0월 개토식을 거행한 이래 2년 간 준비해왔으며 연면적 280평 규모다.

글 · 사진/의왕=이은희 기자



3월21일 의왕 청계사에서 열린 경허 · 만공 · 금오 · 월산 스님 부도탑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큰스님들의 유훈을 기리고 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4년새 20배

지난해 5만 2500여명 체험

지난해 조계종 사찰 템플스테이에는 총 5만2504명이 참가해 3만6902명이 참가한 2004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 불교문화체험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6년도 상반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지난해 템플스테이 현황을 공개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사업 첫해였던 2002년 2558명, 2003년 1567명, 2004년 3만6902명에 이어, 지난해 5만2504명이 참가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인사(5637명), 갑사(5618명), 골굴사(3409명) 등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내국인 4만5887명, 외국인 6617명이 참가했다. 또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봉은사 템플라이프에는 2146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템플스테이 참가자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도 공개됐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주 연령은 30대(29.1%), 20대(23.0%), 40대(21.6%)로 젊은층이 주를 이뤘다. 학력은 대학재학 또는 졸업자가 57.7%로 가장 많았다. 또 서울(31.3%), 경남(19.6), 경기(18.0)에서 참가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만족 51.4%, 매우만족 34.0%)는 상당히 높았으며, 프로그램 가운데는 스님과의 대화(26.8%), 참선(22.5%)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조용수 기자

저출산 · 고령화 학술포럼

4월 13일 역사문화기념관

조계종이 저출산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교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고경환 연구원의 '고령화 · 저출산 사회이행에 따른 제도화 흐름 모색'과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의 '고령화 · 저출산 사회 제도화 방안과 불교사회복지 대응방안' 주제발표가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2008년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둔 관련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휘연 부장이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실무' 특강을 펼친다.

이은비 기자



십이지신상이 그려진 타일을 살펴보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왼쪽부터).

한국불교박람회 열려

불교계 최초의 불교문화상품 박람회인 2006 한국불교박람회가 3월 23일 개막식을 개최하고 서울무역전시관(SETEC) 전관에서 나흘간의 대장정을 펼쳤다.

13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진각종 문사부장 행정 전수, 원효종 문화부장 석주 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익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지연 기자

北 묘향산 보현사서

동국대 100주년 법회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100주년을 맞아 3월 17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이뤄진 법회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고불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새로 맞는 100년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쳐 소중한 생명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맑은 마음과 어진 행동을 일깨워 교육에 전념할 것"을 서원했다.

이사장 현해 스님은 기념법어에서 "우리 남과북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이 땅을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어가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설법했다.

법회에는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보현사 주지 청운 스님, 조불련 심상진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진흥원, 2006 신행개혁 청정운동 전개

부처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 불자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된 신행개혁운동인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이 새롭게 펼쳐진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3월 29일(수)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대구(5월), 부산(6월), 광주(9월), 전주(10월), 서울(11월)에서 전국순회법회를 여는등 2006년도 청정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실천적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법회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근간으로 8개의 구체적 실천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8개항의 실천 덕목은 공경하기, 칭찬하기, 베풀기, 참회하기, 기쁨주기, 경전읽기, 거스르지 않기, 회향(廻向)하기 등이다.

또 불자 개개인이 매일 확인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신행수첩(68쪽, 3만부)과 차량용 홍보스티커(3만매)를 제작, 배포해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의식을 모든 불자들의 마음속에 새겨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95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 199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속초, 경주, 논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을 통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천행사, 결사대회, 신행단체대표자연수 등을 추진한바 있다. 문의 (02)719-2606

김원우 기자

희귀병 앓는 형준이 돕기 능인사회복지관 나섰다

지역 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던 한 난치병 어린이를 발견하고 후원모금에 나섰다.

올해 다섯 살 형준이는 언제 핏줄이 터질지 몰라 외출도 마음대로 못한다. 형준이는 심장판막증에 더해 '간 문정맥 혈관기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딱 두 명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을 앓고 있다.

형준이의 부모는 강남구의 빈민촌인 포이동 266번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다. 과일행상을 하는 아버지 박종묵(42)씨는, 한 달 수입 60만원으로 형준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급기야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과일트럭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도 제외돼 최근까지도 지원금을 전혀 못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포이동에 위치한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형준이를 위한 후원모금을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소개된 이야기를 읽고 3월 8일 복지관 직원들이 형준이 집을 방문해,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02)571-2988 신용협동조합 01324-12-006737(예금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이은비 기자

분노의 축제 '새만금의 봄'

전국서 1000여명 집결 "갯벌을 살려다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3월 19일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서 총집결의 날 '새만금의 봄'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실상사 작은학교 등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지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다.

새만금국민회의 공동대표 오영숙 수녀가 눈물의 인사말로 '새만금의 봄'의 막을 걷었다.

두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새만금 간척공사를 멈춰달라는 호소는 "배는 바다로 가고싶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배가 등장하는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달했다. 뱃노래를 타고 배가 방조제 입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한시간여에 걸쳐 몸싸움을 벌이던 양측은 부상자 없이 한발 물러섰다.

참가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새만금을 노래했다. 분노의 축제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버스안, 모두의 표정은 어두웠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현각 스님은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일깨우는 그날까지 희망을 놓지말자"며 쳐진 어깨를 다독였다.

부안=박봉영 기자

황우석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 발족

현직 교수와 강사들로 구성된 황우석팀 연구재개 촉구 교수모임이 3월 18일 발족됐다.

모임에는 고준환(경기대), 김용표(동국대), 이태영(중앙승가대), 설인찬(대전대), 조성길(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교수모임은 앞으로 인터넷 카페(cafe.daum.net/nicewoosuk)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시국강연회 개최 등 황우석 교수팀 연구재개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통영시민의 휴식처이자 청정수행도량인 미륵산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옵고,

제방에서 수행정진에 힘쓰시는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수행자는 산이나 숲으로 갔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출가를 입산수행이라 합니다. 산은 병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자성을 찾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피로할 때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 산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가지 현대식 구조물로 뒤덮여 훼손된 산을 바라보거나 오를 때는 마음의 안식은커녕 되레 혼란을 가중합니다. 근래 산중 고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이기와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중이 도심처럼 변모한다면 지친 현대인의 휴식 공간은 물론 출가 수행자들에게 최소한의 수행터마저 빼앗아 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통영 미륵산 삭도(케이블카)설치는 지난 2002년 중앙종회에서 이미 반대 결의를 했고 총무원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륵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 산지를 지키지는 못할 지언 정 개발에 앞장 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에게 물질적 가치보다는 심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동적이고 유희적인 놀이보다는 마음을 고르는 정적인 휴식을 선양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큰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

통영시 남쪽, 미륵도 중앙에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미륵산! 당래 강림하실 미륵부처님이 용화회상을 펼칠 불국토라 하여 이름 지은 미륵산 용화사! 이곳에 거대한 철 구조물을 세워, 황금만능주의를 숭배하는 산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울창한 산림사이로 맑은 계곡이 흐르며 한려해상의 다도해를 품고 있는 미륵산을 훼손하는 것은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이며 후손의 희망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청정수행도량 미륵산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기2550(2006)년 3월 24일

불 교 환 경 연 대

상임대표 수경, 공동대표 보선 혜자 세영 임완숙, 집행위원장 진원 외 회원일동

자질 · 능력 갖춘 의원 뽑고 전문성 키우자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에게 묻다

1 종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종회는?

2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야

올해 11월이면 조계종 13대 중앙종회는 막을 내린다. 따라서 10월에는 14대 종회 구성을 위한 선거전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14대 중앙종회가 여법하게 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의원보다는 문중별 정치적 안배에 따른 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아닌지, 종책 개발보다는 종단정치에 매진하는 의원이 뽑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종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종회' 기획에 이어 중앙종회가 사부대중의 진정한 대의기구이자 종단 발전을 견인하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변하지 않는 종회

조계종 제170회 임시중앙종회가 열린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처리한 후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스님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발언을 제지했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종회의원 스님은 "개판이구만"이라는 탄식을 내뱉었다.

'소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사일정을 논의하던 중 '관음재일 문제'가 불거졌다. 종회를 일찍 마치고 3월 23일 관음재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일에 관계없이 의사일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조계종 중앙종회 현장의 한 단면이다.

●입법기구 맞나?

조계종 중앙종회는 입법기구이다. 종헌 · 종법을 제 · 개정하는 것은 물론 종단의 예결산을 감사한다. 또 원로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의 인사에 대해 추천과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불신임할 수도 있다. 종단 내에서는 어떤 기구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는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활동결과를 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12대 중앙종회 총 20번의 회기 중 하루만 열린 종회가 8회에 달하고 147회 종회의 경우 2일간 열렸으나 총 회의시간이 1시간 35분에 불과했다. 의안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 331개 중에서 종회의원 개인이 발의한 것은 51건에 지나지 않았다. 13대 중앙종회 전반기도 마찬가지다. 156회와 159회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으며, 13회의 회기 중 1일만 열린 종회가 5회나 된다.

종회가 '정치적 이유'로 소집되는 예가 많아지면서 쟁점 안건이 없을 경우 '알아서' 해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마 자격기준 강화해야

그렇다면 종회가 보다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종회의원의 선출이다.

비구니스님을 포함해 모두 81명의 스님들이 종회의원이 되지만 사실상 각 교구와 문중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종회의원이 선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회의원을 하던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가 되면, 임기가 끝난 본사 주지가 종회의원이 되는 경우나, 중앙종무기관 집행부 소임을 맡았던 스님이 직능 종회의원이 되는 예가 흔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각 교구는 전문성을 갖춘 스님을 공정하게 종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하고, 직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스님이 후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사회법 위반 및 사설사암 미등록으로 종회의원 자격논란을 빚고 있는 현법 스님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법과 종법 준수 여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는 종회의원들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회의원 원정 스님도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이 투표를 하고 20년 이상의 스님이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법 제4조에는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으로 종회의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전문위원제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원을 뽑는 것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종회의 역할과 기능 같은 기본적인 교육에서부터 법률 입안과 예결산 심의, 행정 감사 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2005년은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의 경우도 14대 종회 구성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종회법 제26조 1항에는 '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위원 활용은 미미하다. 2005년 3월부터 입법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각 분과별로 유능한 전문위원을 배치한다면 종회의 종책 생산능력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14대 종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회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회 사무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종회 사무처는 중앙종회법 제9조에 따라 종회의 사무보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종회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종단 전체의 3%(2006년 5억 16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도 대폭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회사무처장 법진 스님은 "사회적으로도 전문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의 종회구조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며 "종회 사무처의 기능이 확대된다면 종회의원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과위 상설 운영… '종책 모임' 폐해 극복

본지가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존재하는 종책 모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종책 모임을 질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종책 모임의 정치권력 지향성에 있다. 종책 모임은 명실상부하게 종책 동반자들의 모임이어야 하지만, 현재 중앙종회내 종책 모임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각 분과위 활동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종회에는 총무 · 교육 · 포교 · 사회 · 재정 · 호법 · 법제 등 7개의 분과가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곳이다. 종책 모임이 활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분과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책 모임의 본연의 임무인 종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3월 10일 '미래지향적 종단을 설계한다'는 주제로 종책공청회를 개최했던 화엄회는 스님과 재가자 54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종책 설문조사를 통해 조계종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화엄회 회장 성직 스님은 "종도들은 더 이상 종책 모임들의 권력투쟁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와 견제 시스템 구축해야

중앙종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현재 중앙종회의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170회 중앙종회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원들이 모니터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활동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본지가 벌인 설문에서 종회의원들의 대부분(80%)이 재가자의 종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지만, 종단이 사부대중의 공동체인 만큼 재가자들의 목소리를 종책에 반영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종회의원 종훈 스님은 "종회에서 종회의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발언권이라도 주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가자와 스님들이 구성하는 상 · 하원 형태의 종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출 · 재가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종회의원들의 일상적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와 함께 종무원법 제6조 1항에 규정된 교역직 종무원 임용규정을 종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에 규정된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13대 종회는 총무원장 선거 2번 치른 것 밖에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14대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사부대중들은 지켜보고 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는 지난 3월 10일 종책공청회를 진행했다. 사부대중들은 화엄회의 움직임이 조계종 중앙종회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분과별 전문위원 배치, 종책 생산능력 높여야

"중립적 윤리위원회 구성으로 투명성 확보를"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

귀의 삼보하오며
한국의 삼대(三大) 관음성지로 이름난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한국 제일가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거룩한 이 도량에 30여 년간을 나무를 심고 터를 닦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千日기도와 함께 대웅전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고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여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 지 聂 庵 합 장

증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性 壽 大宗師

동 참 안 내

1. 대웅전 낙성식 법회 / 2006년 양력 4월 8일 오전 11시
2. 낙성식 축하공연(안숙선 명창, 연예인 김병조) / 오후 2시
3. 기도성금 : 30,000원, 영가 1위당 10,000원
4. 기념품 증정(접수 하신 분), 국민 119-01-0196-150 주병남
5. 관광버스 단체로 오실 분은 미리 연락바랍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기도영험도량
HAE DONG YONG GUNG TEMPLE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
☎(051)722-7744, 7755

마산 왕거사들 다시 뭉쳤다

창립 17주년 맞아 기념법회 열고 재도약 다짐



마산불교거사림회 최종식 회장이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월 20일 오후 마산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법당에서 마산불교거사림회(회장 최종식) 창립 1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창립 기념 법회는 1989년 3월 창립한 마산불교거사림회가 오랜만에 마산 지역 내외 인사들을 초대하고 마련한 기념법회로 '마산 거사불교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창립 직후 열렸던 몇 차례의 기념법회 외에는 그동안 개별적인 수행과 신행에만 머물러왔던 마산불교거사림회가 이날 대중 법석을 마련하자 회원은 물론 마산 지역의 불교계가 거사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이날 법회에는 마산불교거사림회 창립 당시 마산 정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과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공무원불자회, 금강자비회 등 각 신행단체장들도 함께 했다.

마산불교거사림회가 이날 법회를 열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애초 마산지역 재가불자들을 모두 초청해 신년하례 법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너무 오래 정체돼왔던 거사불교의 한계와 현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마산불교거사림회 창립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시 17년의 시간을 거슬러 자료를 뒤지고 연혁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창립 기념법회를 준비했다.

1·3주 월요일 법회 정례화
"수행·봉사 많이 하겠어요"

그 과정에서 마산 불자들은 마산 거사불교의 힘을 다시금 느꼈다. 창립 당시부터 지안 스님의 지도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배우고 1994년부터는 경조부를 만들어 장례봉사 활동을 지속해왔고, 초파일 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영축불교대학을 졸업했고, 이제는 아는 불교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지향하며 대사회적인 역할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셋째 주 법회에는 전국의 유명 법사 스님을 초빙, 수행하는 거사불교의 분위기를 다지는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는 장례봉사 활동에 필요한 공부와 준비를 하는 법회를 보고 있으며, 연 2회 수련법회도 열고 있다.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마산불교거사림회는 당면 과제로 젊은 회원 확보를 꼽았다. 이를 위해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생동하는 거사불교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향후 참선, 염불, 기도 등의 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해 일반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최종식 회장은 "수행하는 거사불교의 힘이 마산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마산 지역 젊은 거사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055)242-8393

글·사진=천미희 기자

생활 속 불교실천 진정한 페미니즘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올해 초 창립된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지원장 이영숙)이 부산 지역 불교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첫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사진).

불교여성개발원 주관으로 3월 21일 코모도호텔 오륙도홀에서 열린 '부산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에는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영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김수현 부산지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이사 및 각 사찰 신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불교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대사회적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민자 (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이 '21세기의 시대정신' '동양사상과 생활문화' '불교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 원장은 '불교여성운동과 페미니즘' 강연을 통해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불교여성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안이비설신의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탐진치를 극복하고 지혜를 쓰면서 가정,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부산불교계 여성 지도자들은 "수행과 신행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 속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불교여성운동의 기반이 된다는 진 원장의 강의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끝없는 수행으로 뜻 이을 것"

범어사 용성 대종사 추모재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3월 2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용성당 진종 대종사 입적 66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행장소개, 분향, 종헌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불교가 배척되던 조선시대와 주권을 잃은 일제침략기를 거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행과 중생을 아끼는 마음이 변함 없으셨던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수행생활이 부끄럽기만 하다"며 "하루하루 끝없는 수행으로 스님의 뜻을 이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용성 스님은 1903년부터 전국제방선원을 돌며 안거에 전념했으며 1911년 서울 대각사를 창건하고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다.

일제침략기에 나라를 지키는 호법불교 운동에 앞장섰으며,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불경번역사업을 벌이는 등 근세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은아 기자

'발심수행장' '신심명' 특강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3월 30일부터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특강을 마련한다.

'초발심자경문' '계초심학인문'에 이어 지현 스님의 특강으로 열리는 '발심수행장' 강의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051)294-9300

또한 정토회 부산법당에서는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신심명, 법성게를 풀어내는 2006년 봄 특별법회를 연다.

의상대사의 법성게와 선불교의 보전으로 중국 선종 제3조 승찬대사 지은 '신심명'의 참뜻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법회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열린다. (051)747-9997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활동 전문화·조직 세분화로 '도약'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2006 정기총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협회장 김석조)는 3월 2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업무감사보고, 2006년 사업계획서 심의, 2006년 세입, 세출 예산 심의와 함께 지도위원, 운영위원장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함께 가졌다.

이날 김석조 협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며 "9월 10주년을 앞두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창립 10주년을 기해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해 지도위원, 각 분야 실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활동을 세분화, 전문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모은암 주지 정산 스님 등 4명의 지도위원을 위촉했다.

이 밖에도 하영곤(범어사금정불교대학)씨를 운영위원장으로 강경중 동해중학교 교장을 연수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청소년 연구실장, 상담실장, 자원봉사실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손기춘 가야고 교사, 이종운 감만중 교사가 우수지도자로 선정돼 총재상 회장상을 받았으며 배한욱 파라미타 사무국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9월 9일 부산 KBS 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지현 스님 달마도 61점 보시

진해 용운사 자비의 날 행사



진해 용운사(주지 지현)는 3월 21일 부광맹인불자회를 초청, 장애인을 위한 자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7년 전부터 1년에 두 차례 장애인들을 초청, 위안잔치를 열고 있는 지현 스님과 한국연예인클럽은 이날도 부광맹인불자회 회원 90여명에게 온천과 점심공양, 공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용운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음사 스님 기일인 5월 24일과 상좌의 기일인 10월 10일마다 근육병 환우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왔다.

특히 이번 자비의 날 행사는 지현 스님의 환갑을 기념하는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지현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 61점을 보시해 관심을 모았다.

부광맹인불자회 이재환 회장은 "지현 스님은 벌써 몇 년째 우리 회원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어주고 있어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현 스님은 "밥 한 끼 적게 먹고 아껴서 형편이 닿는 대로 장애우들을 위한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광사 중창불사

우리는 타오르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정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무 석 가 모 니 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 전화 413-6060~2 ● 팩스: 413-6781 ● http://www.bulkwangsa.org

"공부바람이 꽃바람보다 향기롭죠"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매일 특강…불자들 신바람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꽃바람 보다 먼저 공부바람이 불었다.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바람의 진원지다. 강원 학인스님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수행을 유지하는 일도 만만찮은데 매일 재가자들의 공부를 지도한다.

월요일에는 <금강경>특강(동화사 설법전 오후 2시), 화요일에는 '유식' 강의(동화사 설법전 오후 1시)를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다선(茶禪)'(동화사 심검당 오전 10시), 목요일에는 '달라이라마반야심경' 특강(지산동 지산선원 오후 7시)과 대구불교방송의 '자비수관 강의(오후 4시 10분 방송)'로 불자들을 만난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는 능인고등학교 법당에서 교사들을 위한 '티베트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는 지운 스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쉼이 없다.

매주 일요일 <육조단경> 강의(동화사 심검당 오후 3시)를 하고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해심밀경>을 강의(동화사 설법전 오후 7시)를 이끈다.

3월 20일 오후 2시 <금강경> 특강 현장. 5번째 강의다. 처음 30여 명에 불과하던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이 "혼자 듣기 아깝다"고 주변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는 수보리장로가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에서 시작됐다.

"왜 수보리장로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을까요? 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운 스님의 차분한 강의는 뜻풀이에 머물지 않는다. 시공을 건너뛰어 부처님회상으로 돌아가 <금강경>이 설해진 순간의 상황을 재현하며 재가불자들이 알기 쉽게 숨은 뜻을 끌어낸다. 부처님회상에서 침묵(말과 생각이 떠난 자리, 공의 자리)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며 공을 말하고, 공을 제일 잘 아는 해공제일 수보리장로이기에 대중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를 알고 대중을 대신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송광사에서 10년 이상 강주 소임을 역임한 지운 스님의 특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1시간동안 이어졌다. 법회가 끝나자 수강생들은 심검당에 있는 스님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못다한 질문을 쏟아 놓았다.

"바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바쁘지 않다"는 지운 스님은 "방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강의가 이렇게 됐다"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대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손님을 부처님처럼 모실께요"

운불련 대구지회 창립20주년 소년소녀가장에 성금 전달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회장 신상용, 이하 운불련대구지회)가 창립 20주년과 호출택시 8주년을 맞아 3월 20일 대구 알리앙스웨딩홀에서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조홍인 운불련 회장, 주성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회원과 불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성금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발심을 잃지 않고 20년이란 세월을 걸어오면서 최고의 호출택시로 우뚝 서게 됨은 회원여러분의 노고와 지역불교계의 성원이 컸다"며 "앞으로도 굳센 원력과 굴하지 않는 정진력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인간관계를 꽃피워 손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운불련이 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 출범

일선 초 · 중 ·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불자들의 모임인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회장 김용태 · 능인중 교장)이 3월 18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도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1월 발기모임을 가진 후 정식 출범하는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은 조직을 정비해 조만간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108사찰순례를 떠날 계획이며, 파라미타의 저변확대 등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 초 · 중 · 고교장 30여명과 교감 10여명 교육전문직 불자 1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배지선 기자

아동학대예방 연중 캠페인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실천, 신고전화 1391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서현)이 한국도로공사 후원으로 3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구미와 김천, 상주 군위 톨게이트 및 칠곡 상 · 하 휴게소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연중 캠페인을 펼친다.

3월 23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구미 톨게이트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9교구 전진순회법회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지역불교지도자 및 신도임원 전진전국순회법회가 4월 1일 11시부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와 제9교구포교국, 9교구 및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06년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배지선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바로자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제46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4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봉행한다.

조선태조 7년(1398년) 팔만대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 데서 유래한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4월 6일 오후 4시에 입재해 밤새 종진 무관 종묵 스님의 법문과 천도재로 이어지고, 7일 오전 8시에 괘불봉안 후 정대법회를 봉행한다. (055) 934-3000

배지선 기자

컴퓨터 교실 · 미술나라 운영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지역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교실을 마련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컴퓨터기초, 파워포인트 과정은 4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주2회 2시간동안 진행되며, 워드프로세서 홈페이지과정은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마다 강의한다. 대상은 장애인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원은 각 과정 10명, 접수마감은 3월 31일 오후 5시까지다. (054) 633-6415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화합 다지는 행복의 함성

대구 경북 불교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회

행복의 함성 시작! 와! ~

3월 18일 대구시민체육관이 대구경북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의 함성과 웃음으로 들썩거렸다. 대구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회장 성웅)가 불교계 복지기관과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 것. 2002년 3월 1박2일의 산사체험을 겸한 직지사 연수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연수회는 상주냉림사회복지관장인 성웅 스님(직지사 주지)과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진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대표 지도, 사회복지법인 열림가람 대표 난승,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도륜 스님을 비롯한 약 30여개의 불교계 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 2부 명랑운동회로 진행됐다.

이벤트팀 '놀레벤트'가 특별히 준비한 명랑운동회는 꼭지점 댄스로 가뿐히 시작됐다. 대구, 포항, 경주가 복지팀, 경주 포항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이 나눔팀으로 나눠지고, 열띤 응원 속에 한마음풍선 만들기, 용수철릴레이, 지구공대전, 4인5각 발묶어 달리기, 깃발서바이벌 등의 명랑경기가 이어졌다.

지구공대전은 행사에 참가한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마음만큼이나 둥그렇게 부푼 대형지구공을 6명이 안고 돌아오는 경기다. 4인5각 달리기는 돌연 12인 13각으로 돌변했다. 다리가 많아 움직일 수 있을까만 난승, 지도, 진오 스님까지 가세한 상태에서 반환점을 돌아와 화합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두 팀의 응원전도 하늘을 찌른다. 물통에 모래를 채운 즉석 응원도구가 등장하고,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끼'를 발산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화합. 열심히 뛰고 웃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해 복지시설이용자들에게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만큼 대구경북 불교계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뛰고 웃는 가운데 큰 하나가 되어 행복의 함성을 내질렀다. 나를 비운 자리에 자비의 마음 가득 채워 시설이용자들에게 전하리라 마음먹으며.

하나되어 즐거움과 정보 공유한 의미깊은 하루
뛰고 웃고 신심 다지며 질높은 서비스 다짐

사회복지법인 열림가람 김종순(32)씨는 "시설이용자들을 위해 늘 프로그램을 준비만 했는데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니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며 "이런 기쁜 마음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산하 수성구자활후견기관 문지윤 과장은 "종사자들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3월18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구경북불교계 사회복지기관 · 시설 종사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연수회.

혜명복지원 개원 60주년 기념

禪 선서화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은 오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 · 2전시실에서 개원 60주년 기념 청소년 가장돕기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월하 스님, 석주스님, 중광스님 등 고승대덕스님들의 작품을 비롯해 국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일시 : 불기 2550(2006)년 4월 5일 ~ 11일까지 ♣장소 :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 · 2전시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806-137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화엄사, 지역농민 살리기 팔걷었다

구례군 농민회 초청 템플스테이 열고 자매결연
사찰 주차장에 주말농산물 직거래장터 열기로

화엄사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기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농민들을 위해 주차장에 주말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풍년기원제, 추수감사제를 개최한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18~19일 양일간 구례군 농민회를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구례군 농민회원과 가족 42명이 참석, 스님들과 다담을 나누며 '지역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밤늦도록 이어진 '스님과의 대화'에서 종삼 스님은 "사찰이 그동안 농민에게 문턱이 높았던 것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농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자"고 말했다. 덧붙여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지역농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구례 농민회 정정섭 회장도 "농민들은 먹고사는 현실적 문제가 급하다"며 "농산물 직거래, 지리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사업 등 찾아오는 구례가 되도록 화엄사가 앞장서 달라"고 청했다.

이 자리에서 화엄사와 구례 농민회는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화엄사 주차장에 주말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추수감사제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구례 농민회가 개최하는 영농발대식(4월 8일)에서 스님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기로 했다.

구례농민회 초청 템플스테이는 암자순례, 명상따라하기, 구례군 농민회원이 생산한 우리밀 국수공양 등으로 이어졌다.

이준엽 기자

2006 생명평화 탁발 첫 발걸음

7월까지 전북지역 순례…초등생 10명도 동참

생명과 평화를 구하고 나누는 '2006 생명평화 탁발순례'가 시작됐다.

생명평화 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3월 21일 군산 내초도에서 '새만금 연안 바닷길 걷기 순례'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13개 시·군을 순례하는 탁발순례에 돌입했다.

이날 탁발순례단은 전북지역 순례에 앞서 새만금 비응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방조제 사업과 자연생태환경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법 스님은 "새만금은 전북민의 아픔이 표출된 현장이다"며 "현장을 걸어가며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살을 돋게 하는 지혜를 구하고자 순례의 출발지로 새만금을 택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양분된 전북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생명평화의 길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새만금지역 순례에는 현장학습을 신청한 초등학생 10여명이 동참해 한 달간 새만금 현장을 순례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은 2004년 3월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제주, 경상 지역 등의 순례를 마치고 오는 7월까지 전북지역을 순례한다. 이준엽 기자



고불총림 율원이 개설되는 청류암 전경. 이곳은 1910년 만암 스님이 '광성의숙'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던 불교교육의 산실이었다.

법주사 충북포교단체 전진대회



조계종 충북포교단체 전진대회가 3월 17일 청주 일산웨딩홀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주사(주지 도공)가 개최한 이날 전진대회는 법요식과 15개 참가단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충북 불교단체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포교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고 말했다.

법주사는 충북 지역 포교 지원을 위해 템플스테이 사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 정광고 룸비니공연단
논산 훈련소서 훈련병 위문

광주 불교종립 정광고등학교 룸비니 공연단(지도법사 이동배)은 3월 19일 논산 훈련소 법당에서 위문공연을 펼쳤다.

훈련병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연에는 정광고 파라미타 학생회 출신 밴드(HYDREN), 3인조 그룹, 댄싱 팀(샤인)이 출연해 춤과 노래로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금해-제산-만암-서옹' 율맥 잇는다

고불총림 백양사, 4월 7일 청류암에 율원 개원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가 율원을 개원하고 명실상부한 총림으로 거듭난다.

백양사는 오는 4월 7일 산내 청류암에서 율원 개원식을 봉행한다.

이로써 백양사는 총림이 갖춰야할 요건인 선원, 강원, 염불원과 율원을 완비한 총림으로 위상을 높이게 됐다.

고불총림 율원은 율주 혜권(前 백양사 강주), 교수사 진우 스님(용흥사 주지)과 선발된 학인들이 금해(錦海)-제산(霽山)-만암(曼庵)-서옹(西翁) 스님으로 이어지는 고불율맥 정신에 따라 정진에 임하게 된다.

고불총림 율원이 개설되는 청류암은 1910년 만암스님이 '광성의숙'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던 불교 교육의 산실이다.

한편 백양사는 3월 31일까지 강원을 졸업한 비구를 대상으로 율원생 약간명을 모집한다. (061)392-7502

이준엽 기자

담양 호국사 칠성각 상량식

담양 호국사(주지 본묵)는 3월 21일 칠성각 및 요사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지 본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사는 담양 시내에 자리한 도심포교당으로 중창불사와 함께 지역포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국사 요사채는 전면3칸 맞배지붕으로 중창불사를 마치게 되면 도심 속에서 전통사찰의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범일규

지하철 풍경소리 광주 · 전라 회장

오는 4월로 개통 3년을 맞는 광주지하철. 지하철에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이가 있다. 지하철 풍경소리 광주·전라 범일규 회장(스키 캠프 '명륜' 대표).

그는 매달 한번씩 1호선 13개 역사에 비치된 포교용 포스터를 교체한다. 포스터가 범 회장의 분신이 되어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 회장의 손길이 닿는 풍경소리 포스터는 지하철 역사에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다. 익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기차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과 깊은 산사에서도 그의 정성이 담긴 포스터가 먼저 참배객을 맞이한다.

개인 사업에 바쁜 범회장이지만 일에 있어서의 1순위는 단연 풍경소리이다. 아무리 바빠도 포스터를 찾는 소한 일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불생불멸'을 염불하듯 외웠다.

희유하게도 서서히 가슴이 뚫리는 듯 했고, 사업도 술술 풀려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불생불멸'이란 짧은 단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했을지 아찔하다.

2년 전, 광주 지하철 역 명칭변경으로 불교계가 들썩였다. '증심사 입구'라는 역 명칭에 타종교계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결국 시 의회에서 10:9로 아슬아슬하게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 범 회장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활동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짐했다.

지역 불교계 행사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했다. 사찰이나 신행단체를 불문하고 불교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궂은일을 자청하고 묵묵히 해내고 있

매달 지하철 역사·기차역 포교 포스터 교체
불교행사 열리는 곳 어디든 찾아가 궂은 일 앞장

이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선다. 그의 차에는 포교용 포스터와 엽서, 포스터 게시대 등의 장비가 항상 비치되어 있다.

풍경소리의 포스터는 굳이 불교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때로는 따뜻한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세파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포스터 앞에 멈춰서서 자기 내면을 되돌아 보곤 한다.

'남도 좋고 나도 좋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겠냐'는 것이 범 회장의 행복론이다.

"살다보면 '한마디의 말(言)'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도 하는데 꼭 성인의 말씀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한마디에서 더 큰 감명을 받곤 합니다"

범 회장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몸과 마음이 부풀대로 부푼 풍선이 되었다. 손만 대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어느 법회에서였다.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불생불멸(不生不滅)'이 가슴을 쳤다. 풀어야할 문제는 본래 없는 것이 아니던가. 사다. 지난해, 넉 달에 걸쳐 진행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서는 강사스님들의 의전을 맡아 한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흔히 불교 만나기는 눈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나무구멍으로 하늘 보기만큼(盲龜遇木)이나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무가 많으면 좀 더 쉽듯이 풍경소리 포스터가 곳곳에 있다면 불교를 쉽게 접하지 않을까요?"

범 회장의 원력은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풍경소리 포스터가 비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법장큰스님께...
큰스님이 떠나신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큰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리워 집니다.
큰스님이 너무 그리워서 어제는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큰 스님의 훈적 한 가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
한참을 조계사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큰스님이 계시지 않는 조계사 마당이 왜 그리 넓게 느껴지던지 ...
허망한 바람만 맴돌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슴에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만 한 켜 더 쌓였습니다....

-추모홈페이지에 수록된 선명섬보살님 글-

인곡당 법장대종사 자료집준비위원회에서는 스님의 1주기를 맞아 큰스님과 관계된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법장스님 관련 자료수집에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스님의 자료- 사진, 법문테잎, 동영상 자료등
2. 스님과의 사연 - 생전 스님과 인연에 관한 사연, 에피소드 등
3. 열반하신 스님께 전하고 싶은 편지글 등

보내주신 자료, 사연 등은 법장큰스님을 우리 모두가 기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록물이 되도록 자료집준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한 자료는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인곡당 법장대종사 자료집준비위원회

자료보내실곳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덕숭총림 수덕사 tel : (041)337-6627, 6565
서울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리온 1012호 (우110-858)
tel : (02)723-4336 e-mail : imlabor@hanmail.net

제8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8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① 건당(建幢) ② 재가·출가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 의 미 ◇ 역사적 의미, 전개 ◇ 지역적 전개 양상 ◇ 현재적 의미와 현상 ◇ 미래지향적 모습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형일정** : • 접 수 마 감 - 2006년 4월 28일(금요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5월 30일 예정
• 당선논문 발표회 - 2006년 11월 24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 편당 20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sanghun515@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美 해병부대서 평화기원법회

관음종 주최, 미국인들 영산대재 의식에 찬사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오션사이드 비치 야외 음악당에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주최로 3월 9일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가 열렸다. 미국 군부대에서는 처음 열린 법회라 미 해병대사령관 콜로넬 존 컬맨과 훈련소장 J. M. 팩스톤, LA와 샌디에이고의 미주 한인 불자 등 5백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음악당 무대 중앙에 대형 궤불이 설치되고 좌우에 대형 번 10개, 무대 좌우로 작은 번 40여개가 설치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천도 법회는 관음종 인봉 스님 등 10여 스님들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선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동국대 최윤희 교수의 관음무, UCLA 김동석 교수가 이끄는 국악단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졌다.

한국불교의 영산대재 의식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객석에서 "원더풀(Wonderful)"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며 눈과 귀를 무대로 고정시켰다. 법회가 끝나자 찰스 버긴 이사장은 "한국 스님들의 엄숙하고 숭고한 이번 법회 의식을 통해 전몰 장병들이 전쟁없는 세상서 편히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3월 9일 미국 샌디에이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서 최윤섭 관음종 신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음사

행사를 주관한 홍파 스님은 "내년 4월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정식 사업 계획에 상정해 9.11 테러가 일어난 뉴욕의 제로 그라운드에서 대규모 천도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파 스님은 행사가 끝난 뒤 찰스 버긴 이사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에게 써달라며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선암사에 백암 스님 비 건립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총무원장 운산 · 선암사 주지 금용)가 3월 21일 선암사 무설전에서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암사 부도전에 前 종정 백암 스님 비를 건립키로 했으며, 청련암 사지(寺址)에 암자를 세우기로 했다.

또 前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을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전통자생차체험관 관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이외에도 태고총림 선암사 활성화를 위해 염불원을 개설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염불원장에는 설운 스님(경기북부종무원장)을 운영위에서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키로 했다.

또 전통강원은 강원의 청규와 직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강원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종단발전 간부워크숍

"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행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진각종은 포교, 문화, 교육 등 종단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3월 17~18일 양일간 경기도 포천 한화콘도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주 5일제 정착과 불교계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단 교역자들과 종무원 및 산하단체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재정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가칭)포교연구실 개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형성, 교육과 수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스승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경남중부교구 현판식



한국불교 미륵종은 3월 19일 부산시 녹산동 구민정사(주지 혜문)에서 미륵종경남중부교구(원장 혜문 · 사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엔 원로원장 연봉 스님, 총무원장 송정 스님, 종회의장 지은 스님 및 전국 각 교구원장과 경남중부교구 소속 스님 등이 참석하여 교구의 발전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경남중부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많은 종도 스님들이 주석하는 지역인 만큼 교구 발전과 화합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영민 경남 서부지사장

삼론종 만등불사법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관)은 3월 19일 충북 제천 월악불교문화원에서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국운융창과 경제회복기원 만등불사 및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석봉, 부종정 혜공, 총무원장 혜관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석봉 스님은 "보살은 부처님에게 등공양을 해 천안을 얻었다"며 "등공양과 방생을 통해 국운융창을 발원하자"고 법문했다. 김주일 기자



불입종 원로의원 11명 추대

대한불교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3월 18일 제천 총무원 직할 송화사에서 본말사 주지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의원 스님 11명을 새롭게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조 종정 스님은 "종단의 위계질서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원로 스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에 진력하는 풍토를 이뤄 나가기 위해 원로 의원 스님을 새롭게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대된 원로 의원은 우성 혜경 혜관 묘성 정관 면철 성해 원상 법철 동암 인전 스님 등이다. 김주일 기자



"찬불가 법회 활기 넘쳐요"

interview 찬불가 노래방기기 군법당에 기증한 부불 스님

"법당에 앰프가 고장나 일요법회 때마다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회를 볼때 반주용으로 법회의식곡을 틀었는데 장병들이 너무 좋아해 법회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3월 19일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제3탄약고 호국 창수사에 기증한 천안 천불사 주지 부불 스님(사진)은 앰프, 마이크, 노래방 반주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군법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말한다. 많은 군법당에 피아노가 있지만 반주 할 사람이 없고 그나마 있다고 해도 관리가 안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군법당에 피아노가 있지만 활용을 못해 법회 때마다 반주 없이 의식곡을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창수사의 앰프시설이 고장나 수리하려고 했는데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부불 스님은 또 찬불가 뿐만 아니라 일반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군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회 때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활용해 찬불가 법회 또는 가요 법회 등 법회를 특화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회시간 전에 기다리는 동안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활용해 노래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주제로 법회를 진행해도 장병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훈 교육을 법당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한다면 장병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창수사 지도법사로 매월 한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불 스님은 이번 찬불가 노래방 기기 기증에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각원사 배원 스님과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충정지부 회원들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포교사단 대전충청지부 회원들은 그동안 부불 스님을 도와 창수사 법회를 주관해 왔다.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군법당에 많이 보급돼 군장병들이 활기찬 군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불가 대중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돼 군법당 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에도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부불 스님은 전국전문직자원봉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심장병어린이돕기 삼운회 자문위원, 충남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군 · 교도소 및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훈련소에서 온 편지' 3000권 논산훈련소 법당에 배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기증된 불서 <훈련소에서 온 편지>(저자 한경선 · 박병준, 조계종출판사 간) 3천권이 육군 논산훈련소에 배포됐다.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지난 3월 19일 3500여명이 동참한 일요법회에서 <훈련소에서 온 편지>를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부대별로 10권씩 배치토록 했으며 입소대대 법당에 500권을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호국 연무사 박동진 법사는 법문을 통해 "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고 활기차게 군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배포 취지를 밝혔다.

김두식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월정사 전나무 숲을 걸으며 '마음'을 찾는다.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디더라도 지금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가다보면…

월정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첫 회 현장

한암 스님 '승가5칙' 수행법 배우고자 열기 가득
강의 · 포행 · 철야정진…3보1배로 적멸보궁 참배


서대 염불암에 오른 후 한 불자가 좌선을 하고 있다.

문은 열리고

3월17일 오후, 오대산 월정사의 저녁예불은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황토색 수련복을 입은 30여명의 불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법당을 꽉 메웠다.

4월24일까지 계속되는 제2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이 열리는 첫날, 월정사의 모습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하다. 수련복을 입은 사람들은 3일간의 수행학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불자들이다. 단순히 법문을 듣자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귀만 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열어보자고 먼 길을 달려 온 것이다.

수행학림 입제식에 이어 학림의 첫 문을 여는 월정사 정념 스님의 강의가 시작됐다. 수련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귀를 쫑긋 세운다. 수련생 뒤쪽으로는 일반 불자들이 대법륜전을 꽉 메웠다.

서울서 온 양혜영 보살(67)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다. 사찰에서 열리는 수련대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터였다. 양 보살과 함께 온 우리는 선우 이수복(62) 이사가 이따금씩 양 보살에게 미소를 보낸다. '뭐든지 다 배우고 싶다'는 발심을 양 보살은 다시 챙기기 시작한다.

월정사 단기출가 1기생인 박승민(47) 거사는 한암 스님에 대해 배우고 싶어 이번 수행학림에 참가했다. 이론 보다는 행(行)을 중시해 왔던 터라 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에 입각한 한암 스님의 수행법 '승가5칙(僧家五則)'을 그대로 적용한 이번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예불과 아침공양을 마친 수련생들은 대빗자루를 들고 대법륜전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이수복 보살을 눈여겨보면서 따라하지만 양혜영 보살의 비질은 어딘지 어색하다.

곧이어 전나무 숲길을 걷는 경행시간. 삼삼오오 짝을 지은 수련생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전나무 숲길을 걷는다.

인천에서 온 이영식(55) 거사는 여전히 혼자다. 불교에 입문한 지 3년 남짓 됐지만 인터넷과 각종 불교서적을 통해 웬만큼 불교를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느낌이 오질 않는다. 불교를 통해 인생의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

강원도의 3월은 아직 겨울이다. 전나무 숲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에는 얼음이 반쯤 남아 있다. 서대 염불암으로 오르는 산길 역시 겨울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길이 수련생들을 머뭇거리게 했다.

"올라갈 수 있다" "무리다" 하는 논란도 잠시, 수련생들은 서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10여 분 만에 두 명이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도대체 이들의 발길을 이 험한 산길로 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서울 봉은사 신도인 박경자(54) 보살은 수행학림에 참가할 때부터 생각한 것이 있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 보자'고. 월정사 단기출가 5기생인 고성미(25)씨는 단기출가 후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박했다. 박승민 거사 역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마음은 어디 있으며, 생사는 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는 삶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서대에 오르자마자 박경자 보살이 염불암 앞 먼 산을 바라보며 가부좌를 튼다. 아마도 염불암에 온 것은 그만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제 내려가면 평생 다시 오기 힘들지도 모를 험한 길을 수련생들은 자청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염불암 앞에서 간단하게 예불을 올렸다. 염불암에 올랐던 기억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꺼내 보는 거울이 돼서.

서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향한 남대 지장암에서도 수련생들의 '마음' 찾기는 계속됐다. 좌선에 이은 108배. 안양에서 온 구도석(69) 거사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힌다. 인천에서 온 김승빈(24)씨도 입고 있던 두툼한 외투를 벗는다. 수련생들 가운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 45년이라는 세월의 차이.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오직 지금,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죠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병준 교수가 뒤늦게 비로전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수련생들이 월정사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상원사로 이동, 저녁예불 후 철야정진에 들어가려고 할 즈음이다. 학림 첫날 저녁 강의를 듣고 난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이날 아침 해외로 출국하는 노모를 배웅해 드리고 다시 달려온 길이다. 매주 월정사에 온 지도 벌써 13주째다. 경주에서 월정사까지 그 먼 길을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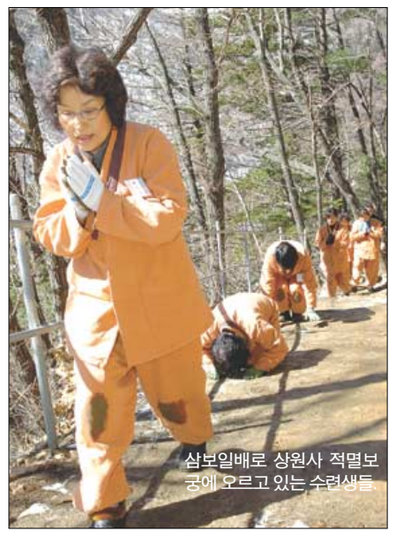
다음날 오전, 철야정진을 마친 수련생들이 중대 사자암에서 삼보일배로 적멸보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안 교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서요"라며 먼 길을 오는 이유를 짧게 말했던 안 교수는 철야정진이 꽤 흡족했던 모양이다.

2박3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쉴 틈 없이 진행된 두 차례의 강의와 108배, 철야정진, 삼보일배….

"처음에는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겠더군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수련생들 모두 이영식 거사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삼보일배는 그렇게 계속됐다.

오대산 월정사/글=한명우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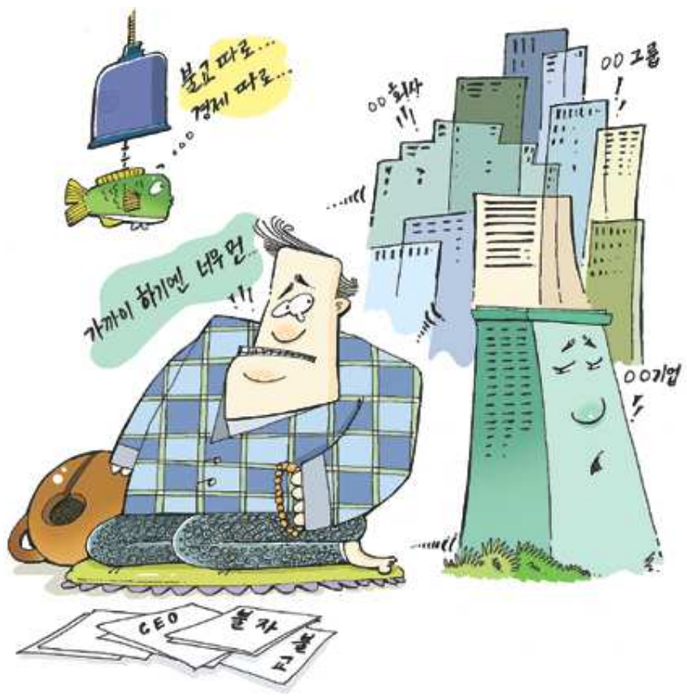

삼보일배로 상원사 적멸보궁에 오르고 있는 수련생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와 기업현장 연결고리 "0"

불자 CEO는 있어도 불교 기업은 없다



불교기업 취업 기회 타종교의 1/3
참여 기회 적어 불교발전 걸림돌
불자CEO들의 역할 부족도 한 몫

채용정보에서 '소외'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 취업을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서핑하다 유수의 한 사이트에서 '기독교기업 채용정보'와 '교회/선교 채용정보' 카테고리를 발견했다. 그러나 불교기업 채용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불교기업에는 등록된 회사가 너무 적어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불교기업은 개신교와 가톨릭기업 150여곳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여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직원수 10인 이내의 소규모회사가 대부분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655개 주권상장법인 임원 가운데 종교를 믿고 있는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인 종교현황에서 불자 임원은 356명(32.4%)이었다. 개신교 465명(42.3%), 가톨릭 278명(25.3%)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교와 기업 현장의 연결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불자경영인으로 분류되는 356명 가운데 불교를 기업경영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는 거의 없다. 불자CEO는 있어도 불교기업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불교인재 활용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불교인재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가 적고, 이들을 직접적인 불교발전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분야에서 불교는 전혀 다른 세계의 철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경쟁력은 핵심인재의 확보에 달려 있는데, 불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인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인재를 키우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사람기르기 토대 미비

이웃나라 일본의 불교와 경제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환경을 지녔다. 일본의 불자CEO들은 보시와 출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불교의 사회 ·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놓았다.

전자부품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교세라그룹의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이나 세계적인 화장품 · 생활용품 회사 가오를 일군 마루다 회장은 좋은 본보기다. 독실한 불자였던 두 회장은 불교와 경영철학을 실물경제에 적용해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꼽혔고, 은퇴 후에는 출가해 일본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불교를 이념으로 한 대표적인 기업이나 존경받는 불자CEO를 찾아보기 힘들다. 반(反)기업정서가 존재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불교적 경영철학을 지닌 불자CEO의 역할이 부족하고 이들을 육성하지 못한 불교계의 실책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적 경제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한 현실은 불교인재 육성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성공한 불자CEO를 발굴 · 육성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묶어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와 경제 또는 불교와 사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경제전문가 이언오 박사(前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불교와 경제가 괴리현상을 띠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교의 사회 ·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분야에서 흩어져 있는 불교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재육성에 힘을 쏟는다면 미래불교의 희망은 밝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띠별 핸드폰 줄

'띠별 핸드폰 줄'은 앙증맞은 유리병 속에 수련 씨앗과 14k가 도금된 12지가 들어있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수련 씨앗은 풍요와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를 의미하며, 몸에 지니고 다니면 헤아릴 수 없는 복과 행운을 준다고 합니다. 띠별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14k 도금 12지는 목걸이 펜던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유리병 30mm를 포함해 90mm.

가격: 5천원

개신교에서는

'기독교 기업 알리기' 또다른 전도사

남성패션 지크(SIEG), 여성패션 베스띠벨리(bestibelli) · 씨(si) · 비키(VIKI), 캐주얼패션 쿨하스(KOOLHAAS).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인 이 의류를 제작하는 기업은 현물경제에서 기독교기업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주)신원이다.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렉싱턴호텔, 프랜차이즈 피자몰, 여성패션 데코(DECO), 로엠(Roem), 캐주얼패션 브렌따노, 헌트, 푸마(PUMA)…, 기독교 인재 등용과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기독교 선교사업을 벌이는 이랜드그룹의 브랜드들이다.

(주)신원과 이랜드그룹은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독교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기독교계내 공헌도는 인재육성과 기회제공이 핵심을 이룬다. 기독교사학 등에서 배출된 우수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과 직업을 결합시킨 기업내 기독교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찬들, 한국도자기, 로제화장품, 소망화장품 등도 기독교신자를 주축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분다의 경계학 (5)

전 재산 보시만이 바른 삶?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바로 코 앞에 지방 선거가 놓여있고, 대통령선거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대통령 선거가 비록 내년 12월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물밑 장정에 이미 돌입했다는 면에서 선거의 계절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의 일이 떠오른다. 모 방송사에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떤 질문자가 재력이 있는 후보에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 질문자는 "당신이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까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는 기꺼이 사회에 환원 또는 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이 질문에 그 후보자는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채 즉답을 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불교에서 보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보살이 닦아야 할 육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타인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시다.

하물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보시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불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보시해야 하는 것인가?

<아함경>에 재가불자의 합리적 재산 운용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재산의 1/4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1/4은 농사에 투입하며, 1/4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나머지 1/4은 경작자나 상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도록 하라고 설하고 계신다. 재산의 일부를 농사에 투입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재투자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 보시와 관련된 부분일까. 부처님은 있는 재산을 모두 보시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보시를 하라는 말씀조차도 없지 않은가.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대로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보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경제는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개인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함경, 재산증식 위해 재투자할 것 강조
경제활동 활발할 때 모든 사람들도 행복
신앙심 측정 도구로 보시 강요해선 안돼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 한 개씩 알을 낳는 거위는 3년이면 천여 개의 알을 낳는다.

배를 가르면 기껏 미성숙된 알 한 개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이 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뚜렷한 명분과 이유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하고 있다. 재산을 부둥켜안고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개인의 재산 처분과 그 사람의 도덕성을 일차원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앙심과 충성심 또는 도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인의 재산 처분과 보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가올 선거에서는 포퓰리즘적 의도와 시각으로 후보자들의 재산을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방편비법전수

침술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사랑골 절 금용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011-261-4405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륙	시			
식	49재	재	식	물	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1개월 전문가 완성
◐ 부자와 재벌은 겨울(水)태생이 많다
TEL : 02)2231-8894
H.P : 010-9959-8894
미래음양회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헤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아름다운 섬 통영 사량도 상도 불모산 옥녀봉 탄금사
관음기도 영험도량 불사중
동참 소중한 인연 발원
017-229-865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빠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 문의 (02)2631-2205,130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02)720-568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비의 학문 인사정단의 왕 **육 임**
기초에서 통변까지 특별비법 전수 (기상론) **命 理**
철학박사 위 덕
010-2323-1499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 (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부채,병풍
▶각종 보시용 선물용 봉안식용
▶다포에 그림 그려 드립니다
▶전화주문(작업후 등기속달)
안동하회 마을입구
연꽃화가 018-588-5698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보살구합니다
(PC가능자, 법당에서 일해본 경험자)
보수 : 100-150만원
031)559-089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합니다
02)917-3363(서울정릉)

법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불심돈독하고 PC가능한 45세 이하 女경리보살 구합니다
▷숙식가능. 월보시 100만원
경북 경주 왕릉사원
017-531-7770

비구부전스님
불심돈독하고 pc(엑셀)가능한 50세이하 女종무원 구합니다
061)352-8097
019-320-9926

가난한 절이나 스님없는 절에 주지를 원합니다
사주와 주역을 통달 60세 비구승
무보시로 운영해드립니다
010-4812-7075

사찰에서 운전 기사나 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455

산세좋은 청정도량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요
054)433-6315
010-4520-6787

수행할 수 있는 토굴이나 한적한 암자를 관리하면서 수행 정진하길 원함
▷충청 경기 강원 지역
48세 비구
010-4561-5675

주지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스님 모두 가능합니다
011-589-2409

토굴에서 수행할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해주실 공양주 및 처사님을 구합니다
011-9803-6301

서울 조용한 암자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기도하며 남은 여생 마음편히 암자에 사실분
011-306-3504

공양주구함
(40~50대)
소백산 용문사
054)655-1011
011-336-4665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053)632-4844
053)641-4844

키르키즈스탄 나라에서 명상의 집을 함께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40대후반 혼자된 보살님 이나비구니스님으로 정법수행의 경험이 有한분
001-996-312-290394

사찰을 운영하실 수 있는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010-3138-4897

부전스님 모십니다
▷영주
011-9342-9850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 60%드림
조계종스님
051)621-0530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수원근교
031)352-7346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보시와 불공방법 중요함
①우리말 천수경 ②분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 (성월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맹방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고,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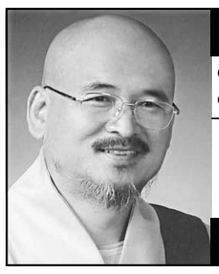
병고,불치병,신병,정신병 등 무료로 기치료 해드림
중생들이여! 약사여래의 수기가피력을 받아 자성광명을 밝히소서!
신병,정신병,비만,중풍,만성두통,불면,요통,당뇨,불임,불감증,견통,요실금,해소,천식,아토피, 간질,혈압,신장,관절통,각종 원인불명증세 등 특히 영적문제,영가작용,업장문제 등 어떤 문제도 대부분 즉각효과
◆ 외국에 계신분도 원격치료해 드립니다
◆ 주말(토,일)생활기공무료지도(나이무관)
◆ 정신수련(마음수행)참가자 모집
▷비전法氣침술법,신비氣치유법전수
▷수기및기활용술 - 단기간전수, 즉시 활용가능
삼각산마하부다사 011-222-8485, 02)994-3376

수강회원모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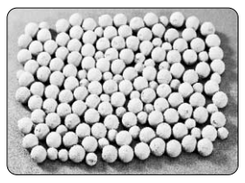
프로폴리스 (세계적인 명물)
프로폴리스는 모든 인체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승이 직접 벌에서 채취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뛰어난 항균 항산화를 작용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건강기능 양봉원 성구 합장 010-2779-2237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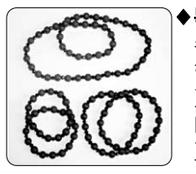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익건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실버타운 소원성취 기도처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
저렴한 보시금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십니다
주지 법사 010-9367-598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목조) ● 법당 : 25평 ● 법당 : 18평(목조)
● 요사 : 25평 ● 요사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760평 ● 부지 : 81평 ● 부지 : 195평
● 가액 : 6억 ● 가액 : 2억5천 ● 가액 : 4억7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수유동산속사찰건60평-월80
시설5천+건물40평더있음
2.경기광주18000평-36억
복지시설로허가납
3.남한산성내사찰부지
1800평-7억,계곡접
●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종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55)883-8846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방10개)
● 저수지 부근, 계곡 좋음
● 가액: 3억5천5백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듸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제주도안내
● 사찰 및 사찰터
농가주택, 과수원,
전원주택
● 시내근교땅
064)711-1447
011-9773-441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 위치: 양평 ● 위치: 전북
● 부지: 약 2천평 ● 부지: 약 700평
● 법당: 약 50평 ● 법당: 25평
● 요사: 3동(120평) ● 요사: 60평
● 가액: 13억 ● 가액: 1억7천(전통사찰임)
● 위치: 대구 ● 위치: 영천
● 부지: 약5천5백평 ● 부지: 632평
● 법당: 35평 ● 황토방: 15평
● 요사: 100평 ● 가액: 6천5백
● 가액: 9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내 소재
● 부지 : 52,000평
● 가액 : 5억
● 내용 : 제1월광폭포, 제2월광폭포가
52,000평 안에 소재함
연락처 010-7559-2550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영천 I.C에서20분거리
● 대지 350평
임야 20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2억원(절충가)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 찰 터 안 내
● 충남 금산군 신정리(임) ● 충북 옥천군 장수리(임,전,답)
● 42,000평(관리, 농림지역) ● 72,029평(관리 농림지역)
충남 최고의 청정지역 ● 부지내 석회동굴 있음(300m)
● 저수지 접해있음, 자연경관 부지 정면에 보청천 흐름
최고, 부지까지 진입로 확보 천해의 자연경관
사찰부지, 체험 휴양관광지 부지까지 진입로 확보(포장완료)
연수원, 최고적지 ● 사찰부지, 연수원, 휴양관광지
● 가액 : 평당 25,000원 최고적지. 대전에서 50분거리
● 가액 : 평당 3만
042)525-0035 / 016-449-140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10-4215-911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
(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
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 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 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찾습니다
서울근교
산중사찰을
전세 놓으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011-436-0097

사찰별장용도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북면
상천리 소라마을
● 평수: 555평(대지 303평)
● 방5, 거실만 20평,
창고 4평, 욕조, 화장실
● 가액: 3억2천만원(절충가능)
※별장, 사찰로 사용가능
철구조로지은집,연못있음
055)299-355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대지 : 105평
● 요사채45평,2층법당28평
현대식 2층건물
● 실내욕실2, 실외화장실2,
창고,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절충가능)
※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011-785-5670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최고의 사찰 부지
● 山水 최고의 명당 대청호변
● 총4400坪 중 대지 905坪
土木工事 완료
● 가액 : 10억원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549-2
연락처 010-8403-9205

건축허가 득한 포천 토지 422평
● 위치: 포천 직동리
● 광릉수목원 숲과 붙어있음.
● 가액: 2억 2천만원
● 용도: 현재 조립식건물 있고,
건축허가 받았음.
암자, 토굴, 전원주택.
● 소유주와 직접거래
017-328-2182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안내
● 위치: 성북구 장위동
● 삼존불 108부처,영단 인등
방2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888-0130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250평, 건평75평
구조 : 법당,요사,창고
ㄱ자 형, 현대식 건물
● 산좌 수려,기도도량 최적지
● 용도 : 명상센터,단식원
아파트개발 예정지 근처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 가액 : 2억 2천만원
※女행자 모집합니다
011-606-1976

암 자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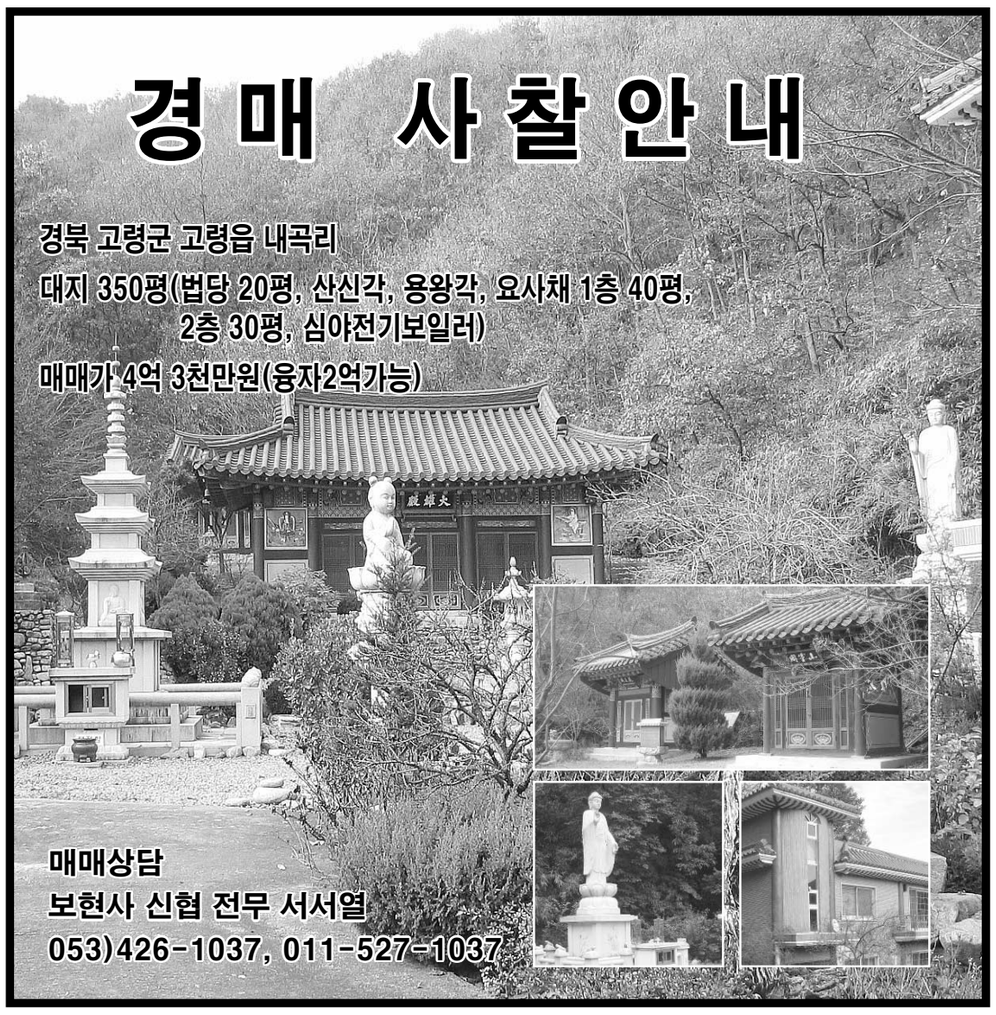
사찰안내
● 위치 : 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 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5천만원
016-959-8889
055)854-3408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옛집(고가)안내
● 위치 : 포항 청송 경계,
국도인접
● 대지 370평, 옛집, 방3개,
주방, 창고
● 마당앞 냇물 흐름
● 가액 : 7,500만원
010-2880-9856
010-6462-0343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매매 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대구」보현사신용협동조합
문의전화 053)426-1037
전문상담 : 서서열 전무
011-527-103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 법당 : 3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443-0277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 전 269평 건평 20평
심야전기
● 가액: 5300만원
033)374-0355
011-9000-22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암자안내
● 위치: 전남 강진군 도암면
● 대지: 230평
● 건평: 26평(임법당)
방4, 주방, 화장실2
● 시설: 석가모니불, 후불탱화
● 가액: 5천만원
집기일체 포함
전세가능 3천만원
● 이주 관계 급 양도
061)433-3892
010-5333-3892

보원사지 관광자원 활용 싸고

市-불교계 마찰


창건에서 폐허가 되기까지 모든것이 신비에 둘러싸인 서산 보원사지가 발굴된다.

서산시, 사지주변 개인토지 매입 추진중

조계종, 사적지내 보원사 재건 "땅 안판다"

신라말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가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종합 정비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번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3월 21일 사적 제 316호 충남 서산 보원사지에서 개토식을 갖고 200일간의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4억원이 투여되는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와 탑을 중심으로 한 사역중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되며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철저한 현장 기록을 거친후 임시전시공간을 마련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보원사지는 그동안 창건에서부터 폐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만 남아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창건 연대 및 중심 사역의 범위와 구조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발굴조사에 이어 서산시는 2016년까지 총 136억원을 들여 보원사지 전체 발굴과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인근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및 개심사(대웅전 보물 제143호),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사적지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조계종이 사적지 내 615㎡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아 보원사(주지 정범)를 재건하고 제7교구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시작됐다. 보원사는 사지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서산시의 토지 매입 통보에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원사 주지 정범 스님은 "보원사지 발굴조사는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왜 강경책을 쓰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서산시가 불교계와의 상의 없이 발굴조사를 시작한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원사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재정확충을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도 지난해 서산시에 공문을 보내 "백제시대 최대 사찰터로 추정되는 보원사지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선사들의 얼을 등한시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문화관광과 박복수 계장은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지 주변 개인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보원사가 토지 매각을 거부할시 강제 수용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사지 발굴 및 정비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사지가 관광지로 개발되기 보다는 신앙의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정비 계획을 세울 때도 불교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그동안 불교유적지들이 지방 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관광지로만 개발되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불교 유적지인 만큼 사찰로의 복원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발굴 및 정비 계획을 세울때도 종단과 협의를 통해 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서산 보원사지는 고려시대 대 가람의 사격을 갖추었으나 현재 보물 제102호로 지정된 석조, 제103호 당간지주, 제104호 5층석탑,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 제106호 탑비 등 석조문화재만이 남아있다.

김두식 · 노병철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소유권 · 공고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이타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윤원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겠다고 서원했다"며 "국회 불자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불교계의 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과 해당 사찰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6조는 매장 문화재의 소유권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이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국가 귀속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간의 공고기간동안 해당 사찰이 출토문화재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증명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안건심사 후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불교학 결집대회 논문 170여편 발표

대회일정 확정 … 해외 불교학자만 80여명 참가 예정

4월 22~23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에서는 17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풍성한 불교학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불교학자가 80여명이나 발표자로 참가해 세계 불교학의 흐름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위원장 이중표)는 3월 1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대회장을 맡은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조직위원장 이중표 전남대 교수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 김성철 동국대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일정 및 분과 확정 △개막전 행사 △참가자들 교통편 문제 △자원봉사단 구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분과는 지역불교, 응용불교, 불교역사 분야 등 8개의 분과와 특수 분과 2개 등 10여개로, 발표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으로 정해졌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현재 발표 신청자는 170여명이며, 이미 8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또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등이 생명조작 · 위빠사나와 정신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많아 기대된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5>

이완 시간

한 스님이 제자와 함께 생선가게를 지나가게 됐다. 스님은 생선이 맛이 있겠다고 말했다. 절로 돌아온 후, 실망한 제자가 스승에게 도를 닦았다는 스님이 어떻게 생선을 보고 마음을 뺏길 수 있는가하고 물었다. 스님은 '나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가'라며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 초기 상응부 경전에는 부처님은 두 번 화살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화에 다시 집착해서 남에게 화를 옮긴다든가, 혹은 화를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이 두 이야기에서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의 편린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큰 괴로움은 첫 화살 자체보다, 이 화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착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웃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실제로는 그 말 자체보다도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과학과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완 시간(relaxation time)'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힘이 외부에서 가해 졌을 때, 어떤 물체가 변형을 일으킨 후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당긴 후, 놓으면 변형을 일으킨 용수철이 출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이완 시간은 용수철의 물성에 의해 좌우된다. 용수철이 단단할수록 이완시간이 짧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 실제로는 삼라만상에서 항상 일어난다. 이완시간은 물질의 성질을 추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형광등을 끄고 나서 한동안 형광등이 약한 빛을 발하는 것 또한 형광등 표면에 칠해진 형광물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완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형광등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예로, 반도체 회로를 들 수 있다. 반도체 회로에 전압을 가하면 트랜지스터의 전자가 힘을 받아서 속도를 내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서 전류로 이용한다. 전압을 껐을 때, 다시 속도가 0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다시 다른 전압을 신호로 가해 줄 수 있으므로 빠른 회로가 된다.

용수철이 단단할수록 이완시간 짧아

깨달은 자, 외부자극에 흔들리는 시간 "0"

우리의 감정 또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신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진다. 같은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반응하는 방법을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인 DNA 서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후천적인 노력이나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한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이러한 감정이 지속하는 시간(이완시간)이 신경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

깨달은 자의 이완시간은 어떨까 상상해본다. 매 순간 깨어있는 그들의 삶에서 이완시간은 '0'이라 해야할까. 아니, 이완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 깨달은 자일지도 모르겠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시
- 내용 : 물이 있고 개울옆에 절 있음
- 법당 완벽
- 전국적으로 신도가 방문함
- 가액 : 3천 8백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829-7738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서울대 전철역 2분거리
- 2층 약 30평, 탱화 2점, 삼존불, 방2개, 주방 베란다
- 보증금 2,000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755-5266
02)872-338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 500만원

011-509-1525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주변 정남향)
- 대지: 88평(국유지 150평 사용가)
- 건물: 50평(방6, 부엌, 거실, 사무실), 법당: 10평
- 특징: 심야전기보일러(대형), 기름보일러 2대(예비)
- 가액: 3억2천만원

054)976-0900
017-565-1999

사찰터안내
- 산좋고 물맑은 충남공주시
- 무성산 기슭 임야 8천평내
- 주택2동 38평 25평
- 도량이 깊고 계곡물 흐르면서옹달샘 있음

041)854-0333

녹차밭안내
- 건물 3동
- 녹차공장

(녹차 채취가공가능)

011-838-6568

포교당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2동
- 중앙시장 내 상계역 부근 3층건물중 2층 3층
- 3층 34평 공양간 방 3개 2층 법당 34평
-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스님방, 장담실방
- 가액: 보증금 1천1백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800만원 포교당으로 최적지

010-5710-1732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시 동래 지하철역 바로옆 부산도심지 지하철역 최고조건
- 평수: 20평
- 삼불부처님, 신중탱화, 후불탱화, 영가단, 각단탱화 등
- 방2, 주방, 욕실 시설완벽
- 신심이 돈독한 비구, 비구니스님에게 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가액: 보증금 전세 2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011-488-0316

토굴안내
- 위치 : 홍천군 남면
- 문중땅 200평 1년 도지세 쌀 6말
- 보일러, 방3, 거실, 텃밭, 시설완비
- 일반 가정집으로도 사용가능
- 가액: 1900만원

017-374-4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완주 익산 IC에서 15분거리
- 40년된 사찰
- 법당 21평(목조 단청) 산신각 4평(목조 단청) 요사채 32평 2동, 전 670평
- 가액: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643-7897

사찰안내
- 위치: 화성시 정남면 신의리
- 대지: 398평
- 대웅전 조립식 30평 부가옥 35평
- 가액 : 평당 110만원

010-8704-2247
011-299-446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삼천포간 중간지역
- 부지임야(소나무) 4000평 법당 25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요사채 20평(나무 부엌)
- 가액: 2억2천만원

055)854-852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 산신각 5평 흙벽돌로 완성
- 법당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완공
- 요사채 40평 총 460평중 대지 290평
- 가액: 3억3천만원

011-477-7746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1억

010-4510-0108
011-9126-895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 평수 420평, 일부 종교부지
- 시설: 법당, 산신각, 건물4동에 2동조립식 방5개, 공양간 10평
- 가액: 9천8백만원 공사비 2억2천만원 들어갔음
- 비구니스님 기도처 좋음
- 진주에서 차량으로 15분간 소요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011-9399-7681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북수원 동신아파트 부근
- 평수 : 약 70평. 3층건물 중 3층 신축건물이며 옥상사용가능
- 법당, 스님, 친견실, 스님방, 공양간, 공양방, 샤워실 있음. 시설위치 특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304-0036

※ 포교활동해보니 좋은곳입니다. 최상의 포교원으로 사정상 안내함

일주문



해인사 천도재서 법문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합천 해인사 1029일 천도법회 18번째 49재일을 맞아 4월 3일 오전 9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법문한다.



경산 대종사 조사전 기공식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자제 스님은 4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적조사에서 경산 대종사 조사전 기공식 및 대웅전 보수공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신문 주간에 임명

前 조계종 교육부장 정산 스님은 3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교신문 주간 임명장을 받았다.



'충무로 열린영화 축전' 개최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4월 6일부터 8일까지 명보극장 제2관에서 '충무로 열린영화 축전'을 개최한다.



한국시인협회장 취임

서울대 국문과 오세영 교수는 3월 25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2년 임기의 한국시인협회장에 취임했다.



'사회문화 심리의…' 주제 특강

서울불교대학원대학 황윤식 총장은 4월 6일 오후 5시 자비원에서 '사회문화 심리의 민족간 차이'를 주제로 첫 특강을 한다.



'아름다운 상주' 음반 발표

원로불자가수 송춘희씨는 가수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경북 상주를 소재로 한 새 음반 '아름다운 상주'를 3월 22일 발표했다.



우리는선우 정기법회서 특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형조 교수는 4월 1일 오후 3시 장충동 우리함께 회관 6층에서 열리는 우리는선우 4월 정기법회에서 강의한다. (02)2278-8672~3



군법당 방문 및 사찰순례

대불련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동문회원들과 3월 19일 논산훈련소 내 군법당 호국연무사를 방문하고 논산 관촉사와 개태사 순례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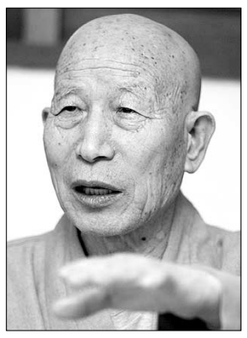


조세현 박사 초청 강연회

조계종 한우리회 이분희 회장은 3월 30일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세현 박사 초청 강연 '함께하는 몸 이야기'를 개최한다.

"불교음악 발전에 기틀… 공연장도 지어야죠"

종로 구기동에 불교음악회관 기공 운문 스님



'큰 법당' '반야심경' '팔정도'. 광덕 스님 만장을 썼던 명필 지환 스님에게 받아 놓은 글들이다. 불교음악회관이 설립되면 걸어둘 현판과 액자 등을 미리 구상하며 운문 스님(운문사 회주 · 사진)은 기대에 들떠 있다.

"불교음악인을 위한 음악회관이 생기게 돼 너무 기쁩니다. 기공식도 당초 예정보다 2년 이상 앞당겨져서 살아 있는 동안 준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기쁘죠."

운문 스님이 삼보불교음악협회에 기증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사찰터에 3월 28일 오후 2시 불교음악회관 기공식이 열렸다.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음악회관을 짓겠다고 선뜻 나설 때까지 청교련, 대각회 등과도 접촉했다"는 스님은 "특히 대각회에는 명의 이전을 했는데도 음악회관을 지으라고 삼보불교음악협회 쪽으로 흔쾌히 양보해줘서 등기는 삼보불교음악협회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며 험난했던(?) 기증 과정을 공개했다.

200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한 불교음악회관은 운문 스님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추진되고 있다. 대지 150평에 건평 150평으로 4층 건물이 될 음악회관에는 역대 불교음악인들의 사진과 역사 기록, 악력 등이 기록될 불교음악자료실과 불교음악인들의 숙소 겸 연습실 등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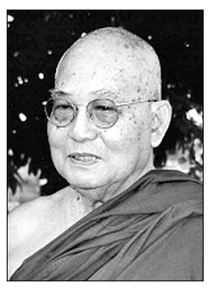
연습실은 50평 정도로 꾸며진다. 1층은 연습실 겸 불교음악인들의 회합장소로 활용되고 2층은 식당 겸 요사채, 3층은 스님 요사채, 4층은 법당이 될 예정이다.

"불교음악회관이 완공돼서 연습장으로 널리 활용되면, 주변 땅들을 매입해 공연장도 짓고 음악 하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만드는 것에 남은 인생 매진해야죠."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 빤디따 스님 명상수행 지도

남양주 봉인사 내달 15일부터



위빠사나 수행의 저명한 지도자인 우 빤디따 스님(사진)이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남양주 봉인사에서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얀마 빤디따라마센터 한국분원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명상수행에서 우 빤디따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하며, 수행문답을 통해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1950년부터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의 대가인 마하시 선사에게 직접 수행지도를 받은 우 빤디따 스님은 상좌부 불교 제6차 결집 때 경전을 교정을 받던 대표적인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자. 스님은 1988년 한국을 방문해 국내에 처음으로 위빠사나 열풍을 일으켰다. 국내에도 번역된 <위빠사나 수행의 길> <위빠사나 수행자의 면담방법> <바로 이번 생애> 등 비롯 다수의 저서가 있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 (02)2235-2841

김철우 기자

제4회 유심상

시 이은봉
시조 오승철
평론 권혁웅


이은봉


오승철


권혁웅

유심 신인상

시 박미산, 권준영
시조 윤경희


박미산


권준영


윤경희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4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를 계간 〈유심〉 봄호를 통해 발표했다. 시 부문에 이은봉 교수(광주대 문예창작과, 불교문예 주간), 시조 부문에 오승철 시인, 평론 부문에 권혁웅 평론가(문예중앙 편집위원) 등이 선정됐다.

이은봉 시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집은 〈길은 당나귀를 타고〉이다. 오승철 시인의 수상작인 시조집 〈사고 싶은 노을〉은 제주도의 지형과 풍속, 민중사와 가족사를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론가 권혁웅씨는 비평집 〈미래파〉에서 2005년 들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적 경향을 '미래파'로 분류, 정교하게 탐색해내 평론 부문 수상자가 됐다.

한편 2006 유심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박미산 · 권준영씨가, 시조 부문에 윤경희씨가 각각 당선됐다. 박미산씨는 1992년 <문학과 의식> 여름호를 통해 수필로 등단했다. '허공을 쓸 듯이'로 당선된 권준영씨는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문학도이다. 시조 부문 당선자 윤경희씨는 2003년 <생각과 느낌> 수필로 등단했다.

강지연 기자

티베트 초페 대사 지관 스님 예방



티베트 망명정부의 동북아시아 대사인 초페 한국대사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달라이 라마의 안부를 전했다. 초페 대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달라이 라마가 한국을 방문해 불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옥천불교사암련 연합신도회 구성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관 · 용암사)는 3월 22일 각 사암 신도회장 2명을 추천해 연합신도회를 구성했다. 연합신도회 회장에는 박효근(용암사)씨, 감사에는 김정식(대림선원) · 서경화(대성사)씨가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암련 소속 스님 13명과 신도회 회원 28명이 참가했다.

산악인 박영석 대장 동판 부조식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대장 동판부조 제막식이 3월 21일 모교인 동국대에서 열렸다. 동판부조에는 2000년 7월 브로드피크(8074m) 정상 등정의 순간이 담겨져 있다. 제막식과 더불어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횡단 원정 발대식도 진행됐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행사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식목일을 앞둔 3월 20일 지역주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주변경관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과 복지사들, 분당구 정자동 7단지 아파트 내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 화단을 가꿨다.

생명나눔본부, 4월의 환우 고유현군 선정

전신 40% 화상 입고 투병

생명나눔실천본부가 4월의 환우로 선정한 고유현(19)군은 2월 3일 식구들이 모두 외출한 텅 빈 집에서 잠을 자다가 전기누전으로 발생한 화재에 휘말렸다. 고군은 이 사고로 인해 전신에 심각한 화염화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다.

고군은 전신에 약 40%의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양팔과 양다리에 입은 3도 화상만 27%를 차지하고 있다. 치료비만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02)734-8050 농협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4. 7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가짜박사와 가짜세상

검찰이 러시아 음대 가짜박사 학위 매매사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필리핀 대학의 학위를 위조한 일당을 적발하고 기소하였다. 이는 물론 사문서위조라는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에서 언급되었지만, 이는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 학문적 자질이 함량 미달임을 드러내는 사안이어서 대학 안팎으로 충격을 주는 일이다.

물론 이런 사기사건이 몇 해 전에도 있었고 심심하면 터지곤 해온 사건인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고리가 질긴 모양이다.

사기범들이야 작심을 하고 저지르는 범죄행위지만, 그런 사기범죄를 있게 만드는 수요자들이 예술을 하고 학문을 추구한다는 소위 지식인층을 자부하는 군상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또 그런 날조된 문건을 가지고 버젓이 교수 행세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위조된 문서와 인간 자질을 여하히 변별하지 못하고 교수로 채용하는 대학당국의 인사시스템도 문제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임을 강변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수행한 만큼 학위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니 이는 너무나도 염치없는 태도다. 또한, 이번사례를 대학 당국이 검증절차가 복잡하고 미비한 바 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호도에 머문다면 이러한 범법적인 사슬고리는 단절되기 어렵다.

물론 예술계통의 교수의 자질과 자격은 이론과 전문적 실기 기량을 겸비해야 하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형식 요건 중심으로 제한하는 인사 원칙이 그런 범법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볼 문제이다.

요즘 대학마다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오로지 계량적으로 처리하는 강박이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활동의 부실 · 날조를 초래하는 한 요인임도 반성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그러나 예술 계통에 복무하고 있는 교수들 대부분이, 특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번 사안으로 해서 도매금으로 이들의 자질과 자격이 터무니없이 모독되는 확대 해석을 금물이다.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옥석을 가리는 대학 자체 내의 자기검증의 노력은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도 외국학위를 검증하는 확인 절차나 조사 · 심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한다.

한편으로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기대해볼 일이다.

사법 처리나 시스템 완비도 서둘 일이지만, 모든 사안은 결국 인간이 문제의 중심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부쳐도 있고 마구니도 있는 법이다. 범죄를 저지르든 사기를 당하든 선행을 베풀고 정직을 행하든,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무늬인 것이다. 완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삶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문득 잘못이 보이기도 하는 바이니, 너나 할 것 없이 마음닦기에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

인간사에서 죄악은 인간의 허욕과 허명에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진면목을 찾을 생각은 아예 없고, 제 분수조차 알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마침내 자기파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질서까지 교란시키기 마련이다.

무언가 하려는 발원과 성취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아서 타인과 사회에 불편을 끼치는 부질없는 기회를 만들지 않음도 더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

청정한 마음은 바로 나 잘 났다는 허망한 자신감과 그것에 사로잡힌 신념 구현의 일보다 나보다 더 잘난 남을 찾아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겸손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주려고 산문을 열기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불과 4년만에 20배가 넘는 내, 외국인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약 50% 성장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참가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또한 높아 이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대표적 종교 문화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타 종교에 비해 포교에 적극성이 부족한 불교로서는 템플스테이야말로 세계에 한국불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써 인연 맺어진 내국인들에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참가자들의 연령이 20~30대 등 젊은 연령층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일반의 높아지는 관심과 단순한 참가 인원 증가만으로 장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 공간이라는 사찰의 특수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마음' 문제에 대한 일시적 관심, 토

산사로 가고 싶은 마음

요휴무 등으로 늘어난 레저 욕구 등이 참가인원의 증가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를 한국의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이미지로 만들려면 종단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49곳에 이르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이미 참선 예불 공양 등 불교적 신앙의례와 다도를 비롯한 전통 문화체험 등 사찰마다의 특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먼저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에는 불교의 진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웰빙'이 '시대어(時代語)'가 되어 있는 요즘,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닌 진정한 웰 빙의 삶이 바로 불교적인 삶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이다.

부침의 속성을 지닌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내 · 외국인들이 불교적 삶의 가치를 터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성 분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성희롱

반성할 줄 알고, 조심하여 활동하면서, 그 행위가 맑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은 더욱 빛난다. 〈법구경〉

뉴스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성추행, 성폭행' 보도. 신문지면과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가 성범죄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지난 2월 27일에는 최의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되고 한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해 자살기도에 이르게 했으며 동료 여교사를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는 구속됐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조차 성희롱의 위험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면서도 말 못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절감한다"는 동아일보 여기자들의 지적처럼, 과연 최 의원이 저지른 성추행이 조그마한 기업의 남성 상사와 여성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최근 한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직장인 1224명(남성 796명, 여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 응답자 중 62.4%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여성 10명 중 6명은 성희롱을 당한다는 통계자료도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행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남성우월주의'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한다. 귀엽다고 한번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재밌자고 한 농담들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다. 평소의 습으로 인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악업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요즈음이다.

■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사형제 폐지 결의문 채택 환영

지난 3월 22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사형제 폐지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붓다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의 사상을 실천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를 결의하고 국회가 관련 법률을 하루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형제도는 자신이 지은 잘못을 스스로 참회하여 새롭게 태어날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다음생인 내생까지 이어져서 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처음부터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주장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마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라고 해서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심(慈心)과 비심(悲心)으로 중생을 측은히 여겨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을 다시 살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앙종회의 결의를 환영하며, 관계 당국에서도 하루 속히 사형제 폐지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양경인(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경인방송 사업자선정 신중해야

옛 경인방송(iTV)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차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독교방송이 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인방송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불교가 못하는 것을 타 종교가 먼저 나서니 배가 아픈 거냐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계가 경인방송의 새 주인으로 된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불자들은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 기독교의 '전파선교권'으로 재구성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전국의 기독교 채널과 불교 채널의 산술적 비교만으로도 불교계가 절대적 열세인데, 국민이 주인인 전파를 특정종교가 독과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

때문에 금번 경인지역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해 불자들은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이 투명한 원칙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을 책임지는 방송위는 단순히 민영방송의 경영논리만 따지지 말고 민방에도 공익의 논리를 앞서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선명(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불자스타들의 기사 반가워

'현대불교' 570호 대중문화면에서 처음으로 연재되기 시작한 '스타와 스님'란이 앞으로도 기다려진다. 특히 첫 회 주인공으로 선정된 추승균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있게 읽었다. 외국인 선수를 막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특히 좋은 실력과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팀 분위기를 이끄는 조직력 등을 보며 항상 감탄했었는데, 이번 기사를 읽고 나니 추 선수의 안정적이고 차분한 플레이 스타일이 어디서 나온 건 지 알 것 같다.

좋아하는 스타와 스님의 관계를 알게 되면 불자들도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스타에게 더 큰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 유명인들 중에는 드러내놓고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는데, 앞으로도 '스타와 스님'을 통해 더 많은 불자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영호(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天一氣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5기 - 4월 13일(목) 오후 2시 - 16일(일) 12시
56기 - 5월 18일(목) 오후 2시 - 21일(일) 12시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행사연등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8Cm(大) /24cm(中) /18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1Box20개입/8cm:1Box16개입/10.5cm:1Box12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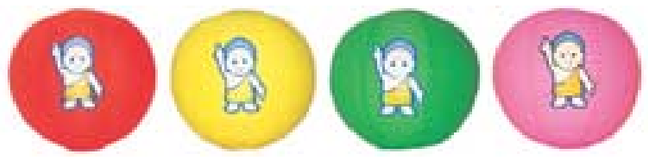
※ 주문제작가능



중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캐릭터 비닐 만월등
봉축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등
색상 : 분홍,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풍경등
색상 : 노랑, 빨강, 녹색, 파랑, 분홍
수량 : 1Box 100개입, 색상별 20개씩 가능
등표(이름표)를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합니다.



연등철사
6cm, 8cm, 10.5cm, 12cm
(50개 1묶음)



연등연잎(일반형)
분홍, 진분홍, 노랑, 주황,
빨강, 녹색, 흰색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연 국 수





• 1개 3,500원 : 3인분(300g)
• 1박스150,000원 : 50개 (150인분)
• 연(蓮)국수에는 전남 무안의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 번 덖고 찌고 비벼서 말려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꽃 화장품





최고급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출시기념 특판보급!!)

• 구성 : 천연 연꽃 미백기능성화장품 蓮 1개 +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 2개종류 (여성용, 남성용)
• 가격 : ~~78,000원~~ → 48,000원(출시기념)
※ 스님, 불자님, 공부하는 학생,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 등을 위해 만든 최고급 천연연꽃 미백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순식물성 천연연꽃 미인비누의 특징

• 연꽃에센스오일이 첨가된 순식물성 천연 연꽃 비누
• 연꽃향이 아주 좋으며 뛰어난 보습효과가 있음
• 세안 시 당기는 감이 없고 피부보호막이 형성하여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어 생기있는 피부를 느끼게 해줌
• 알레르기나 민감한 피부에도 좋음

단체행사용품

50개이상 구매시 20%할인



• 연꽃 메모꽂이 8,000원



• 코끼리 메모꽂이 8,000원



• LED라이트 알람시계 18,000원
어두운 밤에도 이 버튼을 누르면 아름다운 LED라이트와 함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 핑크, 그린, 화이트



• 십이지 핸드폰걸이 5,000원
앙증맞은 유리병속에 수련씨앗과 14K 금도금된 12지가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줄의 유리병을 분리하여 목걸이 팬던트로도 사용이 가능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3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571 호


전진호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성우원 축구단원들에게 축구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다.

봉사는 나의 '연인'

부산불교보현청년회 **전진호** 회장

향기 도반의


전진호 회장은 18년째 주말마다 장애인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결혼도 잊은채 18년째 장애우 축구지도
천마재활원 축구팀 '세계적 구단' 만들어
없는 돈 쪼개가며 생일파티·용돈 챙겨줘
자신위해 돈 쓰면 '어색' … 늘 운동복 차림

부산 감전 2동 '한마음꽃집'. 오늘도 그 꽃집엔 주인이 없다. 꽃을 사러온 사람은 문 앞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꽃을 사러왔으니 어서 와 달라'는 요청의 전화다. 주객이 전도된 이 풍경이 한마음꽃집에선 그리 낯설지 않다.

손님이 주인을 찾는 이 꽃집의 주인장은 전진호(41·법성) 부산불교보현청년회 회장이다. 동네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스무 살을 갓 넘길 때부터 봉사활동과의 연애에 빠져 사는 총각으로 통한다.

봉사활동과의 열애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한마음꽃집의 주인은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운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불만 켜져 있는 때가 태반이다. "배달을 가야 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짐짓 핑계를 대 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전 회장이 맨 처음 봉사와 인연을 맺은 곳은 소년의 집. 8살 이하의 고아들이 생활하던 이 시설을 군 입대 전 친구들과 우연히 찾았다. 불교청년회에 가입해 활동 중이던 그는 '하안비둘기'라는 봉사모임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았다. 풍선을 만들어 함께 놀아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일 산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들을 두고 돌아올 때가 문제였다. 소년의 집은 그들의 일행이 떠나려할 때면 건물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기 일쑤였다. '가지 말라'고 울어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다 보니 주말은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였다. 천마재활원, 성우원, 성프란치스코 등 종교와 무관하게 외로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이 자꾸 옮겨갔다. 시설의 화장실, 보일러가 고장나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새벽이라도 달려갔다.

생일 때면 커다란 케이크를 사들고 어김없이 아이들을 찾았다. 촛불을 밝히고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다. 가족을 갖지 못한 아이들에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만의 이벤트였다. 선물도 잊지 않았다. 그런 그가 정작 자기 생일 케이크를 잘라본 것은 28살의 생일 날이 처음이었다. 그날 친구들이 마련한 케이크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정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다 보니 생일 케이크는 생각조차 못해봤고요. 길가다 나자들이 생일케이크 사들고 가는 것만 봐도 부러웠고, 큰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기억이 참 오래갔어요."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을 세상의 외로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다. 추석이나 설날 모든 원생들에게 한명도 빼놓지 않고 용돈 1000원씩을 쥐어 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서너 곳 시설에 있는 300여 명 아이들에게 일일이 용돈을 주는 일, 결코 많지 않은 그의 수입에선 쉬운 일은 아니다.


생일축하 파티장면.

봉사 활동에 월 50만 원 이상을 쏟아 붓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쓸 줄을 모른다. 그는 늘 운동복에 운동화 차림이다. 모두 장애인축구단 운동복을 마련할 때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다.

그의 봉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축구를 좋아했던 그가 우연이 천마재활원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축구 지도자(?)의 길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8년째 주말마다 장애인 축구단을 지도하면서 '축구아저씨'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의 축구 지도 덕분에 천마재활원 축구팀은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로 성장해 95년 특수올림픽 준우승을 거두고 2001년에는 아시아 정신지체인 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장애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쏘아 올린 천마재활원 축구팀의 숲은 장애인 시설 축구단 결성의 시발점이 됐다. 1990년 천마재활원 축구단 창단에 이어 4년 전 성우원 축구단이 생겼고 9개월 전에는 평화의 집 축구단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첫째 주 일요일엔 평화의 집 축구단,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엔 성우원, 둘째 일요일엔 천마재활원 축구지도까지 그의 주말이 더욱 바빠졌다.

"축구를 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참 많이 변했죠. 그래서 축구단에 들어오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천마재활원의 경우 1군, 2군 합해서 선수만도 45명이나 됩니다."

이제 천마재활원 축구단의 몇몇 선수들은 다른 장애인 축구단의 지도를 도울 정도로 실력이 됐다. 전 회장도 못 가본 미국, 일본 대회에 참가하는 멋진 선수들로 성장한 것이다. 성우원 축구단 지도를 돕고 있는 천마재활원 축구단 안흥수(39) 주장은 "형님은 축구 자체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공을 차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라며 "축구를 가르쳤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전 회장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전 회장은 앞으로 2개의 장애인축구단을 더 만들고 장애인축구단을 사단법인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축구단 하나를 결성하려면 축구화, 단복, 장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찮아 늘 자비를 털고 후원에 의존해왔던 터라 사단법인화를 통해 안정적인 후원자와 재정 확보,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외로운 아이들 만나러 가는 일이 법당 부처님 뵈러 가는 일보다 더 급해서 그의 신행은 늘 게을러 보인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 부산불교보현회 정기 법회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절에 갈 기회가 생길 때면 늘 부처님 전에 7배의 절을 올린다.

"다른 사람들은 자주 가니까 3배만 해도 되지만 전 자주 못가니 7배를 하고 있어요. 왜 7배냐구요? 이유는 없어요. 부처님과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싶어서요."

전 회장은 늘 이렇다. 그러나 그가 아는 한 가지는 있다. 사람 마음은 다 같다는 것.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행복으로 충만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다. 나눔과 사랑의 향기 가득한 한마음꽃집은 오늘도 주인 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눔에 함께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봉행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승가오칙(僧伽五則)'의 수행법을 널리 펴신 한암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방 수좌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승가오칙'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의 부처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행학림 기간 중에 화엄사상의 중심처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엄경〉의 대강백스님들을 초빙하여 화엄산림을 봉행합니다.





- **기 간** : 3. 17 ~ 4. 24. (매주 금 ~ 일)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 **참가비** : 주당 10만원

수행학림 전체 일정 (3. 17 ~ 4. 23 매주 금·토·일)

날 파		시 간	내 용	장 소
매주	금	19:00	저녁예불	월정사
		20:00	한암대종사 수행 및 선사상 강의	
	토	04:00	새벽예불 / 염불정진	
		05:00	경행(전나무 숲) / 아침공양 / 운력	
		09:00-15:00	오대 참배(108배 및 참선)	동·서·남·북대
		15:00-17:00	화엄산림(화엄경 강의 - 6회) / 약석	월정사
		19:00	저녁예불	상원사
		20:00	좌선법 강의 및 지도	
		21:00-05:00	철야정진(좌선)	
	일	05:00-06:00	경행(한암·탄허대종사 부도탑)	
			아침공양	
		09:00-10:30	참법 및 포살	중대사자암
		11:00	삼보일배 / 정근정진	적멸보궁
		12:00	서원 및 회향	적멸보궁
4. 24		09:00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월정사 적광전
		10:40	한암대종사 탄신재	월정사 적광전
		11:00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월정사 대법륜전
		12:30	'한국불교와 한암대종사 선사상' 학술세미나	

한암대종사 수행일화집 봉정법회
-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0시
-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적광전

'漢岩大宗師의 思想과 그 影向' 학술세미나
- ◆ 일 시 : 2006년 4월 24일 12:00 ~ 17:00
-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문의처** : 월정사 종무소 033)332-6664,5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4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성지 월정사 · 현대불교신문사

특강-한암대종사의 입멸관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삶과 죽음' 둘 아님 보여준 생생한 가르침

'삶과 죽음 없는 도리를 확연히 써라(用無生死).'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 17일부터 6주간 공동주최하는 '제2기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에서 주지 정념 스님은 "앉은 채로 열반에 든 한암 스님은 생사가 둘 아님을 중생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여법한 모습을 보여, 스스로 일생의 수행을 점검한 한암 스님. '한암 스님의 입멸관'을 주제로 진행된 정념 스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스스로 일생의 수행을 점검한 선지식이었다"며 "본래 가고 옴이 없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흔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법문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궁극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대사인연은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종교도 수행도 생사의 문제를 극복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삶에 집착과 죽음의 공포는 진리의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진리의 실상에서는 오고 가고,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즉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류적 몽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몽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깨뜨리려면, 진리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나고 죽음이 원래 '둘이 아니다'는 깨달음의 실상을 확연하게 자기 체득해야 생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음력 2월 14일, 오대산 상원사에서 열반하신 한암 스님이 그랬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생사가 둘이 아님을 있는 그대로 확연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용무생사(用無生死: 생사 없는 도리를 씀)를 우리 앞에서 보인 것입니다.

당시 한암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는 양력으로 초봄에 해당됐지만, 겨울이 긴 오대산 상원사는 여전히 눈덮인 산하였습니다. 상원사 선원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대중은 모두 남쪽으로 피난가고 스님 옆에는 만화(萬花) 스님과 공양주보살뿐이었습니다. 상원사가 불태워질 처지에 놓인 것을 온 몸으로 막은 스님은 봄에 가벼운 병세를 보였지요.

7일 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스님은 시자를 불러서 "오늘이 음력으로 2월 14일이지?"하고 묻고는 아랫마을로 심부름 보낸 뒤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는 단정히 가부좌하고 앉아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옆에는 공양주보살이 조실스님 방을 청소하고 있었지만 평소 늘 참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선을 하시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암 스님의 열반 모습은 좌탈입망(坐脫立亡) 가운데, '좌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한국 고승 가운데 열반할 때, 좌탈한 예는 아마 한암 스님 한 분일 것입니다. 앉은 그대로 열반을 맞이한다는 것은 금강석같은 수행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가 죽음에 이르러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설사 정신을 잃지는 않더라도 신체를 가누지 못합니다. 부처님이나 한암 스님처럼 자신의 육체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고, 또 가는 날을 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범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썼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에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늘 생명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낍니다. 때문에 완전한 행복의 성취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주는 근본적으로 텅 비어있다고 하지만, 그 이치만을 갖고 실제 생사의 문제를 초탈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할 때,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재가자들은 스님의 열반상을 보면서 용무생사의 이치를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 객관계(客觀界)를 바라보는 정견을 갖춰야 합니다. 나와 객관계가 본래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산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생전에 그 흔한 법문집조차 남기지 않았던 한암 스님이 간화선 공부법을 간명직결하게 규명한 문집인 <선문답21조>에서도 스님의 열반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문답21조> 중에서 20조에서 보면, 어떤 수행자가 한암 스님에게 "이미 생사를 초탈했다면, 갈 곳을 알아야 할 것이니, 사대(四大)가 각기 나누어짐에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일면불(一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고 했습니다.

생사 극복할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
죽음 문제는 진리의 착각에서 비롯
중생계의 양극단적 견해 경계해야

이 조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근본 실상에서는 가고 옴의 문제가 결국, 가도 어디로 갔다든지 와도 어디에서 왔다든지 같은 중생계의 양극단적인 견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견해는 양변을 떠나지 못해 갖는 의문인 것입니다. 본분의 문제는 '있다 없다'의 유무 차원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궁극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문 자체는 스스로 증득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치로 설명되고 알음알이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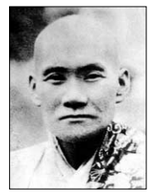
결국 생사의 문제, 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암 스님의 일생이었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앉아서 열반에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실제 '죽음'이란 마주침에 일대사의 모든 경계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천하의 도를 말하고, 호언장담을 해도 실제로 죽음이란 본분과 부딪혔을 때,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한암 스님은 이런 죽음에 있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법한 모습을 보여 일생 수행의 점검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죽음이란 인연을 분연히 맞이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없이 생사의 이치를 확연히 타파한 수행자에게는 복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 본래 가고 옴이 없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흔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을 하는 까닭입니다. 수행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평창 월정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근대 암흑기 한국불교 일으켜



한암 스님(1876~1951)은 근대 한국불교의 고승으로, 조선의 망국과 한일합방, 일제 식민지, 그리고 해방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직접 목도했던 선지식이다.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정 및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종정을 맡았던 스님은 암흑기에 한국불교 중흥과 전통 한국선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스님은 특히 종정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체 명예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스님은 1925년 서울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하면서 오대산에 들어갔다. 이후 오직 상원사 선원에서 27년 동안 두문불출, 참선수행과 납자 지도에만 전념했다. 대강백으로 추앙받는 탄허 스님을 비롯 수많은 스님들을 제자로 두었다.

죽음 예고… 선택한 시간에 열반

■ '전등록'으로 본 좌탈입망 일화

중국 선종의 역사서인 <전등록>에 보면 좌탈입망(坐脫立亡)한 예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한 다음 선택한 시간에 열반을 맞이한 선사들을 소개한다.

#자신의 제사를 먼저 치르게 한 화산덕보 선사

임제종 황룡파의 화산덕보(禾山德普, 1025~1091) 선사는 입적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자신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스승이 보는 앞에서 미리 스승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니 제수(祭需, 제사 음식)가 진수성찬이었음은 물을 필요도 없었다. 한 시간 이상 제자들이 올리는 음식과 절을 모두 받고 나서 "내일 맑은 하늘에 눈이 내리면 가겠다"고 하고는 정말 다음 날 눈이 내리자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입적했다.

#제발로 관에 들어가 입적 맞은 보화선사

임제의현(臨濟義顯, ?~866)의 도반인 보화(普化) 선사가 하루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복을 구걸했다. 사람들이 모두 승복을 갖다 주었지만, 보화 선사는 웬 일인지 "모두 필요 없다" 하고 받지 않았다. 임제선사는 원주를 시켜 관(棺)을 하나 사 오게 했다. 그러고는 보화선사에게 "내가 그대를 위하여 승복을 한 벌 만들어 놓았소." 그러자 보화 선사는 기분 좋게 곧바로 관을 짊어지고 거리로 나가 "내일 내가 동문 밖에서 세상을 죽겠다"고 선언했다.


한암 스님의 좌탈 열반 모습(1951년 음력 2월 14일).

하지만 그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3일, 4일째 되는 날엔 그 누구도 스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보화 선사는 혼자 관 속으로 들어가 길 가는 사람에게 뚜껑에 못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소식이 즉시 시내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관 뚜껑을 열어보았다. 열어보니 법구는 보이지 않고 몸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공중에서 요령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물구나무 서서 입적한 등은봉 선사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의 제자인 등은봉(鄧隱峰) 선사는 평소에도 괴팍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고래(古來)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느냐?"고 묻자, 제자들이 "있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렇다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도 있느냐?"고 되묻자, 제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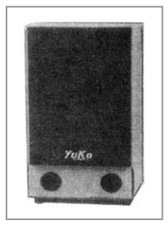
그러자 등은봉 선사는 갑자기 물구나무서기를 하고는 그대로 입적해 버렸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 들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이 기괴한 소식을 듣고 속가 누이 비구니스님이 달려 왔다. 누이동생이 "오라버니는 생전에도 괴팍한 행동만 일삼더니 죽어서도 계속 골탕을 먹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꼼짝 않고 서 있는 오빠의 법구를 '탁' 치니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목조 건축

◆현대식건축 목조 + 빔
● 제일 튼튼한집 150년이상 보장
● 제일 저렴한 한옥집 평당 200만원대
◆목조건축
● 육송,낙송,수입목 다량보유
● 타사 건축업체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읍니까?
● 목조건축을 350만원대에 시공합니다.
나무 시세에 따라 변동될수 있읍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TEL 043)848-5311, 3
H·P 010-6399-5311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암침술 강좌안내
탁월한 치료효과
차원높은 사암침술을 3개월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맨투맨 방식의 완벽한 실습 위주로 교육하며 3개월 후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강은 4월 3일이며 월화반 수목반 야간반이 있습니다.
문의 051)804-8571
018-312-7110
위치 : 지하철 1호선 부전동역 4번출구
사암침술학회 부산지회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삶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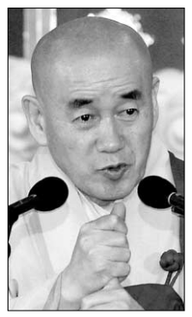
화엄산림-제1강(1~6품)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원융의 눈으로 보면 깨달음이고, 이원으로 바라보면 분별이 된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3월 18일, 월정사 수행학림 입제 이튿날 대법륜전에서 열린 '화엄산림'에서 법문한 〈화엄경〉의 핵심 도리다. 본래 원융무애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 있지 않지만, 중생들은 늘 미망의 꿈을 꿔 온갖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깨닫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화엄경〉. 〈화엄경〉 1품에서 6품까지를 강설한 스님의 법문을 요약한다.



종범 스님

화엄 신앙에서는 모든 불보살이 비로자나불의 화신(化身)입니다. 그래서 화신 석가모니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등 삼불(三佛)은 원융합니다. 즉 하나가 있는 곳에 셋이 다 있고, 셋이 있는데 곳에 하나가 있어 이를 '삼불원융(三佛圓融) 화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삼불이 원융한 신앙 구조가 모든 의식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입니다. 때문에 화엄 신앙을 조명하지 않고는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엄경〉은 〈화엄부〉라 불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80권 60권 40권 등 한역된 〈화엄경〉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가불자들이 〈화엄경〉하면, 금세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을 위한 화엄 신앙이 나오게 되죠. 의상 대사의 '법성게(法性偈)'와 '약찬게(略纂偈)'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80권의 방대한 분량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손쉬운 〈화엄경〉 공부법을 일러준 것이 '약찬게'와 '법성게'입니다.

먼저 약찬게에는 〈화엄경〉의 구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품수와 등장인물 등 중요한 정보와 항목이 묶여 있지요.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는 오로지 그 내용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순전히 화엄의 내용만 말해놓았지요. 그래서 법성게와 약찬게를 외면 화엄의 구성과 내용이 그대로 한목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7언 30송 210자'로 된 〈법성게〉의 첫 구절을 살펴볼까요.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법성은 원융해 둘이 없고, 제법은 부동해 적멸상이다.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없으니, 증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다.'

법성은 무엇일까요? 온 우주 법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원융해서 둘이 없지요. 원융은 시작이 바로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원융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둘이 있어요. 법성과 생각이 들어맞으면 되는데, 맞지 않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둘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 행복과 불행, 참과 거짓, 있고 없음 등으로 나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둘이 아니에요. 원융이죠. 원융성으로 보면 깨달음이고, 이원성으로 보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은 둘로 갈라보게 하죠. 모든 고통과 대립은 둘에서 오는 겁니다. 원융에서 보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집착할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싫어할 것도 아니지요. 이것이 '법성원융무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법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고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성의 세계를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 우주 법계의 본성인 법성은
> 원융해서 둘이 없지요
>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 보이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
> 고통과 대립, 둘로 보는데서 시작

문제는 '지혜와 생각'입니다. 지혜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에 매이면 모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습니다.

감정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상 스님의 유명한 '10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동전 10개를 보는 관점이 핵심입니다. '1전을 중시하느냐' '10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즉(則)'과 '중(中)'의 도리입니다. 즉은 일즉십(一則十), '하나가 곧 열이다'는 시각이고, 중은 십중일(十中一), '열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관점이지요. 같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자기를 사랑하는 노력이기에, 자신 하나를 모든 우주로 봅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도 우주도 없다는 생각이죠. 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전체 중의 하나로 봅니다. '즉'과 '중' 도리가 서로 부딪치면서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다른 이가 나를 보는 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보고 나를 나와 같이 사랑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일즉십' 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왜 나를 나처럼 봐주지 않는가.' 즉 '열중일'의 시각과 부딪치는 것이지요.

법성계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다라니무진보(以陀羅尼無盡寶) 장엄법계실보전(莊嚴法界實寶殿)

궁좌실제중도상(窮坐實際中道床)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지혜의 무진보로 온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한다.

실제의 진실한 중도상에 앉으면 예부터 그대로니 부처이다.'

다라니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지요. 또 총지(總智)라고도 합니다. 보배로 말하면, 쓰고 또 써도 줄지 않는 지혜보배라고 합니다. 지혜로써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일으키면 무진보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만들고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자기도 남도 괴롭히는 것이지요.

지혜로써 알고 보면, 항상 원융무애한 중도상에 앉아 있고, 본래 원융무애한 자리에 한 발짝도 물러나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늘 미망의 꿈을 꿔 온갖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받는 것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꿈을 깨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보면, 한 걸음도 옮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부처지요. 이것이 화엄의 골수입니다.

이를 의상 스님이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권상1에서 '행행본처 지지발처(行行本處 至至發處)'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본래 자리요, 이르는 곳마다 출발지'라는 뜻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본래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입제 이튿날인 3월18일 '화엄경'을 강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고 살' 걱정으로 고통을 받지요. 가나오나 본래 자리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둘로 보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있다 해도 꿈을 꾸면, 자기집인 줄 모르지요? 꿈을 깨면 본래 자기집임을 압니다. 〈화엄경〉은 이처럼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오늘 강설할 부분은 〈화엄경〉 초회 6품에는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 등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의 광경을 설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초회 6품은 부처님이 성불한 세계를 설명해요.

먼저 '제1 세주묘엄품'에서 기막힌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시성정각(始成正覺)', 처음부터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은 정각의 세계를 설명하죠. 깨닫고 보니 보이는 세계부터 달라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난야 법보리장에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됐다. 가장 묘한 보배들과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마니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나타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불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써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 무량한 업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데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삼세에 들어가 평등하고 몸이 일체 세간에 가득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 자기 마음 늘 관조해야 합니다
> 그러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 바라는 마음을 늘 들여다 보면
> 상대방이 밉지 않아요

우리는 〈화엄경〉을 통해 일상에서 지혜를 계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 돌아가면 모두 해결됩니다. '관조(觀照)'가 필요해요. 자기를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는 특히 자기를 챙기고 돌아보는 노력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원망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마음 챙기는 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늘 관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라는 대로 해주질 않아 고통스럽고 미운 그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는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밉지 않아요. 이것이 관조에요. 다음은 수행입니다. 마음공부죠. 끊임없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익히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평창 월정사=김철우 기자

※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기사로 인해 18면의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와 19면의 '일터가 도량입니다' 연재를 6주간 쉽니다.

52週 1年에 50만배
2年 1백만배 기도도량

惡業을 지은 사람이 다시 惡業을 지으면 壽命이 짧아져 일찍 죽어 그 果報를 地獄에서 받는다. 그러나 惡業을 지은 사람이라도 善業을 지으면 壽命이 길어져 그 果報를 現在에서 받게되며 그 받는 苦痛은 地獄에서 받는 것 보다 지극히 가볍고 작다.
절은 위와 같은 現實에서 본다면 自身을 낮추어 下心하므로 惡業을 善業으로 바뀌는 修行이며 心身을 同時에 단련하는 수행이다. 또한 절 수행은 호흡에 있어서도 단전 호흡과 梵音을 습득하여 일상화 할수 있으며, 氣를 받아들여 眞氣는 배출하여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 지고 惡業의 苦痛을 가볍고 작게하는 수행이다.

※ 4회 참석자에 한하여 法憲스님이 직접 쓴 범어로 된 신묘장구다라니1장(만불 명호집 대신할 수 있음)을 증정함
※ 자정 저녁참(호박죽)제공
◆절수행 방법 :
집에서 매일 108염주를 11회 절하시면
1,188배 6일 7,128배 7일째 법륜사에서 3,028배
1주당 10,156배 × 1년 52주 곱하면
1년 528,000배 × 2년 = 1백만배
◆동 참 금 : 20,000원
◆준 비 물 : 기도포, 면수건, 면양말, 기도복 (출입복 따로)
● 법륜사 오시는 길 : 전철 1호선 동암역 북부역에서 율도행 42번 버스 종점하차

전화 032)583-2003 핸드폰 010-3376-4268
法憲 합장

경포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중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 1차 : 2006년4월 8일 - 14일(6박7일)
• 지도 : 우 또다나 사야도 • 통역 : 법라스님
• 정원 : 15명(선착순) • 대상 : 일반인
• 2차 : 2006년5월13일 - 19일(6박7일)
• 지도 : 우 만달라 사야도 • 통역 : 법라스님
• 정원 : 15명(선착순) • 대상 : 일반인
• 3차 : 2006년6월10일 - 16일(6박7일)
• 지도 : 우 에인다까 사야도 • 통역 : 혜송스님
• 정원 : 20명(선착순) • 대상 :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 수행내용 : 위빠사나 수행, 법문, 수계
◆ 입실 및 회향 시간 : 시작 날 오후 5시, 끝나는 날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우체국:201780-01-001463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033)644-1786, H·P 011-497-9535
E-Mail:dhamma53@hanmail.net
◆ 주간 수행반 접수 : 강릉에 소재하신 분들은 아침 9:00부터 저녁 5:00까지 낮 시간을 이용하여 위의 7일간의 집중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심공양이 제공되고,회비는 7만원이며,1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무계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리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로골퍼 입 벌리고 잘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면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제1회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it(正念)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부처님 정통 수행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4월 5일 오후 5시 ~ 8일 정오 12시(3박 4일)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부산)
◆ 대 상 : 5년이상 비구(니)
◆ 참가비 : 3만원
◆ 내 용 : ① 부처님 정통수행법 이론과 실기
② 싸띠수행 · 간화선 · 묵조선 · 위빠싸나 비교
③ 수행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수련회, 법회 등)
◆ 준 비 물 : 가사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반냐라마 Sati School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4>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할 것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지혜 선지식에 지도받는 것이 중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不變)과 인연 따라 나타나는 수연(隨緣)의 뜻이다. 단숨에 깨치는 돈오(頓悟)와 차츰차츰 닦아가는 점수(漸修)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한다. 그런 뒤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되는 교(敎)를 벗어나 달을 볼 수 있게 선(禪)의 근본 뜻을 참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화두만을 참구해야 한다.

화두를 챙길 때 신심(信心)과 분심(憤心)과 의심(疑心)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하는 것이자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길이다. 이 내용을 <선가귀감>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大抵學者 須參活句 莫參死句

도를 닦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할 일이요 '죽어 있는 말'을 참구하지 말지어다.

'살아있는 말'과 '죽어있는 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선종(禪宗)에서는 공부 길을 터줄 수 있는 아주 쓸모있는 말들을 '살아 있는 말'이라 하고, 쓸모없는 말들을 '죽어 있는 말'이라 한다. 선문(禪門)에서 쓰이는 '살아 있는 말'들은 중생들이 시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 부처님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모든 번뇌를 끊고 타파할 수 있어 섬광이 번뜩이는 지혜를 '살아 있는 말'이라 하고, 이리저리 뜻을 헤아리고 추측하여 쓸데없이 번뇌만 더 늘게 분별하는 지혜를 '죽어 있는 말'이라 한다.

'살아 있는 말'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자의 마음을 터 줄 수 있는 번뜩이는 지혜이므로 생명을 살리는 칼로 비유되어 '활인검(活人劍)'이라고도 하고, '죽어 있는 말'은 공부 길을 방해하여 수행자의 생명인 지혜를 없애기 때문에 '살인도(殺人刀)'라 한다. 참구하는 화두는 화두 자체에서 모든 시비 분별이 끊어져야 '살아 있는 말'이 된다. <산방야화(山房夜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語中有語 名爲死句 語中無語 名爲活句

말 가운데 말이 있는 것을 '죽어 있는 말'이라 하고 말 가운데 말이 없는 것을 '살아 있는 말'이라 한다.

선종에서 참구란 수행자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불법에 대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선가에서는 어떤 경계에 집착하는 알음알이를 모두 배척하고 몸소 눈 밝은 스승을 찾아 그 분의 가르침 속에서 참선하는 것을 수행자들이 실천해야 할 삶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긴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스승 밑에서 참선하고 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선종에서는 선지식을 찾아뵙지 않아 공부가 잘못되는 것을 큰 병통으로 친다.

그러므로 선종에서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늘 "선지식을 찾아보라"는 것이 큰 가르침이 된다. 선지식을 찾아 화두를 받고 그 스승 밑에서 '살아 있는 말'을 참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벽암록>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참심(參尋), 참문(參問), 참고(參叩), 참현(參玄), 참학(參學), 참상(參詳) 같은 말들도 모두 참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다.

서산 스님은 "살아 있는 말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것이요, 죽은 말에서 깨쳤다고 착각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게송으로 말한다.

要見臨濟 須是鐵漢

임제 스님을 만나려면 쇠뭉치로 된 놈이라야 한다.

서산 스님은 다시 말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데에는 '말을 참구하는 것'과 '그 뜻을 연구하는 것'이 있다. 말을 참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자 '살아있는 말' 즉 활구(活句)이니,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뜻을 연구한다는 것은 화두를 '이리저리 헤아리고 추측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자 '죽어있는 말' 즉 사구(死句)이니, 이치로 따질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할 길도 있어서 어떤 대상경계로써 듣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경계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나'라고 하는 놈이 아직까지 시비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니 공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화두 공부의 완성이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화두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져 모든 것이 텅 빈 자리에 오로지 밝은 지혜만 남아 있는 것이다.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빛나는 지혜를 '공적영지'라 하기도 하고 '진공묘유'라 하기도 한다. 텅 비어 고요하다는 공적(空寂)이나 진공(眞空), 신령스러운 앎이자 부처님의 지혜로 눈앞에 펼쳐지는 영지(靈知)나 묘유(妙有)는 알고 보면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공양

군대 졸병 시절 군종병이었던 저는 막 식사를 마친 내무실 고참에게 "공양하셨습니까?"하고 인사했다가, 기독교도였던 그 고참에게 꾸지람만 받았지요. "뭐 임마! 너 참 개념 없다. 공양했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인데?"

덕분에 그날 저녁, 당연히 내무반 집합이 걸렸지요.

'공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절에서 먹는 하루 세 끼 식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물이나 향(香), 등불, 차(茶), 꽃 등도 '공양을 올린다'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술한 경전이나 좋은 불교서적을 무상으로 나누어 줄 적에도 '법공양(法供養)'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양, 즉 '공급봉양(供給奉養: 공급해서 봉양한다)'의 말 속에는 음식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지요.

공양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입니다.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자면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공양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득이 받는 것이고, 깨달은 이후에는 가르침을 베풀어 보답해야 합니다. 또 신도들은 복덕을 쌓아 진리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 공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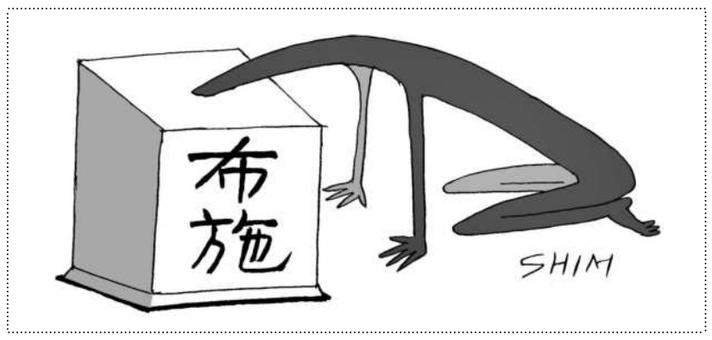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5강 보살의 토대 없는 보시의 복덕

허공을 재는 두레박



–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 이 말은 "보시를 행한다"가 아니라 "보시에서 행한다"는 뜻이 된다. 구마라습이 이렇게 문장을 부자연스럽게 고친 이유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보살의 보시가 '목적과 대상을 의식하지 않는 순수 행동'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닐까.

토대 없는 보시

– "색성향미촉법의 토대가 없는 보시(所謂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觸法布施)":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각, 그리고 의식은 한 인격이 토대를 구성하는 자료들이다. 이들 여섯 대상이 자극을 주면, 신체는 이 자극을 향해 감정적 의지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반복되고 패턴화 되면서 견해(見解)라 부르는 편견(?)이 형성된다. 성격, 혹은 인격은 이 과정을 통한 강화의 결과이다. 다시, 성격은 외계에 대한 자극을 선택하고, 거기 반응하는 양상을 결정한다. 각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지각된 형체와 소리, 냄새, 접촉 등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 언제나 마음속에 흔적을 새기고, 찌꺼기를 남긴다. (이것이 업의 단초이다.) 흔적과 찌꺼기는 이들 지각에 대한 '마음'의 호오(好惡), 증애(愛憎), 취사(取捨)로 나타난다. 이 반응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작용이지만, 그러나, 이 활동이 '너무 멀리 나감으로써,' 그 무절제와 방만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형태와 소리는 마음의 고요와 안정을 다치고, 사무의 공정성을 잃기 쉽다. 그 형태와 소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 때는 더 없이 위태롭다.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업의 대부분은 '사람과 더불어' 생기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을 보라. 안타까운 것이 어디 한둘 이랴만, 그 중 큰 것이 사적 감정과 원한에 너무 집착한다는 점이다. 자신과는 당을 달리하는 '꼴(色)'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때 그를 비난하는 '소리(聲)'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한 '인연(觸)'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손보는데' 정력을 쏟고 자기편을 감싸느라 급급하다.

참, 여섯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법(法)에 대해서 짚어두어야겠다. 법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가령, '진리', '가르침', '세상의 참모습' 등이고, 이들 의미는 서로 얽혀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마음(心)이라는 '감각기관(?)'과 짝해 있는 심리적 상관물, 쉽게 말하자면, 마음속에 오가는 온갖 상념들을 가리킨다. 불교는 이들의 유용한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더 유의한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들 '마음의 원숭이(心猿)'들을 제어하고 항복받는데 큰 힘을 들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공(空)의 축복

마음을 항복받을 때, 우리는 실제와 만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습성화된 자동화된 반응, 세속화된 관심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늘 거기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것이 불성(佛性)이라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미소, 쌀과 공기와 구름, 나를 존재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등이다. 이 각성과 더불어 우리는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처음 1) 우리의 욕망과 그 '대상'물이었던 변계소집(遍計所執)의 세계는, 2) 사물이 서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 의타기(依他起)의 세계로 이동한다. 이것은 '시선의 혁명적 전향'이다. 그것은 욕망과 그 충족의 전망에서 바라본 시선이 아니라, 유희와 소요의 시선이다. 그로써 돼지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과 '만나는' 자기 혁명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우상을, 토대를, 즉 상(相)을 깨트림으로써 얻은 것들이다.

그 축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다

– 그 "보살의 토대 없는 보시 복덕은 이 우주공간처럼 측량할 수 없다(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남에게 무엇을 주고 베풀 때, 위신이나 동정심, 그리고 돌아올 보상 등등의 '토대'를 가지면, 그 공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받는 사람도 우선 고마워는 하겠지만, 그다지 감동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호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받기보다 주기가 어렵다! 나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인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현실적으로 자기만족의 흔적 없이, 또 돌아올 보상의 기대 없이 베풀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위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룩한 공적은 양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질적 전회이기에, 우주를 뒤바꾸어 놓는다.

가령,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남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일. 그런 친절은 아무런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그 사람의 수고를 덜어준 뿌듯함과 그 사람이 안도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것을 불성이라 한다. 사람 속에는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놀부심보도 있지만, 남의 기쁨을 즐거워해주는 착한 마음도 함께 있다. 악한 마음을 조복(調伏)시키고, 착한 마음을 호념(護念)해 나가는 작은 걸음이 더 큰 걸음으로 이어지고, 그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작은 발걸음을 보듬고 키워 나가기는 어렵다. 우리는 무시이래로 아상(我相)을 축으로 세계를 읽고, 사람들 대하며, 일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무지와 환상을 반성하고, 그 힘을 역전시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가자고 마음먹기는 정말 어렵다. 이것이 발심(發心), 즉 "보리심을 발하기"이다.

초발심, 삶의 물길을 바꾸다

이 자신 속의 잠재력을 격발시키자면 때로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삶의 루틴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남다른 고통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혹은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전환의 기회가 더 많다. 원효도 "생사(生死)를 한번 겪어보아야" 불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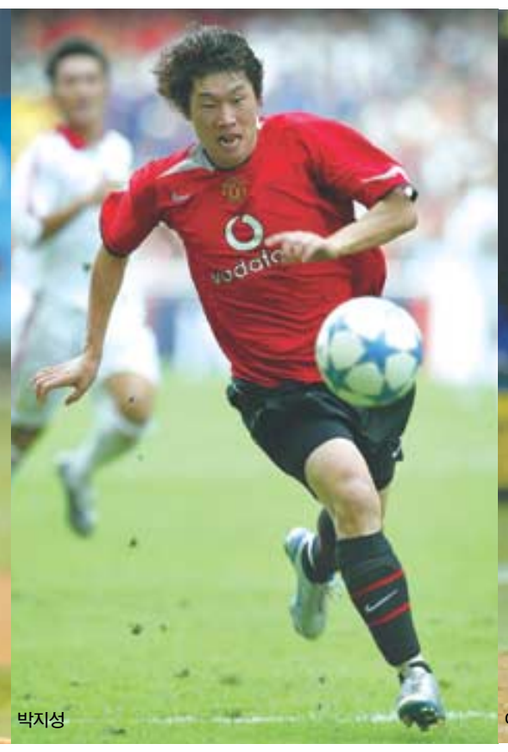
무한정 있을 것 같았던 시간이 실은 없다는 것의 자각이 우리가 안전하게 여겼던 삶의 토대를 일거에 무너뜨린다. 그때 그는 거기 새로운 토대를, 토대 아닌 토대를 건설해야할 실존적 필요에 직면한다.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삶이 찰나이고, 대문 밖이 저승임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전의 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껍질을 벗고 남을 향해 의미의 시선을 던지게 된다. 여기가 초발심(初發心)이다!

초발심이 선다면, 이미 위대한 깨달음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다. <금강경> 제 9장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에는 아라한의 네 가지 계위가 나온다. 처음이 수다원으로 입류(入流), 즉 "흐름에 들어섰다"의 경지이다. 삶의 물길이 바뀌면, 이미 일은 거지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마음 하나" 바꾸면 삼계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한다. 여래들이 둘러써서 축복하고, 일체의 인천아수라가 그를 돌며 공양을 올린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찬호


박지성


이승엽

성실함과 포용심이 성공으로 이끈다

불자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등 스포츠 스타 28인의 성공 요인 메모·설득 등 10가지 분야 분석



이 경기장에선 내가 최고다
이상주 지음
대교베텔스만 | 9800원

최근 열린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우는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결승진출이 좌절됐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한국. 한국대표팀이 세계 3위의 위업을 달성한 것은 이승엽 박찬호 최희섭 홍성흔 등 불자 선수들의 힘이 컸다. 6월 9일부터 열리는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박지성 이동국 설기현 선수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신심깊은 불교신자이며, 대한민국 최고 스타인 박지성과 이승엽 박찬호 최희섭 홍성흔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20여년 가깝게 경기장을 누빈 <스포츠조선> 이상주 부장(극동대 사회체육과 겸임교수)이 펴낸 <이 경기장에선 내가 최고다>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포용하는 넓은 마음'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 스타 28명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 이 책에 의하면 선수들의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은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관용과 포용의 온화한 염화미소를 잃지 않은 것이라고.

특히 프로축구 스타 박지성은 자기 암시, 아시아 홈런 킹인 국보급타자 이승엽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박지성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강력한 자기 암시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1999년 국가대표팀에 첫 발탁됐을 때 '날아가는 마음으로 뛰겠다' 고 암시를 걸었고, 일본 프로인 교토 퍼플 상가에서는 '누구보다도 빨리 축구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고 되뇌곤 했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을 찾아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겠다' 고 마음을 다졌고, 세계 최고무대인 프리미어그리그에서는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 자기암시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일본 최고 인기구단인 요미우리로 이적한 이승엽은 인터뷰 때마다 성실함과 인사성으로 상대를 사로잡는다.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승엽은 한국에서 한 프로생활 초창기 인터뷰 때는 시선처리와 불필요한 말 때문에 애를 먹었다. 카메라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을 어려워했고, '음, 마~, 정말~' '정말로~' 등 무의미한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장난기 심한 기자는 인터뷰 도중에 '정말'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엽은 언론에 노출이 빈번하게 된 2000년 이후에는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를 언론 친화적이라고 자평하는 이승엽이 언론을 대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의 나는 언론의 힘을 얻은 바 큰 만큼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한다. 둘째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위해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셋째 '어' 다르고 '아' 다르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말씨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또 야구 국가대표팀과 프로야구 한화의 김인식 감독, 국가대표 축구팀 아드보카트 감독은 메모 및 관찰력 등을 인생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박찬호(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선수는 선 수련을 통한 자기암시, 감독으로서도 스타가 된 선동열(프로야구 삼성)감독은 포지셔닝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파악했다. 프로야구 홍성흔(두산) 선수는 빼어난 인터뷰 기술로 정상을 지키고, 김동문과 세기의 배드민턴 커플이 된 라경민(대교 눈높이) 선수는 표정관리로 셔틀퀸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경기장에선 내가 최고다>에는 스포츠 스타 28인의 성공 요인을 경기력 외에 자기 암시, 포지셔닝, 시선처리, 표정관리, 긴장해소, 인터뷰, 메모, 발성, 설득, 엔터테인먼트 등 10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잘 정리하고 있다.

저자인 이상주 씨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감을 선물하고 싶다"며 "스포츠 스타들도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발견, 반복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새로운 관계에 희망 걸어보지만 현실은 고달픔 뿐



라라피포 노마드북스, 오쿠다 히데오 지음

<라라피포>띠지에는 '오쿠다 히데오의 최신 블랙코미디'라고 써 있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감상으론, 이건 블랙코미디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씁쓸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여섯명의 등장인물이 각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섯 챕터는 이야기의 말미로 갈수록 캐릭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쿠다 히데오의 재능이 돋보인다. 프리랜서 기자, 클럽 스카우트맨, 에로배우가 된 주부, 노래방 아르바이트생, 관능소설가, 테이프 리라리터인 이들은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이 변화되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밑바닥 현실이다. 대체 이걸 왜 읽어야하지? 하면서도 읽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소설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오쿠다 히데오의 현실감각이 써내려간 평범하지 않은 주인공들의 생각과 심리묘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은근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인생이 고달픈 사람, 누군가와 육체적인 관계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다들 이러고 사나봐, 하면서 무신경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

(포도, ypbooks.co.kr/ypbooks)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진실함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



오만과 편견 민음사, 제인 오스틴 지음

저자인 제인 오스틴은 어려서부터 습작을 통해 이십대 초반에 이 소설을 완성시켰는데 아마도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그려내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상류계층도 아니고 부유하지 못했던 베넷 가의 다섯 자매, 그 다섯 딸들은 여성들이 지닐만한 제 각각의 다양한 성격들이다.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부산스러운 어머니와 믿음직한 아버지, 이러한 가정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사랑을 얻어가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 못하다. 오히려 어리석은 어머니와 동생으로 그녀의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끝없는 관심과 사려 깊은 디아시의 사랑을 얻게 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사랑을 얻기까지는 편견이 너무나 커서 자신마저도 그 사랑에 인정을 못한다. 다른 남자들 처럼 처음부터 좋은 인상과 친절하지 못했던 탓에 그녀는 다아시를 오만하다는 편견으로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한 남자가 보여준 계속되는 진실된 행동은 그녀의 편견을 버리게 만든다.이것은 오늘날에도 공감가는 이야기이다.

(sonya, booklog.kyobobook.co.kr/sonya2020)

책속의 밑줄긋기



○… 남을 돕는 이타적 행위와 시간과의 관계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집단 규모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는 집단 규모가 클수록 두려움이 적어지고 대담해져서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쨌든 가장 무서울 때가 가로등 없는 어두운 빈민가를 혼자 걸어갈 때가 아닌가.

인간들은 온갖 포식자가 득실대는 평원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어 돌아다닐 때 가장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동물이 아니든가. 하지만 달리와 라타네의 실험은 무리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감이 커진다는 진화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방관하는 집단으로 인해 도움을 주는 행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심리실험 10장면> 본문 106쪽에서, 에코의서재, 로렌 슬레이터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반야심경 서울 법회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전국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 광주선원
선문염송/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062-944-4088
• 부산선원
금강경/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51-545-2460
www.zenparadise.com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바로보인

감로정
감로정은 방부제와 인공으로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일반소금이 아닌 인시(寅時, 새벽 3시30분 - 5시30분)에만 아홉 번 구운 죽염을 넣어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후 3년 간 숙성시킨죽염간장, 죽염된장에 소나무장작불로 구운 국내산 밭 마늘, 산에서 채취한 유근피 등을 혼합하여 환(丸)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감로정은 공양시간을 즐겁게 하며, 해우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한 통(1개월 분)에 55,000원인 감로정을 선전기간동안 제조원가인 두 통(2개월 분)당 75,000원에 드립니다
(주) 가활만인식품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725
043)855-2385, 855-8127
농협 417082-51-033062 (주)가활만인식품
www.discok.com
전통민족 의술 배우면서 같이 일하실 분 2명 모집
(50세미만 · 숙식제공)

도선 국사에 얽힌 풍수 이야기



도선비기 1 · 2
박혜강 지음
이룸 | 각 권 9000원

"도선 큰스님은 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찌 풍수와 같은 잡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요?"

"선풍불이(禪風不二), 다시 말씀드려 선과 풍수는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천의 풍수를 보는 마음과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진배없어야 합니다. 만약 둘사이에 한치의 틈이라도 벌어져 참마음과 상합되지 않으면 방술적인 풍수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3대 고승중 한명이며, 고려 왕조의 개국과 풍수지리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도선 국사. 박혜강의 역사소설 <도선비기>에서 도선국사가 절을 세우는데 비협조적인 지방 호족과 나누는 대화이다.

결함있는 땅에 사찰 지어 보완

地氣 강한 곳 불상 세워 누르고

탑 세워 땅의 기운 모으고

등진 땅엔 당간 세워 태평 기원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각 지역에서 준동하는 호족들과 그들의 비호를 받아 끝없는 정쟁을 일삼는 왕족들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통일신라 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도선국사가 왜 전 국토를 순례하며 혹독한 수행과 구도의 과정을 거친 후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스님이 땅을 화두로 삼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스님은 결함있는 땅에 사찰을 지어 보완하고, 땅의 기세가 과도한 곳에는 불상을 세워 누르고, 땅의 기세가 달아나는 곳은 탑을 세워 머무르게 하고, 등진 땅은 당간을 세웠다. 백제와 신라등 동서가 대립하는 국경에도 절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제도하게 되어 마침내 천하가 태평해지기를 바랬다.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은 완벽한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한 땅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불완전한 땅을 완전하게 고쳐서 쓰는 '비보(도와서 모자람을 채움)'가 핵심이다.

스님은 소설 <도선비기>에서 만인의 우두머리인 임금이 갖춰야할 품위와 능력을 기록해 놓은 제왕학의 핵심인 수기와 치인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열된 겨레를 끌어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스님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예언하듯 미래의 지도자는 바다뿐 아니라 겨레의 산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도선비기>를 쓴 중견 소설가 박혜강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그는 "도선국사의 <도선비기>에 지역 갈등,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깨달음 구하는 여성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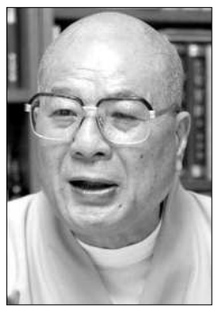
승만경 강설
혜경 스님 지음
갑을패 | 1만5000원

인도 아유사국 왕비였던 승만부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인의 성불을 가르친 경전인 <승만경>. 대승불교의 진리를 설명한 여러경전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경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신라 선덕여왕의 아호가 '승만'일 정도로 <승만경>은 삼국시대 일반사회에 널리 유포됐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배불숭유정책이 널리 유포 되면서 여성비하 흐름속에 자연스럽게 <승만경>도 세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번에 발간된 <승만경 강설>은 법화경 강설의 대표적 권위자이며, 양주 무설정사 조실인 혜경 스님(사진)이 자기자신을 뚜렷하게 파악하고, 행복의 길을 살아가도록 여성불자들에게 전하는 선물이다.

<승만경>은 여타 경전처럼 여러 가지 비유가 없으며 중생의 청정(淸淨)한 본마음을 가리키는 여래장(如來藏, 여래를 내장)을 열어 나타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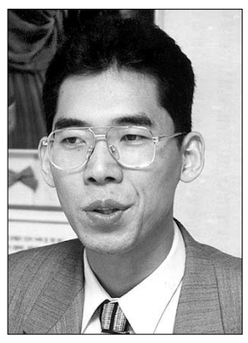
책의 구성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는 서분(序分), 여래장사상을 설한 정종분(正宗分), 경이 설해진 이유를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전하라는 의미의 유통분(流通分)으로 나뉘어져 있다.

혜경 스님은 19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출가했다. 스님은 법화불교대학 학장과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천수경' 의미 얼마나 아세요?

김호성 교수, 신행론적 입장서 고찰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때마다 독경하는 <천수경>은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지대한 만큼 <천수경>의 의미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못하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사진)가 13년간 연구해 <천수경>의 요체를 정리했다. <천수경>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수행의 지침을 제시하는지, 신행론적 입장에서 고찰한 <천수경과 관음신앙>이 그것.

이 책은 원본의 탐구를 통해 <천수경>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법을 좀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고찰, 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책에서 "우리가 보통 도량석 불공 재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천수경>은 독송용"이라고 말한다. 흔히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서 편집해서 쓰는 <법요집>이나 <불자독송류>집에서 볼 수 있는 <천수경>이라는 것이다.

또 "독송용 <천수경>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뽑아내고 다른 다라니와 현교의 교설 그리고 의식과 독송의 편리를 위해서 새롭게 편집된 경전및 의궤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불교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에는 현행 독송용 <천수경>이 그대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정신수대장경>의 분류에 의하면 <천수경>은 밀교부에 속한다. 밀교부 3(제20권)을 살펴보면 본래의 <천수경>은 핵심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설하면서 관세음보살 신앙을 고취하는 경전과 의궤가 19종이나 된다.



천수경과 관음신앙
김호성 지음
동국대출판부 | 1만2000원

의궤에서 설하고 있는 수행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지송밥법이다. 둘째는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나오는 불, 보살을 비롯한 만다라의 도상으로 그려 모시는 방법이다. 이들 두가지 수행의궤는 우리 불교사에서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저 일심으로 염송하는 것 말고는.

<천수경과 관음신앙>은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 1부 <천수경>의 요체' 부분은 수행자들을 위한 <천수경> 해설을 목적으로 저자의 솔직담백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15편이 담겨있다. '제 2부 <천수경>과 관음신앙'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보다 긴 형식의 글 11편으로 채워져 있다.

'제 3부 <백화도량발원문>의 세계'는 저자의 무르익은 신행력이 절절히 우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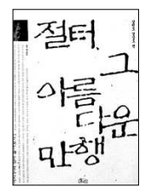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새로나온 책



■ **불교의 이해**(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무우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최기표)가 발간한 불교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불교 문화, 사상과 결합하여 변화하고 발전된 교리들과 수행론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 불교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과 사건 중심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 종파나 학풍이 형성된 배경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책은 1장 붓다의 생애와 승단의 성립, 2장 초기불교의 근본교설과 수행론, 3장 대승불교의 성립과 중심이념, 4장 인도불교의 주요학파와 교리, 5장 동아시아 한문불교와 수행론, 6장 티벳불교, 7장 남방불교의 이해, 8장 현대사회와 불교로 구성돼 있다.



■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강원도, 경상도 편**(이지누, 호미)=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절터 25곳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사진 218점과 함께 담았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이지누 씨는 텅빈 절터에서 쓸쓸함에 사로 잡혀 새벽부터 밤이 이슥하도록 더러는 밤을 지새면서까지 한곳에 머물곤 한다. 자연히 그의 걸음은 사색의 공간으로 채워진 만행이 되었고, 그만큼 자유로움으로 밝아진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절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튼실한 인문학적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깊은 철학적 사유가 돋보이는 이 책은 새로운 차원의 절터 답사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편'과 '경주 편'도 잇달아 발간될 예정이다.



■ **생활의 기술**(크리슈나무르티, 황금나침반)= 달라이 라마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철인이라고 칭송했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전 세계의 스승으로 불리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명상 선집. 크리슈나무르티는 특정 종교나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진리와 자유의 본질, 심오하고 신선한 삶의 태도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명쾌하고 큰 울림을 준다. 그는 논리에 치우친 차가운 스승이나 자기 기만과 권위에 갇혀버린 가짜 스승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자신과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과 가장 인간적인 삶을 해법을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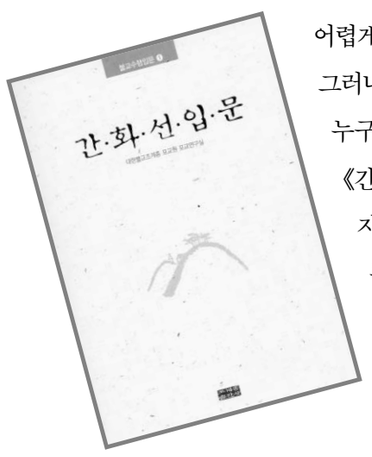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의심 끊고 염불하세	불광, 김지수, 1만원
· 오체투지	작가의 집, 한경혜, 9000원
·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한언, 사라 콘오버, 9800원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무한, 법상스님, 1만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형규,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불교수행입문 1《간화선입문》

생활인을 위한 간화선 입문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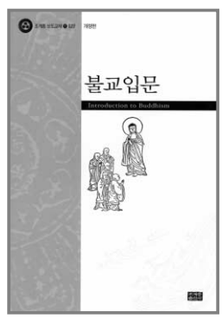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계종 정통선법 간화선!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발심한 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행법입니다.
《간화선입문》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초심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조계종 최초의 간화선 입문서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 조계종출판사 • 정가 8,000원

신도교재 1《불교입문》개정판

불자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불교 입문서!



96년 9월 초판 발행 후 장기 베스트셀러인《불교입문》이 불교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불교 입문자들의 필수 지침서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정가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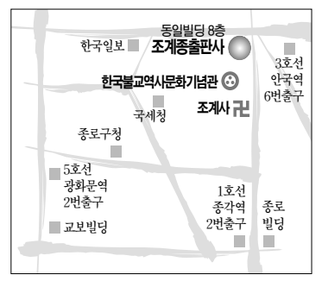
조계종 신도교재 ❷ 교리 **불교의 이해와 신행** • 정가 9,000원
조계종 신도교재 ❸ 역사 **불교사의 이해** • 정가 9,000원
조계종 신도교재 ❶ 문화 **불교문화** • 정가 9,000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 동일빌딩 8층(2006. 3. 30. 이전주소) | 전화 (02)733-6390 | 팩스 (02)720-6019 조계종출판사

조계종출판사가
새 보금자리로 이전합니다

이전일 | 2006년 3월 30일 (목)

조계종출판사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로 종단의 포교활동에 일익하는 주춧돌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출판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T. 02)733-6390(代) | F. 02)720-6019
※ 전화번호도 이전과 함께 변경됩니다.

보기좋고 기능많고 오래가고

한국옻칠화회전으로 본 옻칠세계

2004년 창립한 한국 최초의 칠화 단체인 한국옻칠화회가 세 번째 전시 한국옻칠화회전 '교감'을 3월 11~31일 경기도 남양주 리즈갤러리(031-592-8460)에서 개최하고 있다.

옻칠화는 흔히 알고 있는 나전칠기 등으로 대표되는 옻칠공예를 현대적 회화의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들이다. 가구나 생활용품 등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당당한 회화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004년 한국옻칠화회가 창립될 당시에도 기존 작가들에게조차 옻칠화는 낯설고 생소한 분야였다. 현대 칠공예의 지류쯤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였다.

젊은 작가 15명이 모여 결성한 한국옻칠화회는 창립 후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통 옻칠을 현대적인 틀로 옮겨 담으며 옻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옻칠 본연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거쳐 그들만의 작품성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온 옻칠화회는 옻칠이라는 특별한 재료와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들만의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국 화단에 하나의 장르로 뿌리를 내려 꾸준하게 발전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한다.

한국옻칠화회의 류미경 박사(중국회화사 전공)는 "옻칠을 재료삼아 하는 작품은 어떤 표현매체보다도 작가와 재료간의 절실한 교감을 강조할 것"이라며 "칠한다는 표현보다는 한 층 한 층 쌓아올린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은 옻칠화 작업과정은 천연적인 인간의 교감을 요구한다"는 말로 세 번째 옻칠화 전시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교감에 대한 폭과 깊이의 중요성을 상기해보며 관람하기에 적절한 세 번째 전시회에서는 송완근의 '회(回)', 배은혜의 '心', 박혜신의 '108' 등 작품 14점이 선보인다.

현대화와 전통 계승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옻칠. 옻칠의 세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옻은 옻나무에서 얻는 천연수지 유성도료이다. 이러한 옻을 사용한 옻칠은 한국과 중국 · 일본에서 예로부터 금속이나 목공 도장용(木工塗裝用)으로 소중히 여겨왔던 도료로 특히 칠기류에 많이 사용된다.

옻칠을 하면 방수방습 효과가 탁월하다. 옻이 목재 안으로 스며들어 비닐처럼 막을 형성해서 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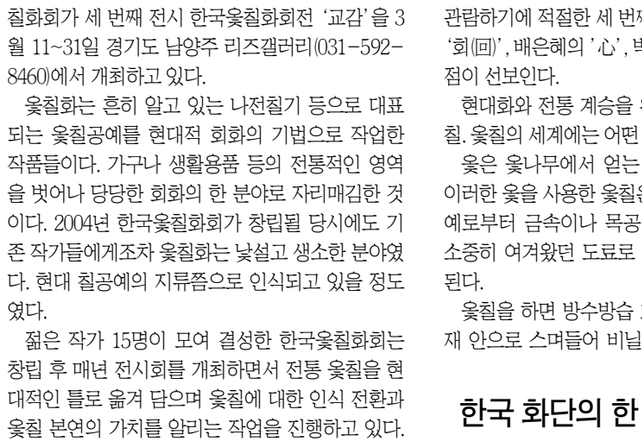
한국 화단의 한 장르로 성장
옻나무서 얻은 천연 도료 사용
생활용품에서 회화까지 다양
불기 · 불구용품 등에 많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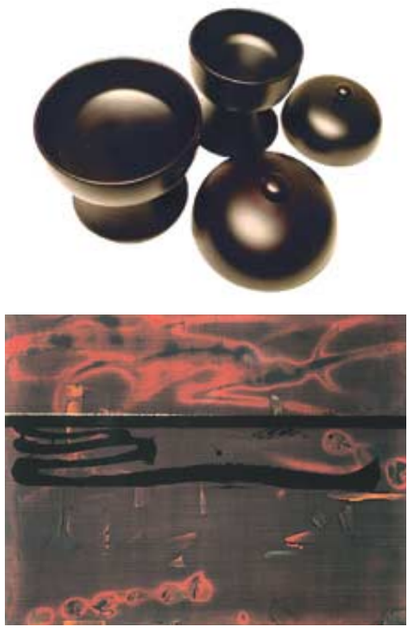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옻칠한 것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등 기능에서도 훌륭한 소재이다.

옻칠의 역사는 청동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옻칠'하면 쉽게 떠올리는 나전칠기가 발달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한 칠기제품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에까지 그 전통의 맥이 활발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때 옻칠 문화를 빼앗긴 탓도 있지만 천연 옻에서 채취한 생칠 대신 화학재료인 '카슘'이 널리 사용되면서 전통 옻칠 작품은 점점 사라져 갔다. 1960년대 자개를 붙이는 나전기법을 남용한 틀에 박힌 디자인의 제품이 생산되면서 작품성마저 떨어져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장에는 칠예가 전용복(일본 이와야마 칠예미술관 회장)씨가 제작한 옻칠 장식


옻칠작업으로 제작한 '오합발우'.


나무에 옻칠로 회화를 그린 이종헌 作 '無題'.

장과 회화가 설치돼 세계 정상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용복씨가 전통 옻칠 기법과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옻칠병풍과 소형 장식장 등 옻칠 회화 · 가구 등은 이후 일반에 공개되면서 그 화려함과 우아함을 인정받았다.

가구와 생활용품에서 회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옻칠을 불교에서는 발우를 비롯해 불단에 올리는 불기와 불구용품 등으로 활용해 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옻칠 불구 제작 공정

①백골 사포-백골의 거친 표면을 칠 작업 전에 곱게 사포질한다. ②초칠-나무에 충분히 스며들게끔 칠을 묽게 해서 바르며, 여기에 쓰이는 칠은 생칠을 한다. ③초칠건조-습도가 약 70~75% 정도 되는 건조장에서 약 3~7시간정도 건조하며, 많게는 18시간 정도 건조하는 경우도 있다. ④토칠-토질은 흙가루와 생옻칠을 곱게 혼합하여 나무의 눈메를 메우는데 쓰인다. ⑤토칠 한 후 사포질-토칠 한 후에 거친 목재표면을 120~320# 정도의 사포로 문질러 목재의 표면을 곱게 갈아준다. ⑥중칠-토칠 후 사포질한 제품을 4~5회 정도 반복하여 칠한다. 이때는 정제 주합칠을 사용한다. 여기서 정제 주합칠을 하는 이유는 칠의 변색이 없고, 강도가 강하며, 투명도가 높아서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기 때문이다. ⑦상칠-이런 위 과정을 거쳐서 7~8회 정도 여러 번 반복하여 칠한 후 완성품을 만들어 낸다.

흥겨운 '퍼포먼스'의 場

봉은사, 故백남준 49재 현장

작품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 100여 시민 참여 재연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엄숙하게 진행되는 49재가 한바탕 흥겨운 '퍼포먼스'의 장으로 열렸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 예술가 故 백남준 선생의 49재는 역시 달랐다.

1000여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8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열린 백남준 선생의 49재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불교를 표현하는 수많은 작품을 내놓았던 백남준 씨의 49재를 봉은사에서 봉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백남준 선생의 조카 켄 백 하쿠다 씨도 "삼촌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 행사는 창의적이면서도 함께 즐기는 행사로 준비했다"며 환영했다.

무속인 이비나씨의 진혼굿으로 막을 올린 이날 49재는 하쿠다씨가 바이올린에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는 '바이올린과 끈'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 1962년 백남준 선생이 직접 보여줬던 퍼포먼스 '바이올린을 위한 하나'를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재연하기도 했다. 이 퍼포먼스는 바이올린을 내리쳐서 부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촛불과 온몸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 후 모형 촛불탑에 촛불을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친구들과 함께 봉은사를 찾은 조주영(25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씨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그대로 진행된 49재였다"며 "앞으로도 백남준 선생의 미공개 작품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남준 선생의 불교사상을 느끼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힌 서울 반야사 주지 원욱 스님도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날 49재에는 봉은사 주지 원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백남준 선생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조카 켄 백 하쿠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존 헨허트, 백남준 스튜디오 큐레이터 존 호프먼씨 등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바이올린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남준 스튜디오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진혼굿.


한 시민이 발로 건반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초 스님 작법무 공연

삼론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인천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이 3월 31일 오후 7시30분, 4월 1일 오후 4시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인천시립무용단 창단 25주년 기념 '2006 우리 소리와 춤의 어울림' 공연에서 작법무를 선보인다.

이날 일초 스님은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으로 공연 1부를 열 예정이다. 일초 스님의 공연 뒤에는 능화 스님(인천무형문화재 제10-가호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의 법고무가 이어진다.

2006 독일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기도 하는 '2006 우리 소리와 춤의 어울림'은 국악관현악단과 화가 2인의 그림굿을 비롯해 국악가요 민요 합창 무용 등이 공연된다. (032)438-7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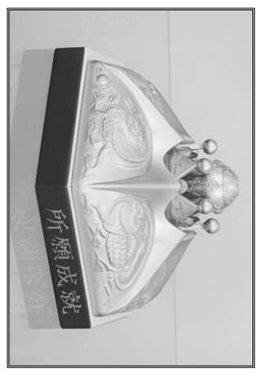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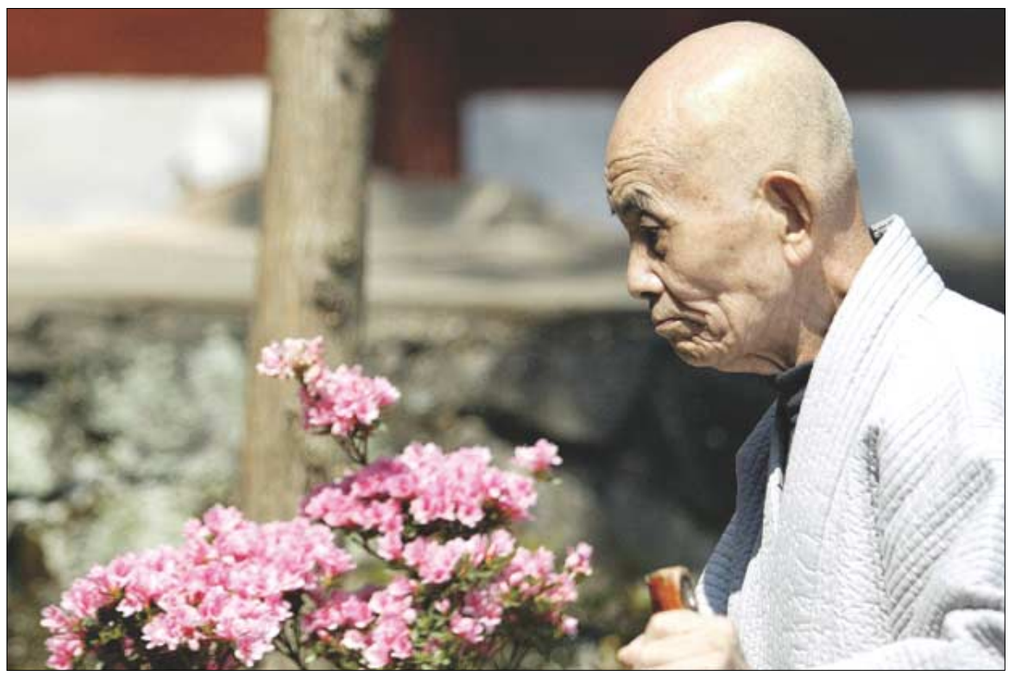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6년 4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6년 4월 11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세계적인 위빠싸나 큰 스승 우 빤디따 사야도
초청 명상 수행 안내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타에서는 봉인사의 후원으로 세계적인 위빠싸나 수행의 큰 스승이신 빤디따라마 쉐다웅꼰 사야도지(우 빤디따 사야도)를 모시고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42일간의 집중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 수행 기간 동안 교학과 수행이 높으신 우 따마네죠 사야도와 두 분의 세얄레이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야도지와 함께하는집중 수행은 마하시 방법의 위빠싸나 명상 수행이며 위빠싸나 수행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일어나는 대로 주의 기울임으로써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입니다.

계율이 청정하시며 또한 자애로우신 사야도지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귀한 기회이오니 좋은 인연 맺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 센타 · 봉인사 합장
1. 수행 기간 : 2006년 4월 15일 - 5월 26일(42일간)
2. 수 행 처 : 봉인사 (www.bonginsa.net, 031-574-5585)
3. 접수일과 접수처(문의) : 3월 14일 - 3월 31일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사나 명상센타
전화 : 02)2235(2232)-2841 / 이메일 : byunsh1@hanmail.net
http://www.panditarama.com
※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써 선업 공덕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빤디따라마 서울 위빠싸나 명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손짓 하나로 무심법문


단조로운 생활 속에 염불의 끈을 놓지 않는 벽봉 스님. 노스님의 잔잔한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벽봉 스님 (대구 대원사 조실)

평생 무소유 실천…내 것 사본 적 없어

자나 깨나 쉼없이 염불, 일상 자체가 수행


오전과 오후 한시간씩의 포행은 소중한 일과다.

기자가 팔공산 자락의 대원사를 찾았을 때, 자그마한 체구의 벽봉(碧峰 · 84)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한바퀴 돌아 다시 도량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빠르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오전 포행을 다녀 오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정지되어 있는 듯 고요하고 스님의 눈은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이어진 듯 그윽하다. 법당 앞에서 기자를 본 스님은 봄볕처럼 따뜻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동자의 천진면목이 드러나는 웃음이랄까.

벽봉 스님은 3년 전 신축법당 지하에 고인 빗물을 밤새 퍼내다 쓰러져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다. 이후 스님은 더 이상 발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포행을 중요한 일과로 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는 생활 속 수행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벽봉 스님의 일상은 하루 두 번 한 시간 남짓 동네 한바퀴를 도는 포행시간을 제외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염불하고 책보고 공양하는 것이 전부다. 스님의 수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

포행 후 요사채로 들어와 초를 켜고 향을 사르는 스님에게 조용히 여쭈었다.

"스님, 늘 방편으로 삼는 화두가 있으십니까?"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하'라고 염하지."

"무슨 뜻인가요?"

"뜻? 없어요. 진언이지"

생각 너머 본래면목을 찾는 정진을 쉼없이 이어가고 있음을 스님의 말 한마디에 알 수 있었다. 산책을 할 때, 스님이 쉼없이 입을 오물거렸던 이유도 이제 알았다. 스님은 "3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조차도 오직 염불삼매에 몰입했고, 6시간 만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날 수 있었다"고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신다.

"나는 무조건 부지런하면 좋은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새벽4시쯤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새벽2시에도 1시에도 일어나 일을 했더니 그만 어지러워 눕게 됐거든요."

3년전이라야 그때도 여든이 넘은 나이인데 새벽 1~2시에 일을 하면 몸에 큰 부담이 올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스님은 직접 몸을 움직여 사찰을 돌보며 밥일을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셨다.

불현듯 노스님의 출가인연이 궁금해졌다.

"열 서너 살 쯤 되던 해에 해인사 약수암으로 출가한 누님을 따라 절에 가게 됐지요. 그게 인연이 됐어. 어려운 시절 집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잘한 일이야."

스님의 출가는 전생에서 이어지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또, 어릴 때부터 무작정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스님은 나이 30이 넘어 중학교에 들어가고, 40이 넘어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명대 교육대학원까지 수료하는 열성을 보였다. 스님은 서양학문을 공부하면서 불교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를 더욱 느끼게 됐다며 철학은 불교와 비슷하지만 그 깊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18년째 스님을 시봉해온 이춘자(61)보살은 벽봉 스님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없이 부지런하고 머슴처럼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년 전만해도 아침 저녁 예불시간과 하루 세 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산에서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옷은 항상 더럽혀져 있었지요. 그런데도 스님은 한사코 그 옷을 그냥 입고 다니셨어요. '검은 물 들인 셈 치면 된다'면서요. 괜히 시봉하는 보살들이나 스님 체면 생각해 안달이었지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검으면 검어서 좋고 희면 희어서 좋은 분이었다. 게다가 평소 말 없는 분으로도 통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와도 뭐라 하는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법도 없다. 또 왜 이렇게 했느냐 추궁하는 일도 없다. 말은 없지만 실천으로 보여주는 스님의 가르침에 신도들이 모두 좋아하고 상좌들의 존경심은 대단했다.

80노구에도 직접 예불하고, 필요하면 손수 몸으로 행으로 보여주시는 벽봉 스님이 자비스런 시골 할아버지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스님의 검소함 또한 정평이 나 있다.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절대 내 것을 사는 법이 없었던 스님은 그저 일하고 기도하고 불사하는 것 밖에 몰랐다. 평생 옷 한 벌 먹을 것 하나 사는 법이 없었던 스님은 혹 외출해야 할때면 꼭 버스만 타고 다녔다, 그것도 입석 버스만.

벽봉 스님은 평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로 무심의 법을 은연중 설했다. 상좌들에게 늘 이르듯 평생 생활 가운데 바른 것을 실천하며 오롯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벽봉 스님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행의 바른 지침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수행을 쉼 없이 일관하는 노스님의 자취에서 푸른 향의 서늘함을 이렇게나마 느낄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백장선사 가르침 실천

벽봉 스님은 1923년 성주에서 출생한 벽봉 스님은 1936년 해인사에서 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3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8년 석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49년까지 해인사에서 5하안거를 성만하고, 해인사 강원 사집과를 수료했다.

거창 연수사 칠곡 송림사, 대구보현사 주지를 거쳐 동화사 주지를 역임하고 76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종정 사서실장을 91년에는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소임을 맡기도 했다.

벽봉 스님은 1993년 대원사 주지에 취임한후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 조실로 뭇수행자들의 바른 지침이 되고 있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품질,가격,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보현사 • 선운사
• 도솔암 • 계암사
• 안국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5월 15일 출발 실크로드 성지 순례 12일
(5월 6일까지 마감)
동참금 : ₩1,990,000원 (개인 경비 외 모두 포함)
순례 코스
□ 서안 – 법문사 불지사리, 병마용
□ 난주 – 불교 벽화의 진수 병영사 석굴
□ 돈황 – 돈황 예술의 결정 막고굴 , 신비의 산 명사산
□ 투루판 – 천불동, 아스타나 고분군, 서유기로 유명한 화염산
□ 쿠얼러 – 버스팅 호수
□ 쿠차 – 천산 신비 대 협곡, 키질 석굴
□ 카스 – 향비묘, 청진사, 카리쿠리 호수
□ 우루무치 – 천산천지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북경 사찰 순례및 관광 7일
(유람선 이용 금요일 출발)
₩450,000원
(가이드 기사 팁 포함, 비자, TAX 별도)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 진리 담겨 있어

벽봉 스님의 가르침

어릴 때부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지요. 철학은 불교와 매우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그 깊이가 불교를 따르지 못합니다. 반면, 불교는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평생 스스로 닦아가야 하는데,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나의 은사 석우 스님께서는 항상 "이놈아 잘해라"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지요. 나는 상좌들에게 "수행은 누가 대신 할수도 없고 본인이 바르게 하는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이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바른 것이 있으니 항상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것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깨침을 얻으려는 수행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는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본다면 작은 옥수수 한 알에도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고 하찮은 옥수수 하나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연히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옮겨져 생활속에서 스스로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요, 수행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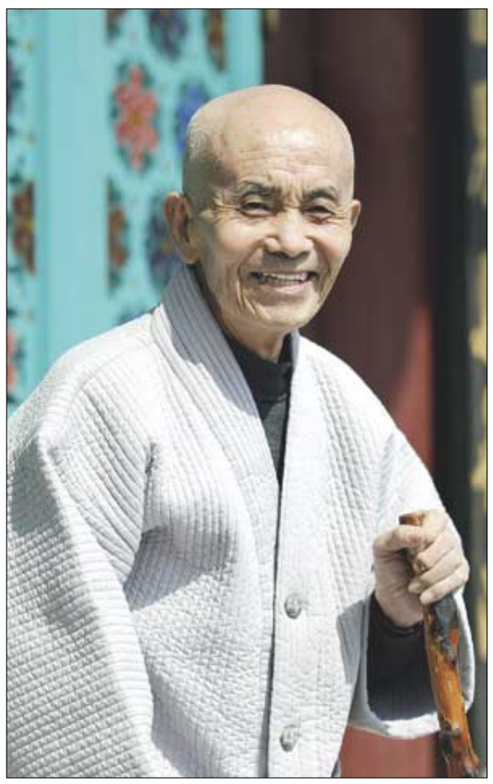
그런데 모두 자기 앞에 놓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르침이나 수행이 멀리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돈을 삶의 척도로 삼고 생활하다 보니 끝없는 욕심으로 번뇌에 끄달리지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을 탐하는 법이니까요. 자기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써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항상 번뇌에 끄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선사의 가르침대로 살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시간과 하루 세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밭에서 일을 했지요. 가을에는 밭작물을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땅을 파서 다음해 농사를 대비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 한 대공과 옥수수알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수행, 기도와 정진이 따로 없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힘든 일도 생기지요. 모두 수행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모두 끊임없이 배우는 수행의 과정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렵다 힘들다 생각했던 일들이 저절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불자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벽봉 스님.

예전처럼 일을 못하게 된 요즘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상 속에서 단조롭다 지겹다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두 번의 포행시간에서 또 다른 수행의 맛을 느낍니다. 내가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정성을 다하지요.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을 염하는 가운데 건강도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일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일을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곤 하는데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불자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을 철저히 믿고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늘 잠선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연법을 확실히 믿기만 해도 삶 자체가 조심스럽고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녔음을 알게 되고, 당연히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혜도 갖추고 착한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깊은 믿음이 있어야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가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대사와 양무제 사이에 오고간 유명한 이야기를 통한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달마가 불심이 강하고 공덕을 많이 쌓은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고 한 까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수행을 통한 무루(無漏)의 공덕이야말로 참 공덕이며, 밖으로 쌓는 공덕은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루(有漏)의 공덕일 뿐이라는 간절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출가자라면 불사도 좋고 포교도 좋지만 먼저 치열한 수행을 통한 자신의 본래면목을 활연관통(豁然貫通)해야 올바른 포교와 불사를 할 수 있고, 참된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배지선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8>



업, 전생의 죄갚음일까?

몇 달 전,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절의 한 여자신도가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불교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참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들려준 스님의 해결책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를 갚는 것이니까 참으십시오."

그러니 매 맞고 사는 그 여자는 전생에 매 맞을 짓을 하였으니 이번 생에 그 매를 다 맞아야 업에서 풀려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전을 읽다보면 부처님이 전생을 말씀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여인을 둘째 아내로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집안에 남편 한 사람과 두 명의 아내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아가려니 뜻밖에도 첫째 아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하녀 신세가 되고 말거야.'

그리하여 둘째 아내의 임신을 방해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임신까지는 용케 낙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임신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둘째 아내와 아기 둘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내는 죽어가면서 한없는 원한을 품었고, 남편도 결국 그녀의 잔인한 행실을 알아채고는 모질게 매질하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두 여인은 태어날 때마다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죽은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암탉의 알을 고양이가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여봐란 듯이 복수를 한 것이지요. 곧이어 암탉은 표범으로 고양이는 사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역시 통쾌하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여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면서 원한과 복수를 맘껏 갚았습니다.('법구경' 거해스님 편역, 고려원)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내가 현재 만난 불행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생에 있으니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감수해낼 수밖에는 없다'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런 전생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 현명하게 선업을 지어서 그 끔찍한 반복을 끊으려고 힘쓰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지 '그러니 그냥 당하고 살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건, 악한 의도건,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업'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업인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건, 영웅의 삶을 살았건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업이든 '현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매 맞는 여자의 경우, 정말 그 여자가 전생에 매 맞을 짓을 해서 피할 도리가 없다면 그 남편이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나 성격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도 그 아내를 때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담과 심리분석을 통해 치유해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때릴 거라는 말이 됩니다.

매맞는 아내, 전생의 죄값이니 참아야 할까요?
폭력 원인 찾아 해결하기 위해 '업' 일으켜야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 맞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전생의 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왜 이리 폭력적인지 그 이유를 빨리 찾아서 치료와 상담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에 문제는 없었는지, 부부간의 대화법에 무슨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하다못해 환경이나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는지, 다각도로 남편의 폭력을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매 맞는 아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거칠어가는 이 사회도 함께 문제풀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질을 참고 당해내는 것이 어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악업을 조장하는 '죄'는 또 어찌 하시렵니까? 업은 전생의 죄갚음을 말해주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부처님의 명쾌한 문제해결법인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한국불교박람회 (부스번호 3동 N8호) 제품 다수 전시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가득할 만) 行(행) 靴(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종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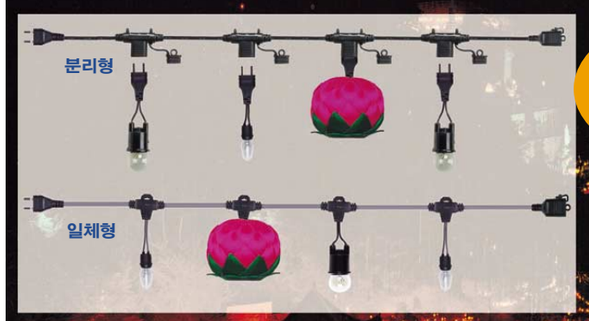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일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견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제다법 공유해야 품질 · 수익 높인다”



무료 제다교육원 운영 혜우 스님
제다 노하우 담은 ‘다반사(茶飯事)’ 펴내



지난해 전남 순천의 섬진강가에 제다교육원을 마련한 혜우 스님은 20여년간 체득한 제다 노하우를 공개하고 제다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구부터 관리법까지 자세히
‘마무리는 세번을’ 등 비법 공개
“신비주의 버릴 때 차문화 발전”

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제다 노하우는 ‘며느리도 모르는’ 1급 비밀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체득한 제다법은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섣불리 남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막 차 농사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답답한 노릇. 제다업체들 대부분이 워낙 영세하다보니 다른 일꾼을 두려 하지도 않고, 더구나 차를 만드는 ‘핵심 노하우’라 할 수 있는 마무리 작업은 타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그저 혼자 부딪치고 실패하며 배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다 초보’를 위해 지난해 순천시 황전면 비룡초등학교 폐교에 ‘혜우 전통 덖음차 제다교육원(www.haewooschool.co.kr)’을 연 혜우 스님이 이번엔 아예 제다 노하우를 책으로 펴냈다. <혜우 스님의 다 반 사(茶 飯 事)>(초롱刊)다.

“소규모로 수제차를 만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어깨너머로 제다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차도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남 · 경남 지역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농가에 차 생산을 장려하지만, 차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제다법을 몰라 찻잎을 제다공장이나 농협에 내다 파는 일차산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 농사는 생산량 증가를 위해 비료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혜우 스님은 “농가가 직접 제다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인 생산량 증대 대신 더욱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이다”며 “제다법이 공유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차 농사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차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에서부터 찻잎을 솥에서 덖고 비비고 건조하는 제다공정, 솥의 온도, 제다도구를 관리하는 법 등 20여년 가까이 차를 만들며 체득한 노하우를 속속들이 공개했다. 맛과 향을 결정짓는 마무리 공정은 세 번에 걸쳐 해야 한다는 등의 세세한 비법이 담겨 있다.

“일류 요리사에게 요리를 배웠다고 누구나 일류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다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시작한다면 괜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도 수준 이하의 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적어질 것입니다.”

‘제다법 공유’와 함께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차의 신비주의 탈피’다. 다선일미(茶禪一味)로 대표되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차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맹신을 걷어낸 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차문화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단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셔보십시오.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차를 마신다면 대화가 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차가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 밖에도 스님은 책에서 ‘우전’ ‘세작’ 등으로 구분할 때 찻잎의 크기로 분류하는 대신 ‘첫물차’ ‘두물차’ ‘여름차’ 등으로 나누자고 제언한다. 찻잎이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맛과 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이 열리고 있는 차 품평회에 대해서도 우리 차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안주하는 대신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또 하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철저히 저의 개인적 체험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사호 명인특별展

중국 자사차호의 대가인 고소배(강소성 공예미술대사) 양근방(고급공예미술사) 저립지(고급공예미술사)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명가원(대표 김경우)과 동양차도구연구소(소장 박홍관)가 공동주최하는 ‘자사호 명인 특별전’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3인을 비롯해 전수생들의 자사호 작품 2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우 대표는 “수준 높은 작품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자사호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02)736-5705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1. 보이차 속의 칠자병차 ③



여러 형태의 보이차.

운남성 정부가 ‘운남성보이차제조공법시행규칙’을 1979년에 이르러 발표한 것을 보면 쾌속발효공법이 비록 1973년 곤명차창에서 개발됐으나 기술상의 제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여러 해의 시험을 거쳐 비로소 정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이차의 쾌속발효공법 개발에 대한 일화는 수없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정확한 시기마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일화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1973년(일설은 1974년), 운남성차엽진출구공사(雲南省茶葉進出口公司)의 부경리 송문경(宋文庚)과 오기부(敖其富)씨가 중국차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시장에서 얻은 광동지역에서 만든 보이차 샘플을 가지고 당시 곤명차창(昆明茶廠) 공장장인 이희금(李希金)씨에게 보여줘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고 타진했다. 이 창장이 오계영(吳啓英, 2005년 작고)을 불러 샘플을 살펴본 결과 차의 외형이 튼실하고 색은 흑갈색이었으며 등급은 9~10급 정도의 쇄청모차(曬青毛茶)로 만든 것 같았다. 당시 곤명차창에 마침 400톤 정도의 9~10급의 청모차(青毛茶) 즉 쇄청모차가 창고에 쌓여있어 처리하는데 골칫거리였을 때였다. 이 원료는 계획대로라면 청전(青磚) 즉 오늘날의 생전(生磚)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창고 내에 있는 원료를 소화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이 제의는 곤명차창으로 하여금 보이차 미생물발효의 시험용 원료로 삼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미생물공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들은 발수차(發水茶)의 근거지인 광동지역에 맹해차창(勐海茶廠)의 추병량(鄒炳良)과 동행하여 학습한 후 열발효(熱酸酵)를 개발했다. 열발효란 쇄청모차 원료에 수증기를 가해 일정한 시간을 산화시켜 모차의 외형을 흑갈색으로 만드는 공법을 말한다. 이 공법을 수차례 실습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쾌속발효인 미생물발효공법이다.

미생물 발효 보이차 1차 공정 녹차와 같아
반제품 쇄청모차 악퇴(渥堆)공법 거쳐 완성

미생물발효 보이차를 만드는 1차 공정은 녹차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찻잎 원료는 대부분 함수량이 적은 쇤 찻잎이기에 먼저 10% 정도의 물을 뿌려 찻잎의 함수량을 높인 후 고온의 솥에서 찻잎 속에 있는 효소 성분을 억제시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청(殺靑)이라는 공정을 한다. 이어 비비는 유념과정을 거쳐 세포조직을 약 15~30%를 파괴시키는 동시에 찻잎을 줄기 모양으로 만든다. 유념된 찻잎을 햇빛 아래에 건조해 함수량이 10%정도가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반제품의 차를 가리켜 모차(毛茶), 또는 쇄청모차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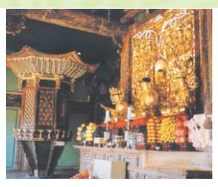
쇄청모차를 악퇴(渥堆, 미생물발효)의 공정을 거쳐 만든 것이 ‘쾌속발효보이차’다. ‘악퇴’ 공법이란 물과 습열 등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미생물들이 촉매작용을 일으켜 찻잎 속의 화학물질들로 하여금 산화, 분해 등의 일련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악퇴 또는 퇴적이라고 하는 과정은 주로 곰팡이에 의한 호기성(好氣性)발효로 이루어진다. 특히 보이차일 경우 다섯 검체에서 Aspergillus속 15종, Penicillium속 4종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차의 주요한 미생물이 곰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40~60일 정도 발효의 공정을 거쳐 완성한 잎차를 가리켜 보이산차(普洱散茶)라고 하나 상업적으로는 보이숙차(普洱熟茶)라고 한다. 수증기를 통해 압제한 것을 긴압차(緊壓茶) 혹 압제차(壓制茶)라고 하며 학술적인 명칭은 긴압보이차라고 한다. 모양에 따라 둥근 것은 숙병(熟餠), 벽돌모양은 숙전(熟磚), 그릇처럼 생긴 것은 숙타(熟沱)라고 한다.

■ 한서대학교

용문사 윤장대에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매일매일 108배 몸 튼튼 마음엔 평화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펴낸 김재성 한의사

자신을 낮추고 나태함을 털어내는 수행법인 108배. 108배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일 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한다. 미소짓는한의원 김재성 원장(한의학 박사)은 최근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아롬미디어)이란 책을 내고 '절 수행 포교'에 나섰다.

김 원장이 절 수행법을 '발견'하게 된 것은 친한 친구인 강민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덕분이다. 2001년, 성인병으로 쓰러진 강 판사가 3개월간의 108배 수행으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108배의 효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김 원장은 직접 108배를 실천해보게 된다.

늘 피로에 못 이겨하던 김 원장은 108배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게 됐고, 2주가 지나자 소변이 맑게 변했다. 2개월이 지나자 듬성듬성하던 머리숱이 몰라보게 무성해졌으며, 만성적인 요통도 사라졌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은 물론이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108배를 권한 후 고혈압이나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이 치료되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108배는 한의학적 운동법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운동"이라는 그의 말이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김 원장은 "108배는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진 생명력과 자연치유력을 최대한 회복, 강화시켜 질병의 치유를 도모하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고 말한다. 온몸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신운동을 통해 신체 각 부분을 단련시키는 한편 마음과 정신의 안정을 이룸으로서 인체가 가진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때문이다.

108배를 하면 우선 하체가 강화되고 전신의 기혈 순환이 활발하게 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속의 독이 배출된다. 양손을 맞붙이는 합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분노와 정서적인 긴장을 이완시켜주므로 중년기의 홧병이나 사춘기 아이들의 정서불안, 신경질적인 성격, 집중력 장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몸을 앞으로 구부려 허리와 무릎, 발목을 차례로 구부리는 동작은 중단전 부위를 자극해 울체된 기로 인한 명치 부위의 뻐근함과 홧병, 가슴앓이 등을 치유할 수 있다.

기혈 순환 돕고 세포 속 독소 배출
인체 면역력 · 자연치유력 극대화
만성 피로 · 성인병 치료 효과 탁월

몸을 기울여 땅을 향해 머리와 무릎, 발목을 접는 과정에서는 족(足) 6경(위경, 비경, 방광경, 신경, 담경, 간경)과 하단전이 자극돼 소화기능과 비뇨생식기능, 해독기능 등을 좋아지게 하고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몸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가락을 구부릴 때 자극되는 용천혈은 인체의 생명력을 강하게 자극한다. 이처럼 절을 하는 모든 동작은 정수리의 백회에서 발바닥의 용천혈, 사지말단의 정혈 등을 고루 자극하는 완벽한 몸운동이라고 김 원장은 말한다.

사실 절 수행의 효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불자들이 절 수행을 통해 신체 ·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매일 실천하는 108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보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료제공=아롬미디어

절, 이렇게 하세요



1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다.



2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는다. 발끝을 세워 딛고 시선을 정면을 본다.



3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4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이마를 바닥에 대고 깊이 숙인다. 이때 오른발이 아래로 오게 포갠다.



5 양 손바닥을 뒤집어 젖히고 귀 높이까지 올린다.



6 하늘을 향해 올린 손을 내려 바닥에 댄다.



8 오른손을 가져와 모은다.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며 일어난다.

7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고 왼손을 가슴으로 가져오며 상체를 세운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2>

무채 된장국밥과 상추겉절이

제가 서울에 올라와 생활한지도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수유리였습니다. 제가 사는 군포에서 수유리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해 몸도 힘들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강사의 입장에서 무척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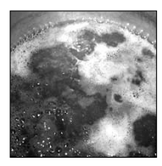


그날도 말 안 듣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은 반의 40명이 좀 넘는 아이들은 제가 매 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저에게 맞은 뒤에 오히려 절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매를 든 저의 손에 단주가 있는 걸 보고 한 아이가 "수유리에 있는 멋진 절에 가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안내로 찾아간 곳이 바로 도선사입니다. 저를 도선사로 안내한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 중 한 명이었는데, 미륵부처님 앞에서 저와 촛불공양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갈 수 있대요. 우리 엄마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요. 저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 도선사 곳곳을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선사 식당에서 공양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음식이 된장국과 밥 그리고 묵은 동치미 무를 채 썬 반찬이었습니다. 오래된 동치미 무와 심심하게 끓인 된장국이 어찌 그리 맛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전 아이들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도선사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제 나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부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동자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드는법



<무채 된장국밥> 재료: 밥 1공기, 묵은 동치미 무 1/4쪽, 새송이버섯 2개, 청 · 홍고추, 죽염, 된장 1큰술, 표고버섯가루, 산초가루, 채수 2컵

① 채수에 된장을 풀고 표고버섯가루를 넣어 끓여준다. ② 동치미 무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채 썬다. ③ 새송이버섯은 무 굵기로 채 썬다. ④ 된장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무채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새송이를 넣어 끓여준다. ⑤ 불을 끄기 전에 산초가루를 넣어주고 기호에 따라 죽염으로 간을 한다. ⑥ 그릇에 밥을 담고 된장국을 퍼주어 국밥을 완성하고 청 · 홍고추를 썰어 고명으로 올린다.



<상추 겉절이> 재료: 상추 5장, 청 · 홍고추 각각 1개씩, 감자 1/2개, 고춧가루, 양념장(간장 1큰술, 통깨, 황설탕, 다진 대파 흰부분 약간, 참기름)

① 상추는 한 입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둔다. ② 청 ·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후 아주 곱게 채를 썰어 물에 담가둔다. ③ 감자는 아주 가늘게 채 썰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전분기를 뺀 후 물에 담가둔다. ④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⑤ 상추, 청 · 홍고추, 감자채의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양념장에 버무려 준다.(이때 감자와 청 · 홍고추를 먼저 버무리고 나중에 상추를 살짝 버무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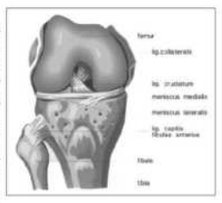
▶다음 주에는 양배추사과샐러드와 양배추피클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활향, 등게, 삼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옹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삼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축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수시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황사는 이제 그만, 전국에 불어오는 봄바람에 꽃향기가 넘실거리며 흘러온다. 수줍은 듯 꽃봉오리를 터트리는 봄꽃들의 신나는 한바탕 잔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대에 따르면 올해는 3월 초순까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남부 지방에서는 3월 28~4월 3일, 중부 지방에서는 4월 4~13일, 중부 내륙산간에서는 4월 13일 이후 벚꽃을 볼 수 있다.

봄꽃을 만끽할 수 있는 꽃축제는 경기도 이천에서 첫 꽃망울을 터뜨린다. 3월 26일~4월 5일 경기도 이천 백사 산수유 축제, 3월 25일~4월 2일 구례 산수유꽃 축제 등에서 산수유 꽃이 노랗게 피어나는 광경에 빠져들 수 있다. 구례에서는 산수유꽃과 함께 화엄사에도 들러보면 어떨까. 봄맞이에 나서는 화엄사의 도량도 온통 꽃대궐이다.

지역따라 4월 중순까지 벚꽃 구경
27일 여수 영취산은 진달래 물결
서울시 선정 꽃길 81곳 설렘 가득

봄꽃의 대표주자 벚꽃은 3월 31일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진해 군항제를 시작으로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전북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등에서 화사한 꽃망울을 줄줄이 터뜨린다.

봄산을 꽃분홍으로 감싸안을 진달래는 3월 27일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로부터 시작된다. 진달래 화전 체험, 진달래 사진촬영대회, 사진전 등이 수만 그루의 군락을 이룬 진달래 군락에서 펼쳐진다. 3만여평이 진달래로 뒤덮인 거제시 대금산에도, 창원시 비음산 진례산성에도 분홍 진달래 잔치가 벌어진다.

호젓한 산책을 원한다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봄꽃길 81곳을 주목해보자. 남산공원 하늘공원 등 공원 21곳, 여의도 윤중로, 광진구 워커힐길 등 가로변 29개소, 청계천 중랑천 등 하천변 24곳 등이 거닐고 싶은 봄꽃길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4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4월의 봄꽃 구경'이란 주제로 △벚꽃 천 리, 합천 여행-4월 초(055-930-3756) △벚꽃비 내리는 충남 공주시 춘마곡(春麻谷)-4월 중순(041-840-2544) △경북 영주 사과꽃 향기에 내마음은 무장해제-4월 하순(054-639-6062) △전남 보성 화사한 철쭉꽃과 함께 봄의 왈츠를-4월 말(061-850-5223~6) 등 4곳을 선정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봄꽃 축제

3월 25일~4월 7일	동백꽃 주꾸미축제	충남 서천군	041-950-4224
3월 25일~4월 2일	구례산수유꽃 축제	전남 구례군	061-780-2227
3월 27일~4월 8일	영취산 진달래축제	전남 여수시	061-691-3104
3월 31일~4월 2일	화개장터벚꽃축제	경남 하동군	055-880-2375
3월 31일~4월 9일	진해 군항제	경남 진해시	055-548-2042
4월 1일~5월 13일	대원사 벚꽃축제	보성 대원사	061-852-3038
4월 초순	경포대 벚꽃축제	강원도 강릉시	033-640-4468
4월 5~16일	동학사 봄꽃축제	충남 공주시	041-840-2841
4월 7~9일	신탄진 봄꽃제	대전 대덕구	042-627-7517
4월 7~9일	백사 산수유꽃축제	경기도 이천시	031-633-0100
4월 7~9일	섬진강변 벚꽃축제	전남 구례군	061-780-2602
4월 7~16일	벚꽃축제	전남 군산시	063-450-6125
4월 8일	대금산 진달래축제	경남 거제시	055-639-3363
4월 9일	모악산 진달래축제	완주 대원사	063-221-8502
4월 10일~하순	유채꽃축제	강원도 삼척시	033-570-3382
4월 15일	마이산 벚꽃축제	전북 진안군	063-430-2322
4월 15~16일	청풍호반벚꽃축제	충북 제천시	043-640-4370
4월 15일~하순	비단고을 산꽃축제	충남 금산군	041-750-2391
4월 15일~하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인천광역시	032-440-4942
4월 16일	진례산성 진달래축제	경남 창원시 비음산	055-284-8870
4월 16일	월미벚꽃축제	인천광역시	032-765-4131
4월 20일 전후	비슬산참꽃제	대구 달성군	053-611-0010
4월 20~23일	차이나타운벚꽃축제	인천시 자유공원	032-760-7132
4월 22일~5월 14일	유채꽃 축제	충북 청원군	043-251-3784
4월 29일~5월 1일	주왕산 수달래제	경북 청송시	054-870-6068
4월 하순	치악산복사꽃축제	강원도 원주시	033-741-2602
5월 초순	한강 서래섬유채꽃축제	서울	02-3780-0776
5월 초순	관악산철쭉제	서울시 관악구	02-885-5975
5월 초순	대운산철쭉제	울산 울주군	052-229-7411
5월 6~7일	제암철쭉제	전남 장흥군	061-860-0224
5월 7일~중순	황매산철쭉제	경남 합천군	055-930-3756
5월 13~14일	구리 한강 유채꽃축제	경기 구리시	031-550-2065
5월 중순	연인산 들꽃축제	경기도 가평군	031-580-2067
5월 26~28일	소백산 철쭉제	경북 영주시	054-639-6064

서울의 봄꽃길

남산공원	벚꽃 개나리 진달래	3월 말~4월 초
인왕스카이웨이	개나리 진달래	3월 말~4월 초
삼청공원	벚꽃	3월 말~4월 초
워커힐길	벚꽃	3월 말~4월 초
서울대공원 외곽순환도로	진달래 철쭉 벚꽃	3월 말~5월 중
어린이대공원	진달래 철쭉 벚꽃	3월 말~5월 말
중랑천 제방(묵동~면목동)	복사·살구나무 원추리꽃	3월 말~7월 초
안양천 제방길(금천교~안양천교)	왕벚꽃	3월 말~4월 초
양재천변	왕벚꽃 개나리	3월 말~4월 초
송파나루 공원	벚꽃	3월 말~4월 초
여의도 윤중로	벚꽃	4월 초
청계천가로변(청계광장~고산자교)	이팝·매자·명자나무	4월 초~5월 말
청계천변(청계광장~신답철교)	사과·조팝나무 야생화	4월 초~6월 말
서울숲 생태숲구간	산벚나무 철쭉	4월 초~5월 말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유채꽃	4월 말~5월 중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어산림욕길	유채꽃	5월 초~6월 초

KTX 봄꽃 열차(www.korail.go.kr, 1544-7788)

내소사 벚꽃, 서해바다 낭만 기차여행(1일)	4월 8~23일
지리산 구례 산수유꽃(1일)	매일
선운사 동백+내소사 왕벚꽃 열차여행(1일)	4월 1~30일
쌍계사 십리벚꽃길 나들이 여행(1일)	매일
진해 군항제 벚꽃 기차여행	3월 31일~4월 9일
화개장터 벚꽃십리길 열차여행(1일)	4월 1~16일

문화 단신

청소년 가장돕기 선서화展(4월5~11일)

前 서울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의 이채로운 한글 휘호, 독특한 작품세계와 기행으로 인해 '걸레스님'으로 많이 알려진 중광 스님의 파격적인 선화, 담원 김창배 화백의 수묵화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산하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혜성 스님이 30여 년간 모아 온 수집품들로 열리는 '청소년가장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이다.

4월 5~11일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선서화전에는 탄허 월하 석주 석정 설산 범주 수안 경허 서암 청화 월화 월서 도건 스님 등 고승들과 우현 송영방, 금추 이남호 등 유명 작가들 작품 300여 점이 전시된다.

혜성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개원 60주년을 맞아 한 점 한 점 소중하게 모은 작품들을 내놓고 수익금을 전액 청소년가장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02)399-1165~6 이은비 기자

생명나눔 기금마련 경선 스님 작품展

암자로 가는 겨울날 북한산 산행로의 풍광,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관악산 연주암의 자태, 어느 날 쌍계사를 돌아내려오는 길에서 보았던 버들강아지 돋아있는 들판…. 경선 스님(서울 무애원 주지)의 작품 한 폭 한 폭 속에는 구도여행을 떠난 스님의 열정이 녹아있다.

20여 년간 실경산수화 작업을 해온 경선 스님의 첫 개인전이 서울 공평아트센터 2층 A실에서 4월 5~11일 열린다. 20여 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밟으며 월정사, 간월암 등 심산유곡의 명당자리마다 알알이 박혀 있는 국내 기도처의 풍경을 실경산수화 그린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비운다는 것' '삼매에 젖어' '윤회' 등 불교적인 사색을 담고 있는 수묵담채화 외에도 2005년 환경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한 대작 '피안에 이르는 길'을 만날 수 있다.

경선 스님은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붓을 잡았다"며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전액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3-9512 이은비 기자

연예 단신

장윤정 '트로트 리메이크' 앨범 발표



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가 4월 초 트로트 발라드 곡들을 담은 리메이크 앨범 2.5집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은 자신의 2집 수록곡 '콩깍지'를 경쾌한 리듬으로 불렀다. 트로트로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주현미의 '러브레터' 등을, 발라드로는 장혜리의 '추억의 발라드' 김연숙의 '그날'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등을 자신만의 음색으로 재해석해 수록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불자 이승엽 선수 배트 美 명예의 전당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타자의 힘을 세계에 드높인 불자 이승엽 선수가 홈런 배트를 미국 명예의 전당(The Hall of Fame)에 3월 19일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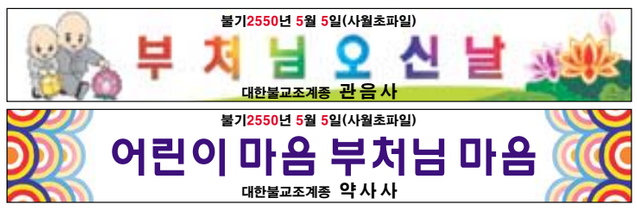
이승엽 선수의 기증은 명예의 전당 측에서 요청한 것. 이 선수는 14일 미국전에서 지난해 22승을 올린 돈트렐 웰리스(플로리다)를 상대로 1회 솔로홈런을 쳐낸 배트를 전달했다. 호수비를 자랑한 이진영은 'K'가 새겨진 자신의 모자를 명예의 전당에 남겼다.

한편 불심이 돈독하기로 이름높은 이승엽 선수와 박찬호 선수는 WBC가 선정한 올스타팀에 뽑혔다. 강지연 기자

불법복제판매 불허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 축 현 수 막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지하철(장엄)현수막



◆ 티셔츠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통칙스님 판화 작품

◆ 앞치마
색상 :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빨강, 녹색



◆ 청사초롱 (5가지 1세트)



◆ 봉축 캐릭터 등
색상 :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화재염려 없는
◆ T형 일체식 케이블
※ 실용신안등록 제품!



◆ 봉축 캐릭터 풍선



(바람넣는 손펌프도 있습니다)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봉축 어깨띠
색상 : 주황, 하늘, 군청, 분홍, 연두 분홍, 노랑, 주황, 하늘, 연두 (사찰명 인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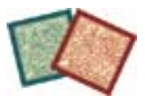
◆ 봉축 타이슬링



◆ 연꽃타올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 주황, 진녹, 밤색



◆ 봉축 리본



일반 고급 3단귀빈용

◆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호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찰명 인쇄)



앞면 뒷면① 뒷면②

◆ 황금목탁 핸드폰줄
(24K 도금)



◆ 봉축 버튼



◆ 부채



◆ 자외선차단 썬캡
색상 : 빨강, 청색



◆ 아동모자
색상 : 빨강, 노랑, 청색



◆ 성인모자
색상 : 청색, 녹색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감로기획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71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3월 29일(음력 3월 1일) 수요일

자꾸자꾸 지혜를 넓히고 마음을 발전시켜야

여기 나와서 마음법을 배우고 가는 분들이 바로 생각을 하시게끔 항상 얘기를 해 드리지마는, 오늘은 더 확고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 그 전에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살아나가는 그 방식에 의해서 관습이 되어서 영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이 찌들고 겹겹이 늘어붙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늘어붙은 거를 다 제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러분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와 같고 어떤 땐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일어나요. 가슴에서 화가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서요. 나와 더불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어떤 집은 이 병 저 병, 이 애고 저 애고를 다 가지고 있으니, 다섯 식구가 사는데 네 식구가 다 그러니 한 식구가 배겨날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도 그렇지마는 어떤 사람은, 전자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그 습과 착과 타신을 믿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창 얘기해 드리지만, 그런 유전성이나 영계성으로 인한 애고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살림살이, 가정, 내 삶,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원주에 있을 때, 아까 얘기하던 무당 노릇을 안 하면 식구가 다 입원을 하게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노라고 그래서 그것을 처단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거기다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됐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어서 그런 걸 다 없애고 보니까 자식들이 그때서야 시집 장가를 가는 데 걸림이 없었답니다. 그게 좀처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영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이고, 유전성이란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생각을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부모 뿌리와 자기 뿌리가 동일하게 엮어져 간다는 거는, 전기가 가설이 되어 있는 데는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항상 해왔습니다. 즉, 어머니다 아버지다 자식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는 자체가 바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인과를 가졌다면 선덕이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악행을 했다면 악행대로 악행이 연결이 될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다면 지금은 과거죠? 그래서 현실로 무명을 쓰고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미래이자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삼독이 삼독 속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 삼독을 제거하려면 여기에서 관법을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해야 하고, 그 다음 이차적으로는 관법을 하시되 묘하게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이겁니다. 잘되고 못되는 걸 개의치 말고 해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믿는데 잘되든지 안되든지 내 자식이지, 잘되면 내 자식이고 못되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부모지, 잘나면 내 부모고 못나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주인공이라는 것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바로 진화시켜 가면서 온 바로 선장이며 선장의 근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잘되면 '아이고! 주인공 감사하다.' 그러고, 안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러고 등한시하게 되죠. 그게 등한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개의치 않고 믿어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믿는 거를 잘되면 믿고 안되면 안 믿는 거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믿으면 잘된다는데 왜 나는 안되나. 안되니깐 그까짓 건 믿으면 뭘 해?'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안되든 되든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진화시키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장본인의 근본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자부처자 부처님입니다.

'부처 가운데 중생이 있다.' 하는 것은, 이 내 몸속에 수십억의 의식들이 있죠? 내 마음이 부처라면 그 육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딴 사람입니까, 어디? 그 한 사람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모든 의식들이 작용을 해 줘야 다닙니다. 그러니 아주 심사숙고해서 진짜로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첫째, 믿어야 한다. 둘째는 믿는 대신에 안되는 거는 잘 생각을 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과거로부터 이렇게 끌고 가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말입니다. 셋째는,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모든 것이 상대가 잘못해서 아주 원망스럽고 그렇더라도 상대를 원망하지 마라 이겁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깡통이기 때문에, 똑같은 넝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끔 자기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 '선행을 해라. 악행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은 악행을 하면 악행이 오고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오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콩은 콩끼리 만나고 팥은 팥끼리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놈과 그렇게 하는 놈이 없으면 당하지를 않게요? 그럼 고통이 없게요?

이 세상 천지를 다 보세요. 넓게 보세요. 항상 내가 얘기하죠? 상점에 가도 끼리끼리 놔져 있고, 사람들을 봐도 끼리끼리 살고 있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단 말입니다. 천차만별이 다 끼리끼리들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다섯 식구가 살든 세 식구가 살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살아도 자기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업보가 많은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저놈이 저렇게 속만 썩이고, 저 애가 왜 저렇게 나를 잡아 먹지 못해서 애를 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과거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만난 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박씨에서는 꼭 박이 나오고, 호박은 호박씨가 호박을 이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전체가 다 팔만대장경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다 누구의 탓입니까. 자기가 벌여 놓고 자기가 거둬야 하고…. 선행을 하면 선덕이 오는데, 선덕을 하고 가다가 보면 악행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친 뒤에 끄트머리에 가서 "악과 선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선덕을 하게 되면 악행도 하게 되고 악행을 하게 되면 선덕도 하게 되니까, 이 양변을 다 놔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길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과 가는 길을 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셋째에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려라 했는데, 그것도 모든 걸 묘미 있게 지혜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이러란다고 그냥 그것만 또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 마음을 발전을 시켜라 이겁니다. 한생각 내란다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해서 놓는 거는 놓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발전을 이룩한다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 시기가 익어지면 그대로 아주 생각이 넉넉하고 상쾌하게 그냥 저절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마음들이 관습에 젖어 가지고 요것도 걸리고 조것도 걸리고 죄 걸립니다. 그 왜 걸리는 줄 아십니까? 모두 그 습들을 떼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사를 가려면 날을 봐야 된다는데, 날짜를 봐야만 산도 만진다더라, 또 날짜를 봐야만 장을 담근다더라 하는 요런 관습이 많죠. 그저 그냥 자기가 좋은 날, 노는 날, 하는 일이 없고, 그러면 되는데, 벌써 뭘 하려면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나쁘고 좋은 걸 따지면서, 자기가 따지지 않아도 될 거를 따져 가지고 생각을 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벌여 놓고선 '아이고! 그냥 하니까 일이 생기더라.' 이러는 겁니다, 이제. '예방을 안 하고 날짜를 보지 않고 그냥 했더니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거는 자기 생각이 먼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생각을 잘하면 모든 거를 다 얻게 되고, 한생각을 아주 몽땅 쉬게 되면 역대의,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삼독을 그냥 제거시킨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용건만 얘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얘기를 내놓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응, 공부한 지 몇 달 안되었구나." 하고 그러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몇 달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도 아프고 나 피곤한 거 다 비켜 놓고, 여러분이 애처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앉으나 서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얘기해주고 앉으나 서나 행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태평하기가 그렇게 만사 태평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불덩이 속에서 타면서 돌아가는 거와 같은 살림살이를 하면서, 다가오는 애고가 어디 한 가지뿐입니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밥을 먹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업보를 제거하려면, 본인이 밥을 먹어야만 배가 부르듯이 본인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만이 그게 녹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애탄기탄하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중이 먹기 위해서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집에서 잘 쓰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짧은 거는 이 무명이 짧다 이 소립니다. 이 고통 속에서 모두 허덕대는 것을 보는 그것도 죄입니다. 아무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보는 놈과 당하는 놈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가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나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처음 오신 분이 있건 즐창 오시던 분이 있건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서 마음을 개발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바로 현실의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그 발전하는 마음이 현실 속에서 나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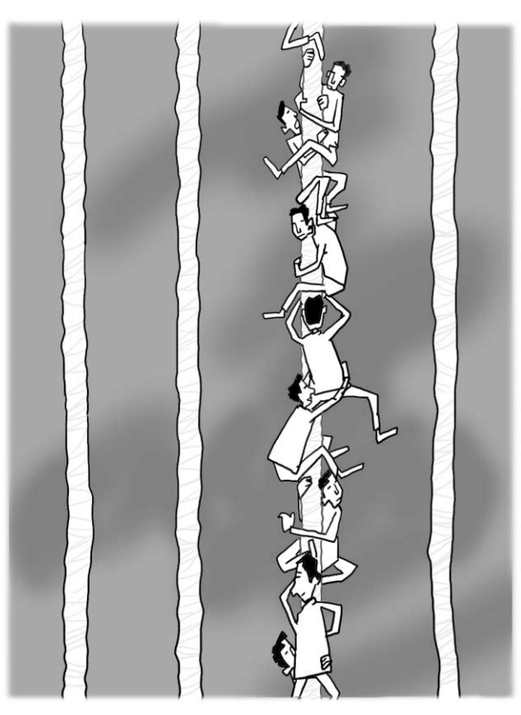
옛날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신라 때 어떤 젊은 화랑 둘이 아주 의형제를 맺어 가지고 절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지식과 학식을 풍부하게 쌓아서 아주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들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식과 학식은 충분하지만 정신계의 발전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신계의 발전을 시키지 못해서 방향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아주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는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자.' 해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노스님 한 분이 밥을 바가지에다가 얻어다가 자시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그 목도 마르실 것이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노인네가 잡수십니까?" 하니까 "젊은 자네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물 떠다주길 바라고…." 허허허, 그러더랍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한생각 몽땅 쉬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독이 다 제거


그림 · 최주현

선과 악을 다 놔야 업의 굴레서 벗어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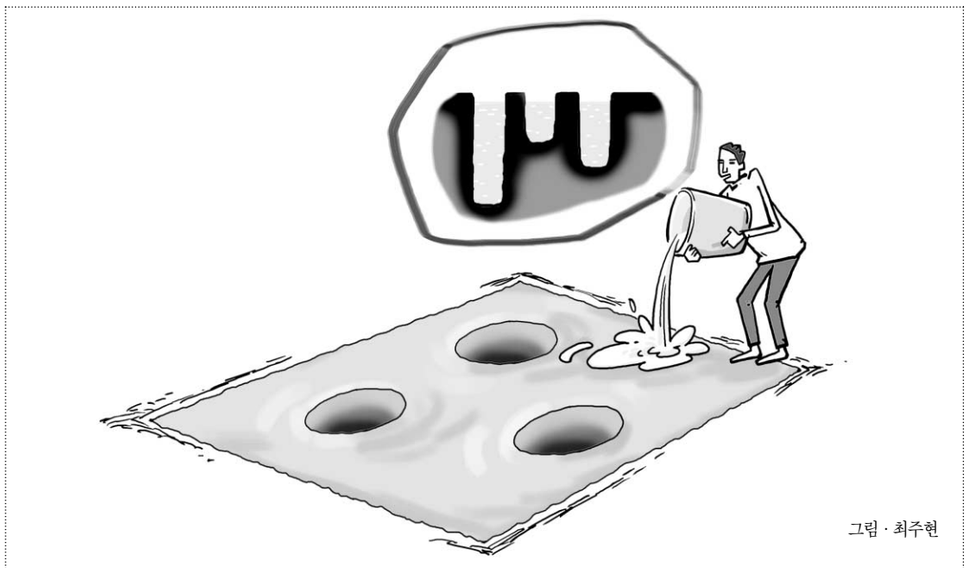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래 한참 내려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드리니까 "잘 먹었다" 하면서 다섯 가지 말씀을 해 주더랍니다. "지금은 세월이 세월이니 만큼 다섯 가지 계법을 너희한테 내가 일러줄 테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느니라. 이 마음 속에, 이 지금 내면 속에 선을 세워 놓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딱 담고 너 아닌 너한테 말겨라.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도 또 말겨라. 니 몸뚱이가 그 집 아들이 아니라 진짜 너가 그 집 아들이니라. 또 셋째는, 친구들을 만나되 도의, 의리, 진정한 마음으로써 사귀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귈 수가 없다면 한데 뭉칠 수가 없다.

그리고 넷째는 모든 일들을 하되 딴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화랑이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할 때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럴 때에 너그럽게, 모른다 할지라도 네 탓으로 생각하고, 몰랐을 때 네 모습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끌어 가거라. 다섯째,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죽이되, 말이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이런, 인간들 가깝게 있는 것들은 죽이지 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는 너희가 먹을 만치만 죽여라. 그리고 살생을 하되 봄, 여름은 지나서 살생을 해도 해라." 그렇게 다섯 가지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 두 화랑은 다시 나중에 여쭤봤더랍니다. "네 가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어째서 다섯째 살생을 하되 먹을 만치만 하고 여름과 봄은 제해 놓고 하라 하십니까?" 이러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여름과 봄은 새끼들을 낳아서 모두 기르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 살생을 하되 새끼를 가지지 않았을 때 하고 또 먹을 만치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계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너희들 그릇을 봐서 계를 주는 거지 이거는 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라. 시대에 맞춰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줄 알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두 화랑은 거기에서 조금도 그 스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실천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또 훈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그 삼국을 통일하는 데 아주 여러 모로 다양하게 기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정직하라고 했다고 끼었다 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지혜롭고 이익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이익한 지혜지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네 가정에 모든 지혜와 그 진실된 믿음, 그리고 요량, 그리고 남을 증오 안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르는 사람도 내 모습으로 알고, 악한 사람도 내가 전자에 살 때 악했던 그 모습으로 본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아마 다 화목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국가 질서도 그렇고 사회 질서도 그렇고 아마 세계도 그렇게 평등하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자녀들도 남한테 가서 폭력을 쓰래야 쓰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을 하래야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쁜 일도 당하지도 않을 거고 폭력을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일체 천차만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다가 있을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여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를 이끌어 가는 나 자체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선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가 죽을 데로 끌고 가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을 데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대로 믿어야지 되겠죠.

진짜로 믿어야 마음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이룩할 수 있고, 세세생생에 다 이룩할 수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밝아서 자식들의 뿌리도 밝게 불을 켜 줄 수가 있고, 부모 조상들에게도 불을 켤 수가 있어서 이 세상에 다시 천도가 돼서 나올 때도 조금도 어김없이 선행과 그 모든 보살행을 그대로 적절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해서 돌아가신 부모들도 둘 아니게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정신계의 어버이로서 이 세상에 출현할 겁니다, 아마.

이 삼독을 면하면 말입니다, 삼세의 부처님의 마음이 한마음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모아서 됩니다. 그러니 한마음인데 어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라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마음이 찰나찰나 전달을 하며 돌아가는데 어찌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묘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라도 아주 생생히 진짜로 믿고 얘기할 데는 거깁니다, 거기! 아, 얼마나 좋습니까? 빽이 여기 있고, 항상 부처님 마음에다가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선 주인공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일체제불의 그 한마음이 동시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동시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어 주신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그 하나의 보살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한마음이 돼 주고 또 무슨 일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스님을 꼭 만나서 얘깁 안 해도 스님의 마음,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내 한마음으로 응해 주시니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신임하고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기르려면 그렇게 실험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 소립니다. 육신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런 거니깐 길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 하늘이 깨지고 지붕이 갈라지고 은통 자식이 그냥 죽고 남편이 급사를 하고 그런다 해도 능히 눈 깜짝 안 한다면 그거는 다 헛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없죠. 허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항상 밝아서 걸림이 없이 뭘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살아 생전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마음으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벌어졌다 하면 독성이나 산신이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또 죽어서 좋은 데로 못 가서 거기다가 고하고 그냥 '너밖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히 믿는다면,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삼독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놓으면 지장의 마음이 거기 한마음이 돼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니깐 뭐 궁색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궁색할 새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해도 죽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법에서 10년 징역을 받았든 20년 징역을 받았든 일단 받은 거는 채워야 되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진실하게 참, 어디에도 모범적이고 어디에도 잘할 수 있다면 징역 20년 받았던 게 15년으로도 될 수 있고 10년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전자의 묵은 빚을 다 갚아야 된다 이 겁니다. 유전성을 다 없애고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다 그냥, 삼독을 몽땅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마음으로다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히 믿고 '저 스님이 저거

▲신도1(여) : 스님, 이 사람이 결혼한다고 인사 왔습니다.

▲스님: 그래요.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결혼도 그래요. 그저 만났을 때만 좋아서 이러지 말고 꾸준히, 네가 잘못했으면 내가 돌보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내가 돌보고 싸고, 서로 말을 해서 의가 상할 것 같으면 저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좋게만 연결하고, 그저 못났던 내 모습으로 보고서 감싸고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부부지간에도 이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니가 잘하면 내가 잘하지만 니가 못하는데 내가 잘할 줄 알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런 생각일랑 아예 마시고, 우리가 이 무명을 쓰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독하게 삽니까. 독하게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

그러니 나는 모르니까, 처음 왔으니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붙지 않고 그 관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해 보신다면 뭐 이렇든 저렇든 알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 거짓말 안 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4월 2일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맛에 삽니다 (하)

조형숙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믿고 놓아라, 놓는 만큼 얻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

수시로 듣는 말이었지만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공, 근본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근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므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올라오는 그곳에 다시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

상대에게 지갑을 주며 '가지고 있어' 하듯이 주는 것일까?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 다음은? 말만 맴돌 뿐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보았습니다. 무식하다고 여길 만큼.

제 아들은 제가 마음공부 하는 데 큰 공부자료입니다. 아들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매번 부딪칠 때마다 제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때론 분노에 휩싸인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마음공부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흔들림은 보는 것만으로도 잦아들었는데 강한 분노, 두려움 등은 쉽게 잦아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 녀석이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아무래도 내 각시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양보하면 어떨까?"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내던진 말 한 마디에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간을 아들과 말을 않고 살았습니다. 수행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오직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품안 자식이란 말이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들만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부처님께 매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믿어지지 않던 주인공 자리에 무조건 맡겨 보았습니다. 자신을 본다고 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내 감정에 묻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처님 자리가 있다고 했지, 이 분노와 미움도 그곳에서 나왔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문제도 그곳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해결해야 하잖아. 주인공! 지금 너무 힘들잖아, 모든 것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되도록 네가 해결해 봐!'

결혼 앞둔 아들의 분가 선언에 배신감
'주인공'에 믿고 맡기니 원망심 사라져
모든 문제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깨달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따져볼 생각 없이 조급한 마음에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주인공, 주인공'을 속삭였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올라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에 대한 원망심은 더욱 치성해졌습니다.

주인공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아들에게 쏟아버릴까? 아니면 아들과 의절하고 살까? 원망심은 가져서는 안 될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진득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놓는 연습을 해보니 조금씩 상황이 잦아들었습니다.

어느 땐 제가 놀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고 회복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인공 자리가 있나보다' 하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인공에게 무조건 믿고 맡겨지지 내 욕심이나 집착 등이 개입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무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리분별을 떠난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법사님께서는 항상 제게 "일단 해보세요, 한만큼 자기 것이 되고 해보아야 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의구심과 견고하지 못한 제 신심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책의 순간이 반복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솟아올랐지만, 무작정 스님과 법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마음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고 자신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해답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면집중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에게서 왔다고 느껴지던 문제가 자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밖을 향해 있던 원망의 마음이 줄어들면서 내속의 허물을 벗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과거에는 자신의 잘못을 없앨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주변이 밝아지고 특히 식구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모두 알아서 할 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통제하고 분별심으로 대하기만 했으니, 그런 습관과 업력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부처님 자리에 맡기고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밖에요. 또한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 공부수준에 따라 자기에게 걸려있는 집착이 경계로 오는 듯합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 그때그때 문제가 온다면 본인 수준에서 충분히 풀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때마다 넘어서야겠지요.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곧 자신을 세세히 살피면서 놓고가라는 신호일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할 기회이겠지요. 그때 더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제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밭을 가꾸는 농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거짓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고 부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수행 정진하며 사는 삶이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고(古)건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그림1 : 당 유학길에 오른 여정 중, 비를 피해 무덤 속에 잠든 의상과 원효. 원효는 꿈에 귀신에게 시달린다..

지혜의 빛 밝힌 영원한 자유인 '원효'

불화 속의 명장면 (6)

日 교토 고산사 소장 '화엄종조사회전-원효도'



그림2 : 엇갈리는 운명. 떠나는 의상(왼쪽), 남는 원효(오른쪽). 마음밖에는 스승이 없음을 깨달은 원효는 당으로의 유학을 가지 않기로 한다.

'금강삼매경' 주석서 도난 현장 목격한 개의 울부짖는 장면 애절
의상도와 달리 소탈함 · 서툰 듯한 붓놀림 매력적 내용의 맛 주력

"어찌 자유인을 억지로 노예로 만들려하십니까."

남전 큰스님이 동산 양개(조동종 창시자 807~869)의 그릇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어리지만 갈고 닦아 볼 만한 재목이구나"라고 말했을 때, 동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인'을 말한 이 대목을 읽으니 곧바로 원효대사가 떠오릅니다.

인간은 물론 '사회적 동물'인지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좋든 싫든 그 사회의 가치관에 지배되어 자신 삶의 패턴을 다잡으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신라시대의 명승 원효는 '생사(生死)'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인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제도나 가치관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심지어 불법(佛法)까지도요.

<삼국유사>에는 '걸림이 없는 자, 원효(元曉不羈)'라고 하여, 원효의 무애행(無碍行, 경계와 장애가 일체 없다는 뜻)과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몸을 던진 그의 파격적인 보살행을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 카마쿠라 시대의 승려 묘에쇼닌(1173~1232)은 이러한 원효의 인품을 너무도 흠모한 나머지 자신을 원효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가 제작한 '화엄연기(화엄종조사회전)-원효도'에는 원효의 행적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장면 장면마다 자신 주변의 풍경과 중첩되면서 자아몰입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원효도'는 당으로의 유학길에 오른 의상과 원효가 큰 비를 만나 한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자던 중 꿈에 귀신에게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고 깨어난 원효(그림1). '어제는 작은 동굴이라고 생각해 그지없이 편안하더니 오늘 시체 유골의 무덤임을 알고 나니 마음이 이리 괴롭구나'.

여기서 바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유심(唯心)'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돈오(頓悟)의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대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저잣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천민들 속에서 거문고를 타고(그림3), 대자연 속에서 달을 노래하고(그림4), 춤을 춥니다. 때로는 경론의 소를 지어 강찬(講讚)하여 듣는 모든 이들을 눈물짓게 합니다.

또 산속에서 좌선하면 새와 호랑이, 이리가 와서 굴복했다고 합니다. '지혜는 견줄 것이 없었고 행덕은 가늠키 어려웠다'라고 작품 화기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영향으로, 묘에쇼닌이 평생에 걸쳐 주력한 것이 바로 '명상에 의한 의식의 개혁'입니다.

원효는 불교 서적에 두루 통달하였고 또 방대한 양(약 일백 권 이상 추정)의 책을 저술하여 높은 학덕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계율에 구애받지 않았던 그의 자유분방한 행동은, 당시 불교계로부터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왕의 통치기간동안 단 한번 열린다는 백고좌 인왕법회는 당 시대 일백 명의 명승들이 참석하여 거행되는 거국적 행사입니다.



그림3 : 거리에서 거문고를 타는 원효

日 스님 묘에쇼닌, 원효 흠모 장면마다 자아몰입 흔적 역력
'유심(唯心)' 깨달은 후 걸림없는 원효 행덕 작품속에 녹여

그런데 '미치광이와 같은 천인을 청할 수는 없다'라는 다른 승려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원효는 참석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송고승전-원효전>에도 '계 · 정 · 혜 삼학에 통달하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 신의 경지에 올라 만인의 적(萬人之敵)이 되었다'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비범함은 도저히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학덕은 그의 이름 원효(元曉)처럼, '새벽의 빛'처럼 그렇게 온 나라를 비추게 됩니다. 신라의 왕비가 악성종양을 앓아 백약이 무효하여 약을 구하러 사신이 급기야는 당나라로 뱃길을 떠납니다. 가던 중, 바다의 용왕을 만나 <금강삼매경>을 얻는데, 이 경의 소(疏)를 짓고 강찬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 합니다. 지난 회에 소개한 '의상도'에서 역시 선묘가 용으로 변해 의상과 불법을 수호합니다. '원효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비로자나 대용왕이 나타나 해법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누가 이 경을 강의할 것인가? 오직 원효법사라야 이 경을 가히 강의 할만하다' 그런데, 원효가 혼혈을 기울여 저술한 <금강삼매경>의 주석서 다섯 권은, 황룡사에서의 연설 당일 바로 직전, 시기하던 자가 훔쳐가 버립니다. 이 도난의 현장을 묘사한 장면에는, 이를 목격한 누렁개 한 마리가 목을 뒤로 한껏 젖히고 어두운 허공을 향해 안타깝게 울부짖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원효는 굴하지 않고 삼일을 연기하여 다시 세 권의 주석서(略疏)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 <금강삼매경소>입니다. 드디어 원효가 황룡사에서 강의를 하니,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고 그의 설법은 가히 만고의 진리가 될 만하였습니다.

작품에 묘사된 원효의 허름하고 누추한 행상은 '의상도'의 깔끔하고도 곱상한 진골 출신 의상과 비교됩니다.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승복을 갖추어 입는 하얀 피부의 의상에 비해, 원효는 삭발에도 면도에도 전혀 신경을 안 쓴 듯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상도'와 '원효도' 양자의 화풍입니다. '의상도'는 주변 정황을 사실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꼼꼼하고 성실한 표현 기법을 쓰지만, '원효도'는 사사로운 기법에 구애받기보다는 내용의 맛을 살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감한 장면 전환, 줌 아웃되는 조감도식 풍경 등 소탈한 듯한 일필휘지의 붓놀림이 서툰 듯 매력적입니다. 마치 원효의 인품과도 닮은 화풍입니다.

물론 원효는 계율과 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초월'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진실한 내공도 없이 어설프게 원효의 걸림 없는 행적만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정신에 누를 끼치는 것이겠지요. 그의 해동화엄은 역으로 불교의 종주국인 중국과 또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금강삼매경소>는 중국에서 당나라 불교학자들에 의해 <금경삼매경론>으로 승격되어 추앙됩니다. '론'이라는 것은 아무 주석서에나 함부로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이 원효의 찬술이 얼마나 높은 학덕으로 지어졌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당시 중국을 정점으로 한 방향 일색으로 흐르던 불교의 커다란 흐름에, 이제는 쌍방향으로 일대 전환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불교철학을 연구하는 한 유명 해외학자는 원효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종교적 원형'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론 원효가 비춘 '빛'이 신라 땅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밝혔기 때문이었겠지요.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그림4 : 물가에서 밤하늘의 달을 노래하는 원효

